[대학혁신지원사업] [학습법]

2020-1학기

원격수업 참여 사례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내가 참여한 수업이 최고!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차례

✤ I 등

김지혜(불어불문학과) ㅣ원격수업 속 연결고리 ····· 1

✤2등

전가영(산업공학과) ㅣ 비대면 수업으로 교수님과 교감하며 창의력 기르기 ····· 4
이승찬(산업공학과) ㅣ 나만의 상위학점 Tip ····· 6

✤3등

심찬보(기계공학과) ㅣ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강의 ····· 10
노종현(e-비즈니스학과) ㅣ 생산운영관리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과 교훈 ····· 13
장다원(국어국문학과) ㅣ 낯선 상황은 새로운 경험을 주고 ····· 16
김현진(사회학과) ㅣ 모니터 속 개념이 내 것이 되기까지 ····· 19

✤입선

강보경(산업공학과) ㅣ 베짱이에서 개미로! ····· 22
강성훈(응용화학생명공학과) ㅣ 퀴즈의 늪 ····· 25
고재원(국어국문학과) ㅣ 전화위복(轉禍爲福), 나로부터의 변화 ····· 27
김나연(경영학과) ㅣ 비대면, 위기를 기회로 ····· 31
김민정(행정학과) ㅣ 학습과 응용 ····· 35
김민주(응용화학생명공학과)
ㅣ 원격수업을 통해 나만의 공부법을 찾았던 2020년 1학기 ····· 38
김주원(전자공학과) ㅣ 처음 해본 원격수업 ····· 42
김진희(국어국문학과) ㅣ 비대면 강의도 막을 수 없던 강의력과 노련함 ····· 45
김현지(심리학과) ㅣ 교수님과 학생들의 아름다운 상호작용 ····· 48
김형규(소프트웨어학과) ㅣ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수업 ····· 51
김혜린(산업공학과) ㅣ 원격 수업에서 경험한 소통하는 수업 ····· 54
남궁수미(산업공학과) ㅣ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참여 사례 ····· 57
서지현(심리학과) ㅣ 나만의 독특한 경험(이야기) ····· 60
성유진(응용화학생명공학과) ㅣ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했던 나의 지난 학기 ····· 64
손서연(신소재공학과) ㅣ 수소 상용화를 위한 도약 ····· 67

신지원(불어불문학과) | 함께 만들어간 수업 ····· 71
안효진(경영학과) |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한 참여형 수업 ····· 74
양연실(전자공학과) | 언택트(Untact) 시대의 공부법 ····· 76
엄태욱(기계공학과) | 위기의 대처와 새로운 변화 ····· 79
이광희(국방디지털융합학과) |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비대면 수업 방식 ····· 81
이병권(전자공학과) | 가장 완벽한 강의 ····· 84
이서희(영어영문학과) | Your pain is my happiness ····· 87
이선우(산업공학과) | 나만의 원격수업 참여 방법 ····· 90
이아림(국어국문학과) | 비대면이어도 괜찮아 ····· 93
이태연(전자공학과) | 동영상 강의 따라잡기 ····· 96
이해진(건설시스템공학과) | 보이지 않는 태풍 ····· 98
임채현(기계공학과) | 원격수업이어서 더욱 빛났던 수업 ····· 102
임채형(기계공학과) | 과학사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 104
정성은(환경안전공학과)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참여 경험 에세이 ····· 106
정예림(e-비즈니스학과) | 원격수업의 다양한 수업 방식에 대한 나의 경험과 팁 109

1등

원격수업 속 연결고리

교과목명 : 기업가 정신과 경영
교 수 명 : 박철형
학 과 : 불어불문학과
이 름 : 김지혜

지난 한 학기는 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등장으로 전례 없었던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관계자 분들, 교수님, 학생 모두 새로운 수업 형태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원격수업은 교수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이 멀리 떨어진 상태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강의 마다 각각의 원격수업 방식이 있었습니다. 동영상 녹화로만 이루어진 강의, 실시간으로만 이루어진 강의, 동영상 녹화와 실시간을 모두 활용한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 강의가 가장 좋았습니다. 바로 박철형 교수님의 <기업가정신과경영>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과제반과 시험반으로 나눠졌습니다. 과제반은 시험 대신 과제로, 시험반은 과제 대신 시험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과제반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려주시면 그걸로 수업을 듣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강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재로 공부한 뒤 질문게시판에 질문을 올립니다. 학생들은 실시간 수업 때 다시 이 질문들을 던지고, 다른 학생들이 답변을 하면서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실시간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은 아주Bb에 올려서 언제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녹화분도 올려주시기에 다시 돌려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Bb 수업참여기록 항목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공부한 후 알게 된 점, 깨달은 점 등을 올립니다. 수업참여기록 중에서 함께 공유할 만한 내용은 교수님께서 공지사항에 올려주셔서 다 같이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과제반은 자유토론글과 토론댓글로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유토론글은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 적용해본 뒤 하나의 토론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토론댓글은 다른 학생이 작성한 자유토론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의견, 느낀 점, 보충할 점 등을 답글로 다는 것입니다.

이 수업은 동영상 녹화, 실시간, 아주Bb 이 세 가지를 적절히 활용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수업의 중심 내용을 동영상으로 전달하시기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언제든 다시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속도조절 기능으로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의 속도를 달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수업의 집중도를 유지하면서도 수업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효과를 줍니다. 되감기 기능을 통해 바로바로 놓친 부분을 돌려들을 수 있기에 놓치는 부분 없이 모든 수업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수업은 동영상 강의로 배운 내용에 대해 학생들끼리 질문과 답변을 하고, 이에 대해 보충할 부분은 교수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내용을 다

시 한 번 복기할 수 있기에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학생들끼리 질문과 답변으로 소통을 하면서 나 혼자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다 같이 수업을 듣는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수업에서 하는 질문과 답변에는 가산점이 붙었기 때문에 다들 참여도도 높았고, 따라서 원활한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수업 내용을 확장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기 위해 저도 더 열심히 수업 내용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더 심도 있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시간 수업을 항상 녹화해서 올려두셨기에 다시 보고 싶은 학생들은 언제든 돌려볼 수 있었습니다.

박철형 교수님께서는 아주Bb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아주Bb에 실시간 질문과 답변을 올려두는 항목이 있어서 그곳에 학생들이 자신이 한 질문과 답변을 올려두었습니다. 언제든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녹화 본을 보지 않아도 수업내용을 유추하고,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수업참여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수업참여기록 항목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을 보면서 나와 다른 감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교수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이 연결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과제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자유토론글과 토론댓글은 수업 내용을 심화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유토론글을 쓰기 위해서는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유주제였기에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배운 내용을 연결시켜야 했습니다. 이는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 학습 효과를 키웠습니다. 한편의 완성된 글을 작성해야 했기에 글쓰기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토론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의 자유토론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했기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사고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유토론글과 토론댓글은 아주Bb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토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수업과 아주Bb에서의 온라인 토의는 비대면 강의에서 부족할 수 있는 토의시간을 보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자칫하면 단순한 인터넷강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수님과 학생의 교류가 적을 수밖에 없고,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을 대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 혼자만 수업을 듣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철형 교수님의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한 것에 더하여 온라인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수업인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쉽게 휘발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격 수업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정규 학기임에도 불구하고 방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저는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부엌 식탁에서 수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낯선 환경은 약간의 긴장감을 주기에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들어갈 때도 다른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저는 아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으로 설정해두었습니다. 인터넷을 켜자마자 아주대학교 홈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겨를 없이 수업과 과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표에 맞춰서 밀리지 않고 수업을 듣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비대면 수업은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수업방식 외에는 스스로 수업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구조이고, 이는 미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동영상 강의더라도 최대한 수업 시간표에 나와 있는 시간표대로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 시간표대로 저의 루틴을 만들어가면서 현재 방학이 아니라 학기 중이라는 것을 몸이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강의 수업의 경우 강의노트에 필기를 꼼꼼히 했습니다. 일시정지버튼이 있기 때문에 수업내용을 놓칠 우려 없이 꼼꼼하게 필기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다시 돌려볼 수 있었지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일시정지버튼을 활용해서 최대한 필기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강의노트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필기한 강의노트로 동영상 강의를 들은 직후 복습했습니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강의노트이기 때문에 복습하면서 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복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실시간 수업일 경우 컴퓨터 메모장으로 필기를 했습니다. 실시간 수업은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손으로 적는 것보다 메모장으로 필기하는 것이 놓치는 내용 없이 필기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리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강의노트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강의노트 하나로 공부를 할 수 있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이중으로 필기하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교재가 있는 수업의 경우 교재 목차로 예습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교재 목차와 강의노트에는 대략적인 수업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울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하는 예습이더라도 짧은 시간에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교재를 정독하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이는 수업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수업은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과 소통하는 것도 수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학기동안 이루어진 비대면 수업으로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이메일을 적극 활용하여 교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면 대 면보다는 부족할 수 있지만 충분히 내용전달이 가능하기에 이메일 역시도 좋은 소통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의 등장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는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향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더 확장되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수업이 생기는 만큼 다양한 비대면 학습 방식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나만의 학습법을 계속해서 발굴해나가야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수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배우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2등

비대면 수업으로 교수님과 교감하며 창의력 기르기

교과목명 : 창의적 사고
교 수 명 : 신종호
학 과 : 산업공학과
이 름 : 전가영

2020-1학기는 코로나 19사태로 개강이 계속해서 미뤄지다 결국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창의적 사고 수업을 대면으로 수강했던 학생들의 긍정적인 후기를 듣고 많은 기대하고 있던 터라 더욱 아쉬웠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수업 진행에 있어서 일방적이거나, 플랫폼의 한계로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형 수업인 창의적 사고 수업의 진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종호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들을 준비하셨고,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셨습니다. 이번 학기가 끝난 지금, 신종호 교수님의 Kaltura를 활용한 비대면 수업은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들은 수업 중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수업 전 워밍업 활동, 빠른 피드백, 칼투라 기능 활용, 체계적인 수업 진행으로 크게 4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수업 전 워밍업 활동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셨습니다. 창의적 사고수업의 특성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하고, 표현하는 활동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는 대면수업과 비교해 학생들과의 의견 교류가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 수업에서는 매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워밍업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갔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생들을 채팅을 통해 참여하고, 교수님은 영상과 음성으로 피드백하며 큰 무리 없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소극적으로 참여했을 수도 있지만, 채팅으로 자유롭게 참여하면서 저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활동을 통해서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고, 실제로도, 대부분 학생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수님의 빠른 피드백입니다.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수강하는 모든 수업의 체계가 수차례 변화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공지나 변화에 대한 학생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이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피드백이 느리거나, 아예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종호 교수님은 수업 중 질문을 받는 시간을 따로 가질 때가 많았고, 공지사항 또한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해주어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셨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교수님께서 결정하시고, 통보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시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팀 활동을 진행할 때, 6개 정도의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팀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계속

해서 받고 팀에 맞는 피드백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 활동, 수업 참여에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을 매 수업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Kaltura 기능 활용 부분입니다. 대면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마다 이용하는 플랫폼이 달랐고,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 처음 사용하다 보니 불편한 부분이 매우 많았습니다. 기능을 모르시는 교수님들 수업에선, 일방적인 수업으로만 진행되거나, 의견을 주고받을 경우 수업이 더 오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 수업은 팀 활동과 수업 참여가 중요한 수업인 만큼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선택하고, 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업 특성에 따라 팀원들만 모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고,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알려주셔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고 팀 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조별 발표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문제없이 발표를 들을 수 있어 팀 간 공유가 원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면 수업을 할 때와 비교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상황에서의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의적 사고 수업을 들으며 이런 기능을 다른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체계적인 수업 진행입니다.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사고하고,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종호 교수님께서는 이론 부분을 동영상 강의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시간 내에는 동영상 수업을 바탕으로 내용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에 맞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즉, 이론은 동영상 수업 수강, 실시간 수업에서는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는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1시간 15분 수업시간 동안 계속해서 문제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었고,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진 수업을 통해서 이론, 이론 적용, 팀 활동 모두 골고루 참여할 수 있었기에, 대면으로 이루어진 수업에서 배우는 만큼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2020-2학기에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모든 수업이 대면으로 바뀔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에 수업 체계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은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면 수업일 때에 비해 학생들이 내용을 흡수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수업 참여도를 높이거나, 수업 특성에 맞게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강한 신종호 교수님의 수업 방법은 창의적 사고 수업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들도 각 수업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비대면 수업에서도 학생이 내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해 좋은 사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등

나만의 상위학점 Tip

교과목명 : 실험계획 및 실습
교 수 명 : 정명철
학 과 : 산업공학과
이 름 : 이승찬

교수님들과 모든 학생이 혼란스러웠던 2020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은 3년이라는 대학 생활을 중에게서 제일 흥미로웠던 학기였다. 새로운 수업방식 속에서 생긴 다양한 에피소드와 개인만의 학습법을 아주대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공모전을 참가하게 되었다.

1. 나만의 상위 학점 Tip

가. 수업 듣기

① 수업 15분 전 핸드폰 알림 설정하기

비대면 수업은 대면수업과 달리 학교 가는 시간이나 공강 시간,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온전히 내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정말 유혹적인 말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 강의의 기본인 출석을 까먹어버릴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1학기에 출결로 교수님, 조교님들과 많은 언쟁이 오갔고 온라인 접속시간이라는 게 컴퓨터마다 다르므로 애매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수업 15분 전에 알림을 맞춰놔서 수업을 깜빡하고 못 들어가거나 인터넷이 느려 지각하는 경우는 없었다. 특히 아침 9시에 시작하는 1교시에 유용하게 사용했던 거 같다. 같은 대학생인 친동생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나서 자기 소름 끼칠 정도로 알림이 좋을 때가 있다고 말했었다.

② 한번 들을 때, 확실하게!

비대면 수업이 집이나 카페와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 편하게 수업을 듣다 보니 긴장이 풀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또한, 녹화가 되고 있다는 안정감 때문에 수업을 대충 들으려 하는 성향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좋지 않다. 녹화된다는 것은 못 들었을 때 다시 듣기 위한 수단이지 듣지 않고 나중에 몰아서 듣는 수단이 아니다. 말처럼 쉽진 않지만 한번 들을 때, 확실하게 듣는 것이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도 기억에 오래 남는다. 난 시력이 나빠서 대면 수업일 때 칠판에 글씨가 안 보여서 항상 맨 앞에 앉았고 설명이 너무 빠르셔서 필기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는 모니터 전체에 칠판이 있어서 글씨가 잘 보여서 수업 효율이 올랐고 필기는 나중에 녹화본을 일시 정지 해두고 적으면 되었기 때문에 교수님 설명에 집중할 수 있었다.

③ 친구들과 연락은 많이 하기!

학업에 정말 관련 없어 보이지만 같은 수업들 듣는 동기들과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출이 적어지면서 학교 동기뿐만 아니라 지인을 만나는 횟수가 줄면서 연락의 빈도도 낮아졌다. 하지만 학업적인 목적 이외에도 학교 동기들과 연락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이 놓치고 있는 과제나 수업내용을 알 수 있다. 특히 과제가 많았던 이번 학기엔 동기들과 과제를 같이 고민해가면 문제 해결이 가능했다.

나. 팀 프로젝트

① Google 공유드라이브를 사용하기

이 방법은 비대면 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대면일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공유드라이브를 만들어 해당 프로젝트별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다. 기존에 한 명이 데이터를 담당하여 모으거나 카톡방에 업로드 하는 방식은 분실위험과 용량 제한이 있고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보고서 작성할 때의 문제점이 분야별 보고서를 작성해도 취합하는 사람과 이를 수정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 했다. 초안 보고서를 결합한 후엔 회의를 통해 재차 수정하게 되는데 한 명이 이를 담당해서 수정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었다. 그러나 google 문서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실시간으로 팀원 전체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동시에 같이 수정할 수 있기에 프로젝트 진행에 엄청난 속도가 생긴다. 우리는 줌으로 회의를 열어 오디오만 공유하고 각자 컴퓨터로 google 문서에 들어와서 보고서를 동시에 작성하였다. 추가로 자동 저장되는 장점이 있어서 문서가 중간에 날아가거나 데이터가 깨지는 문제를 없앨 수 있었다. 이 방법을 통해 일주일씩 걸리던 보고서 작성 기간이 9시간으로 단축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② Zoom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zoom은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 자체가 호스트가 되어 팀원 단위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회의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팀원 중 한 명이 아이패드로 회의를 접속하여 화면공유를 한다면 실제 회의처럼 회의내용을 실시간을 기록할 수 있고 팀원들과 바로바로 상의할 수 있다. 회의 도중, 인터넷 자료가 필요하다면 한 명이 찾아서 동시 화면공유를 해서 바로바로 정보 전달 외 된다는 장점이 있다.

③ 조장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라.

여러 예능이나 광고에서 대학 조별과제 조장을 정말 힘들고 혼자서 팀 프로젝트를 다하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아주대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조별평가항목이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교과목이 많아지면서 모든 팀원이 팀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이를 조율할 자신만 있다면 조장하는 것을 추천한다. 조장은 기본적으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는데, 경험상 팀원들보다 5~15% 정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 시험평가 비중이 줄어들고 과제비중이 올라간 이번 학기에는 더 크게 작용하였다. 조장한 것으로 인해서 학점이 변한 과목도 있었다.

다. 시험대비

① 시험환경은 내 스타일대로 ~

비대면 시험 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교수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가장 마음에 들었

던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시험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 넓은 책상과 밝은 스탠드에서 방 불을 끄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나는 시험에서도 같이 환경을 조성하였다. 기존 학교에 일정 시간에 모여서 수업을 볼 때는 책상이 너무 좁거나 강의실 밝기가 낮아 글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비대면 시험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었고 주변 소음 또한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기에 시험환경을 내 마음대로 조성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② 몰랐던 부분은 뒤로 가기

이것이 비대면 수업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강의가 녹화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혹여나 수업시간 중에 졸거나 집중하지 못해 듣지 못한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볼 수 있다. 평소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지나갈 때, 강의 영상 녹화시간을 빠르게 옆에 적어둔다. 이렇게 되면 녹화본을 보면서 해당 설명이 나오는 곳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바로 다시 들을 수 있으므로 복습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2. 가장 흥미로웠던 수업

가장 기억에 남던 수업은 정명철 교수님의 실험계획 및 실습 교과목이었다. 정명철 교수님은 다른 교수님들과 다르게 수업의 전반적으로 학습의 효율과 평가에 있어서 많은 도전을 하셨다. 기존 필기로 진행하던 퀴즈는 구두평가로 전환하여 수업 중 질문을 하거나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에 가장 먼저 답변을 주는 학생에게 점수를 부여했다. 처음엔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성격상 발표하기가 부끄러운 친구들도 있었고 동시에 여러 면이 대답을 하다 보니깐 오디오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업 흐름이 끊이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매 수업을 거듭하면서 먼저 손들기 버튼을 누르는 학생들에게 임의로 교수님이 발언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방식은 분명히 완벽한 평가방법은 아니지만, 기존에 일방적인 수업이었던 대학 강의를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한다. 교수님의 지식전달이 아니라 학생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꼬리를 물었다. 이 과정들을 통해 강의노트가 전반적으로 수정되기도 하고 교수님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모든 학생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어느 순간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수업 전에 강의노트를 예습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웃음이 난 적도 있다. 3년간 복습하기도 힘들어했던 내가 1점을 쟁취하겠다고 강의 노트의 오류점, 중요부분, 추가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공부하였다. 대학 와서 그때 진정한 공부를 한 기분이었다.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수업 전에 공부하고 인터넷을 통해 고민을 하게 되고 이를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과 토론하며 소통이 되었던 거 같다. 상대적으로 섣불리 못나서는 친구들을 위해 교수님은 중간 중간 학생들을 지목하여 물어보시고 점수를 부여하여 처지는 학생들 최소화하였다. 이 평가방식은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고 이는 전공과목을 어렵게만 보지 않게 되었다고 친구들과 얘기할 정도로 좋은 평가방식이라고 생각이 된다.

비대면 수업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시험방식과 평가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교수님이 시험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지어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과목들도 있었다. 하지만 정명철 교수님은 또 한 번의 도전을 하셨다. 중간고사 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 삼성에서 온라인 인・적성을 진행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교수님은 이 기사를 아이디어 삼아서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보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대 최초의 온라인 실시간 감독 중간고사라고 확신한다. 노트북과 핸드폰을 동시에 활용한 이 시험방식은 컨닝의 의혹도 많았지만, 교수님을 여러 조교님께서 동시에 학생들의 시험 모습을 관리 감독하시기 때문에 별다른 의혹 없이 마무리되었던 거 같다. 이 중강고사 방식은 산업공학과 전체에 퍼졌고 우리 기말고사도 다른 과에서 기말고사 방식을 많이 채택되어 사용되었다. 이 부분에서 이유 모를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있었다. 새로운 시험방식과 평가방식은 약간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새로움을 제공했고 온라인으론 수업이 안될거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한 학기이었다.

3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강의

교과목명 : 열전달
교 수 명 : 조병남
학 과 : 기계공학과
이 름 : 심찬보

갑작스러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대학교의 2020-1학기가 전면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은 물론 학생들까지 많은 혼란을 겪게 되면서 비대면 강의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으로 휴학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과학 산업의 발전으로 이러한 비대면 활동이 일상이 될 것이고 지금은 그저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를 강제적으로 시기를 앞당기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대면 시스템에 대한 적응은 필수 불가결하고 우리는 이를 피하기보다는 대응하여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효율적인 비대면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대학에서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강의의 질을 높여 학생들을 만족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제가 2020-1학기에 수강했던 비대면 강의 중에 효율적인 수업 운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던 강의가 있어 이렇게 원격수업사례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강의의 수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대학생들이 비대면 강의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실질적인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설문 조사 기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강의에 대한 불만을 조사해본 결과 1. 과도한 과제 량과 2.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3. 서버 과부하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만으로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는 실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과도한 과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은 그저 과제가 많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강하는 과목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제가 아닌 단순히 출석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불필요한 과제가 과도하게 부여되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비대면 강의를 진행할 때 교수님들이 강의를 녹화하여 올리면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는데 녹화된 강의가 오래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실시간 강의를 진행할 시에 마이크 문제, 캠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한 시간 지연 등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대학생 관점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위의 내용이 실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위의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학생들에게 만족스러운 강의를 해주었던 강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20-1학기 원격수업을 참여했을 때 가장 좋았고 기억에 남는 강의는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조병남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던 열전달이라는 강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강의 노트에 필기를 해주시며 강의를 녹화하여 올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강의들은 많았지만, 조병남 교수님의 열전달 강의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해주심으로써 대면 강의

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수님의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녹화된 강의였지만 실제로 학생들과 대면하고 수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수님의 개인적인 공간이 아닌 학교 내에서 캠을 켜시고 교수님의 모습과 함께 강의를 녹화하셨습니다. 또한, 강의를 녹화하시면서 항상 양복을 입음으로써 학생들을 존중해주시고 주 1회 진행되는 실시간 강의에서 참여해준 학생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시면서 수업 참여에 대한 감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먼저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을 존중을 해주시니까 학생들도 교수님과 학교 측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례 없는 강의 진행방식으로 많은 불만이 있었던 학생들이 유독 열전달 강의에 만족감을 나타낸 이유는 이러한 교수님의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피드백이었습니다. 비대면 강의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서의 소통 부재입니다. 조병남 교수님은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셨습니다. 녹화된 강의를 듣고 질문이 생기면 교수님은 직접 메일을 받아 빨리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하려고 주 2회 수업 이외에 주 1회 실시간 강의를 추가로 진행하셨습니다. 실시간 강의에서는 미흡했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이외에 열전달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해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해주셨습니다. 열전달이라는 어려운 과목을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와 함께 연관 지어서 학습하게 되니까 학습의 질도 높아지고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수강하는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강의의 질이 높게 느껴졌고 비대면 강의도 대면 강의만큼 좋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절한 과제 량이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도 단순히 출석 확인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과제를 부여하는 강의가 많았습니다. 학생 커뮤니티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학교 게시판에도 과도한 출석 과제를 줄여달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열전달 강의 또한 적은 양의 과제는 아니었지만, 과제가 많아서 불만을 표출했던 학생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는 열전달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데 꼭 필요했던 과제이었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열전달이라는 과목에 더욱 가까워지는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과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과제를 싫어합니다.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많다면 학생들은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해낸다는 것을 2020-1학기 원격수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시험 시스템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험문제를 과제처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지만, 집단으로 과제를 수행할 우려로 인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열전달 강의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이 캠을 켜고 노트북 화면으로 시험지를 보게 한 뒤, 답안지를 작성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화면을 녹화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였고 손이 화면 밖으로 이탈하면 경고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노트북이나 캠을 켤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소수로 오프라인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수이므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우려도 적을뿐더러 마스크와 장갑을 필수로 착

용하고 시험을 보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하는 시험이 비대면으로 치러지다 보니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니까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조병남 교수님은 위와 같은 수업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업 운영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획기적이지는 않습니다. 강의를 녹화하여 올리면 학생들이 수강하는 방식은 많은 교수님이 채택하고 있는 수업 방식이며 2020-1학기 원격수업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었던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병남 교수님의 열전달 강의를 가장 만족스러운 강의로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학생을 대하시는 태도와 존중해주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수업 방식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더라도 교수와 교직원님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면 학생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는 대상입니다. 대학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경쟁을 통해 입학한다는 점과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성적처리를 교수님들이 한다는 대학 특성상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등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은 권리를 찾기 위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고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대학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받는 대학생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대학생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학 입장을 이해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학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학생들도 만족스러운 비대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 측에서도 효과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원격수업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효과적인 원격수업, 안전한 원격수업 그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원격수업사례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2020-1학기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어려운 시기에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했던 비대면 강의가 있어 소개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업 운영이 많은 대학에 영향을 미쳐 대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여 더욱 안전한 대학생활을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3등

생산운영관리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과 교훈

교과목명 : 생산운영관리
교 수 명 : 이창환
학 과 : e-비즈니스학과
이 름 : 노종현

생산운영관리란?

생산운영관리 수업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에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 이론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수치적 근거를 통해 분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태블릿 PC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회사의 PM(Project Manager)은 공정 순서 변경하거나 공정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얼마만큼의 비용적, 시간적 효용이 발생했는지를 통계적 수치로 표현하고 이것에 대한 결론을 경영진에게 제시합니다.

비대면 수업의 생산운영관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학기 수업 전체가 비대면 강의로 대체되었고, 저는 학교에서 교수님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것이 수업의 질을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본 수업을 강의하신 경영학과 이창환 교수님은 비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현장강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기존 강의 시간과 동일한 분량의(1주일에 2번)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셨고, 현장강의처럼 수업 시간 중 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의 집중도는 상승되었고,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이 대면강의와 동일할 순 없었습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학교의 방침이 몇 차례 변경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대면 시험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수님은 학교의 방침과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과제로 평가를 대체하셨습니다. 과제는 총 8번의 주차별 과제와 1번의 기말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차별 과제는 한 챕터 수업이 끝나면 나왔고, 과제는 그 챕터와 관련된 계산 문제(Case study)와 토론문제(discussion problem)를 푸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Case study는 강의 중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연습문제를 변형한 것으로 출제되었기에, 꼼꼼히 강의 내용을 복습하면서 문제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discussion problem은 이번 주차에 배운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원어)를 읽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영문 또는 한글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discussion problem을 풀게 되었을 때 영어 원서를 읽고 이를 분석하여 내 생각을 적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것은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토론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강의 중에 배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고,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강의의 장점

교수님이 꼼꼼히 수업하셨지만, 이 수업은 원어수업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는 100%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는 사이버 강의였기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반복해서 수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바로 이점이 사이버 강의가 갖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셨었고, 만약 수업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교수님 메일로 연락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강의 내용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교수님께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수업은 비대면 강의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비대면 수업이 갖는 단점인 소통의 부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원격(비대면) 수업 학습 노하우

이 과목은 100%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발표 및 토론 위주로 진행되기보다는 교수님의 설명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론 강의의 강의노트의 분량은 방대하기에 공부할 때 막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핵심 내용을 위주로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교수님께서 분명히 반복적으로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해두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한 다음, 지엽적인 부분을 공부하면서 나머지 미진한 점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강의 특성상 수업을 반복적으로 수강할 수 있기에,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내용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동영상 강의 콘텐츠의 타임라인을 기록해 두고, 이를 반복적으로 수강하는 식으로 중요한 부분을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강의노트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변형시켜라” 입니다. 어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것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 체화 “입니다. 체화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나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운영관리 수업에서 나오는 ‘6시그마 ‘ 개념을 공부한다고 하면, 강의노트에 나오는 6시그마 개념을 글자 그대로만 외우는 것은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그 글을 외우더라도 금방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 개념에 대한 풍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업 중 노트 필기는 간단히, 수업 후 요약 정리는 자세히” 입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고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는 한 학기에 한 과목만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동시해서 수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체크해놓고, 수업이 끝나

고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의노트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을 웹 검색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봅니다. 이 검색한 내용을 노트에 꼼꼼히 정리함으로써 핵심 개념을 다시 한 번 복습합니다. 이 방법을 처음에는 오래 걸리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이 방법이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하게 해줄 것입니다.

비대면 수업과 관련해 이 수업을 듣는 학우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

최근 발표된 학교 방침에 따르면 다음 학기에도 이론 수업의 경우,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산관리수업은 이론 수업이기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동영상 강의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자유도가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강 초기에 이론 수업의 정적인 분위기와 100%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주변 학우들이나 교수님께 여쭈어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즐거움은 다시 수업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은 수업 집중도는 수강하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과목은 지난 주차에 수업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다음 주차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수강하실 여러분들은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하고 체화함으로써 수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수업에 대한 열의가 있으셔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면 정말 잘 알려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실 여러분은 잘 해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상대적으로 학습에 투자해야하는 시간이 많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로 생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경영대 학생분들이라면 꼭 이창환 교수님 수강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3등

낯선 상황은 새로운 경험을 주고

교과목명 : 국어문법론
현대인의 정신건강
데이터 분석 기초
교 수 명 : 박재연/김현준/신승훈
학 과 : 국어국문학과
이 름 : 장다원

잠시 왔다 지나가는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금방 끝날 소나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몇 년 전 유행했던 전염병들처럼 머지않아 종식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감기 같지 않았고 소나기 같지도 않았으며, 몇 년 전 유행했던 전염병들과는 달랐다. 1월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코로나19는 한 학기가 시작되어 끝나고서도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 유행 중인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전 세계인들의 삶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다.

대학생인 나의 삶도 코로나19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의 강의실에서 교수님과 마주하며 진행되는 수업이 일상이었고, 공지를 확인하거나 과제 제출을 할 때만 학교의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곤 했다. 과방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으며, 마스크 없이도 동기들과 가고 싶은 곳을 이곳저곳 다니며 공강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2학년이 된 나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공기처럼 당연했던 작년의 일상들이 바라며 기다려야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 곁엔 코로나19로 할 수 없어진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속속들이 생겨났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원격 수업’이다. 내가 신청했던 모든 수업들이 원격 수업으로 바뀌었다. 초기엔 2주 동안만 시행될 계획이었던 원격 수업은 그 기간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며 1학기 내내 이어졌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태였기에 교수님들과 학생들 모두 당황스럽고 낯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 환경을 최대한으로 조성해주시기 위하여 애쓰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수업들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내가 수강했던 수업 중 박재연 교수님의 ‘국어문법론’의 경우, 교수님께서 항상 학생들의 편에서 생각해주시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업 방식을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주셨다. 원래 교수님께서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목적으로 실시간 강의를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개강 후 며칠간의 수업은 실시간 강의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웹캠이나 마이크의 문제로 잦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 이에 신경이 쓰여 교수님이든 학생이든 온전한 집중이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들이 생겨났다. 교수님께서는 ‘호스트’가 아닌 ‘참가자’가 되어 ZOOM에 접속해보시면서 1시간 15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노트북 화면만 쳐다봐야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셨다며 수업 방식을 ‘녹화 강의’ 방식으로 바꾸어 주셨다. 수업 시간에 맞춰 링크에 접속해야 하는 실시간 강의와 달리 교수님께서 사전에 녹화해주신 강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듣고 스스로 학습하기만 하면 되는 녹화 강의로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더불어 실시간 강의와 달리 녹화 강의로는 수업을 들으며 생성된 질문을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면 빠르게 답장해주셨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 사항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교수님의 유연성 있는 대처로 나를 비롯한 학생들의 만족도 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교수님의 유동적인 대처가 아니었다면 나를 비롯한 학우들이 큰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었을 것이다.

또 다른 좋았던 수업 중 하나는 김현준 교수님의 '현대인의 정신건강'이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된 수업 방식으로 인해 출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학기는 가장 '과제가 많았던' 학기였다. 학생들이 수업을 완전히 시청하였는지 제대로 파악할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수업을 들어야만 작성할 수 있는 출결 과제를 내주시는 대책을 사용하셨다. 그러나 한 명의 학생이 하나의 과목만 수강하는 것이 아니기에 늘어가는 과제 양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교수님께서는 출결 과제를 내주시되 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과제를 내주셨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무리를 끼치지 않는 출결 확인 방식을 고려하신 김현준 교수님 덕분에 작년보다 현저히 늘어난 과제들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고 정답이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 안긴다는 점, 그러나 수업 내용과 관련짓는 것이 조건이었기에 학생들이 수업을 대충 들을 우려 또한 없다는 점 등에서 교수님이 선택하신 출결과제 방법은 더할 나위 없이 현명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신승훈 교수님의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이다. 이 과목에서는 'R studio'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을 학습한다. 애초에 코딩이라는 것이 입력창에 점 하나만 잘못 입력하여도 에러가 나기 때문에 수업을 수강하기 전부터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끝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이전 수강생들의 경험담이 들릴 땐 더 그랬다. 수업이 시작되고 예상했던 것만큼 어려웠지만 이 수업 또한 교수님의 탁월하신 대처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수업은 비대면으로 바뀜으로써 기존에 있던 시험 대신 수업시간마다 풀어야하는 워크시트와 개인 프로젝트가 성적 평가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하더라도 개념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하는 과제 중 오류가 생길 때가 많았고, 교수님께 이러한 오류의 원인을 바로 바로 질문할 수 없는 점이 매우 답답하였다. 그러나 '데분기 Q&A'라는 게시판이 아주 Bb에 만들어졌고, 학생들이 그곳에 질문을 게시하면 교수님이 답변을 달아주시는 방식으로 게시판이 운영되었다. 물론 대면 수업일 때보다는 답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으나 교수님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게시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이러한 방식으로 큰 어려움 없이 과제 수행을 할 수 있었다. 더불어 기말 프로젝트 기간에는 교수님이 주기적으로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며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수용하고 답해주셨다. 주제 선정부터 코드 수정, 프로그램 활용 등 모든 과정을 학생 스스로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활발하신 질문 수용에 힘입어 열심히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다. 실시간 질문 시간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질문이 더 없는지 재차 확인하시던 교수님의 적극적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처럼 수업이 비대면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수님들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난생 처음 진행된 비대면 수업이었음에도 별 탈 없이 끝마

칠 수 있었다. 이에 더불어 지금부터는 원격 수업 참여시 나만의 학습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비대면 강의는 녹화 강의의 경우 기존에 정해진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수강할 수 있다. 이는 장점이 될 수도 있으나, 제때 강의를 듣지 않고 밀리게 될 경우 나중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제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하나가 밀리고 두 개가 밀리면 추후에 감당할 수 없는 양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나는 정해진 수업 시간은 지키지 못 하더라도 정해진 수업 요일 내에는 강의를 끝까지 듣는 것을 나만의 규칙으로 삼아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강의를 제때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적의 반(半)은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녹화 강의든 실시간 강의든 강의 영상이 아주 Bb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온라인 수업은 수업 내용을 복습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강의를 다시 돌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는 이 점을 활용하여 필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공부하거나, 강의 자료를 보아도 시간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의 강의를 다시 듣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 방법은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시험을 치를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셋째, 강의를 돌려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메일을 활용하여 질문하였다. 비대면 강의의 가장 큰 단점은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의 즉각적인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수업이 끝난 직후에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이 생겨도 번거롭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교수님께 드릴 질문을 미루는 학우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미룬 질문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이럴 경우 과제 수행이나 학습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하며 질문이 생긴다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질문이라도 즉각적으로 교수님께 메일로 문의 드리는 것을 추천한다. 교수님들께서도 상황적 어려움을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이다. 더하여 교수님들께 이러한 메일은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려드림으로써 수업 피드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비가 내릴 때 그치기만을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빗속에서 어떻게 춤출 것인가를 고민할 때 풍부한 경험과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원격 강의로만 이루어졌던 2020년 1학기가 내게 준 시사점이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더불어 직장, 모임 등의 단체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온라인 소통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내 기업 롯데에서는 올해를 계기로 재택근무 및 화상 회의의 장점을 깨닫고 온라인 근무 방식을 확대함과 동시에 온라인 실무서를 발간하는 등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하려는 사업 전략을 펼쳤다고 한다. 나를 비롯한 대학생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를 ‘재난 사태’가 아닌 ‘재시작의 기회’로 인식한다면 기존과 달라진 삶 속에서도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3등

모니터 속 개념이 내 것이 되기까지

교과목명 : 국제관계입문
교 수 명 : 이창주
학 과 : 사회학과
이 름 : 김현진

활기가 넘치는 캠퍼스, 푸릇한 텔레토비 동산에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는 청춘들. 내가 지난 4년간 봐왔던 아주대학교의 3월의 모습이다. 하지만 2020년의 모습은 달랐다. 캠퍼스는 고요했고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잘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개강은 뒤로 연기되었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멈춰버렸다. 많은 학생들이 당황했고, 불안해했으며 안타까워했다. 나 역시 그랬다. 휴학과 교환학생을 거치고 1년 만에 다니는 학교이자 학교생활의 막바지였기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기들, 선후배들과 교수님들을 만날 생각에 매우 들떠있었다. 하지만 대면강의는 속절없이 미뤄졌고, 그렇게 비대면 원격강의가 시작되었다.

학기 초반에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여태 한 번도 사이버 강의를 들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역시 인터넷이나 컴퓨터 조작에 능숙치 않아 오류가 생겨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었다. 기존의 모든 룰이 온라인에 맞춰 대체되어야했고, 모두가 그 해답을 찾는 것에 여념이 없었다. 아주 기본적인 출석체크 방식부터 과제, 시험, 평가방식 모두가 바뀌었고 교수님들 마다 공지도 수업도 플랫폼도 무엇 하나 통일된 것이 없어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대면으로 치워지던 시험들은 부정행위, 교수님의 조작미숙, 공정성 결여 등의 많은 이유로 과제로 대체되었고, 몇몇 배려 없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불가능한 양의 과제를 내어 원성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최대한 학생들의 편에서 양질의 강의를 위해 노력하신 분이 계셨다. 바로 국제관계입문 수업의 이창주 교수님이다.

사실 처음 이 수업을 신청했을 때는 전공 필수과목이니 재수강만 하지말자, 라고 생각했다. 졸업 전 무조건 들어야하는 과목이었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번 학기에 끝낼 요량이었다. 첫 수업시간, 교수님은 학생들이 충분히 느끼고 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한 학기 내내 이 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갔다. 수업은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항상 10분씩 일찍 접속하셔서 강의를 준비하시고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노래를 선곡해 틀어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기존 강의 시간보다 일찍 접속하는 습관이 생겼다. 수업시간에는 수업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주는 영상물들과 교수님이 외국에서 직접 촬영한 동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의 위기를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내셨다. 국제관계 이론은 자칫 정말 딱딱한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본인의 경험과 실제예시들로 자세하게 풀어주셔서 앞으로 배울 전공의 기초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다. 교수님의 강의노트는 매 수업마다 기본적으로 100장 이상이고, 후반부에는 200장 정도의 분량을 자랑한다. 그리고 강의노트의 대부분을 활용하시면서도 1시간 15분이라는 강의시간을 칼같이 지키

신다. 처음에는 나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많은 양에 과연 이 방대한 양을 전부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한 학기동안 공부해 본 결과, 가능하다. 수업을 듣지 않고 강의노트의 구성만 본다면 모든 개념들의 뒤죽박죽 섞여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강의노트는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있다. 강의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을 앞부분을 잊기 마련인데, 교수님께서는 누적적으로 강의노트를 구성하여 새로운 개념과 이전에 학습한 개념들을 연결하여 학생들의 생각회로를 연결해주신다. 수업의 앞부분에서는 이전 시간에 배운 중요한 개념이나 흐름을 정리해 복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덕분에 강의만 충실하게 들어도 저절로 복습이 되고, 개념들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큰 마인드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동시에 국제관계 전문가인 교수로서, 때로는 먼저 실무에 나아간 선배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수업이 끝나면 수업시간에 궁금했던 점이나 문의사항을 묻는 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어서 수업이 끝나도 남아서 다른 학생들이 궁금했던 점이나 나의 질문을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수업의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짜임새 있었다. 학기 초반에는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용어부터 정리한다. 얼핏 보면 구조, 힘, 시스템과 같이 누구나 다 아는 단어 같지만 이 단어들이 이론을 설명하는데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작동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개념부터 정리해야하는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정리해놓은 단어들은 수업이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빛을 발한다. 학기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국제관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틀이 되는 세 가지 이론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에 대해서 배운다. 이 세 가지 이론들은 비슷하거나 달라서 매우 헷갈리는데, 교수님께서는 각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각 이론별로 대표적인 학자들의 생각을 정리해 주셔서 이론의 뿌리부터 탄탄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이론이 끝날 때마다 각 이론에서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과 국가, NGO, UN 등 인정되는 행위자의 범위 등 각 이론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며 설명해주셨다.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현대에 등장한 각종 국제기관과 국가들의 국제관계 전략, 세력의 흐름, 강대국의 조건 등 다양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다. 세 가지 이론들이 결국 융합되고 발전되어 현대까지 흘러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배운 이론들이 개념이었다면, 후반부에는 현재의 국제관계나 사드배치, 미-중, 한-일, 홍콩 문제나 공공외교로서의 k-pop, 코로나 사태 등 다양한 관점과 방면에서 국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다. 또한 중간 중간 지루하지 않도록 유튜브에서 국제 관련 뉴스나 기사, 최신 이슈들을 다뤄주셔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며 추상적인 국제관계가 보다 피부로 와닿을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 19가 국제관계에 미친 영향이 인상 깊었는데, 한국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스마트 파워가 올라가고, 그를 둘러싼 각 국의 경쟁과 체인, 관계와 외교정책들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국제변화도 상상할 수 있었다.

평가방법은 과제, 중간대체 과제, 기말고사로 이루어져 있다. 과제는 수업시간에 배운 개념을 작성하는 출석과제, 4회에 걸친 다큐멘터리 감상문, 중간고사 대체과제, 영화감상문 등 다른 수업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강의가 명강의인 이유는, 과제가 수업시간에 배운 모든 개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응용해야하기 때문에 충실히 수업을 따라가야 했다. 배운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고,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통해 실제 국제관계의 예시와 그 속에 나타나는 관련 개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영화 다키스트 아워를 보고 제2차 세계대전을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그 속에 담긴 각 국가들의 대치상황과 구조, 국가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전쟁의 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과 현재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비교해서 바라보며 어떤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중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교수님이 첫 수업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고 체득하게 된 순간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의노트 속 글자로 존재하던 이론들은 완전히 소화되어 내 것이 되었다. 게다가 과제를 제출한 후에는 일일이 모든 학생들의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간단한 코멘트가 아니라 잘한 점과 아쉬운 점, 더 발전할 수 있는 점들을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어서 이를 반영하여 다시 과제물을 체크하고 생각을 발전시키며 실제로 과제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감동했던 점은 바로 학생에 대한 배려였다. 학기 초, 수업진행을 위해 강의 플랫폼 결정해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최상의 강의를 들려주시기 위해 장비 구입은 물론이고 수업을 위한 화상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실험하시면서 비교하셨고,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다. 인터넷 상황이 좋지 못해 접속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매 수업 5분전에는 직접 문자를 보내셔서 접속이 늦어지지 않도록 챙기셨고, 공지사항과 수업관련 이메일도 놓치지 않도록 각각 이메일과 문자로 알려주셨다. 무엇보다도 모든 결정사항을 독단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방법과 의견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셔서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셨다. 중간 중간 질문을 던지시며 강의 내내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채팅 하나하나에 답변해주시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진행하셨다. 덕분에 수업 내내 지루하지 않고 매우 활기차게 들을 수 있었다. 항상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의견이라도 존중하여 바로 피드백을 반영해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때때로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나 영화, 다큐멘터리 같은 작품들을 추천해주셨는데, 그저 딱딱하기만 한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재밌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작품들이라 강요나 의무 없이도 수업 관련 작품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수업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학습이 연결되니 이해가 잘 될 수밖에 없었고, 수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 어렵고 복잡한 내용에도 지치지 않고 신나게 공부할 수 있었다.

교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점수를 많이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리고 배운 것을 얼마나 잊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 인 것 같습니다.” 논어에는 학문이 배우고 묻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 내가 생각하는 학문이란 지식이 머릿속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지식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현실로 이어나가야 한다. 배우고 묻는 것의 대상이 비단 선생에게 그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 내가 이창주 교수님께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자세였다. 이것이 곧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자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은 곧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의 경험과 사례에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의 연속이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서도 학생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시고, 진정한 학문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매 수업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큰 감사를 느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수님을 직접 대면할 날을 기다려 본다.

입선

베짱이에서 개미로!

교과목명 : 화학/수학/아주희망
교 수 명 : 장혜영/정명화/정명철
학 과 : 산업공학과
이 름 : 강보경

이번 년도 1학기에 실시한 실시간 강의, 녹화 강의, 화상 강의 등을 통한 비대면 수업을 통해 깨달은 점들이 여럿 있다.

예를 들어, 장혜영 교수님의 화학 수업은 주 2회 수업이 원칙이지만 교수님께서는 주 2회 분량의 동영상 녹화 강의를 첫째 날에 업로드 하시고,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실시간 강의를 1회 진행하셨다. 처음에는 수업의 분량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사전에 업로드 해주신 문제 풀이 참여자를 실시간 강의 1주일 전에 메일로 신청 받고, 문제 풀이를 사전에 제출하고 실시간 강의 시간에 마이크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발적으로 문제 풀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리 업로드 된 동영상 강의를 밀리지 않고 시청해야 했으며, 문제 풀이 제출 기간 역시 까먹지 않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태해지기 쉬운 비대면 강의 기간 동안 가장 효율적인 수업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역시 비대면으로 치러지면서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실력을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시간 제한 문제 풀이라는 과제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시면서 비대면 강의라고 해서 강의를 몰아서 듣는 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주셨다. 덕분에 교수님을 믿고 수업 및 과제, 시험에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정명화 교수님의 수학 수업 역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수업 역시 주 2회 수업이 원칙이지만 교수님께서는 주 2회 분량의 동영상 녹화 강의를 첫째 날에 업로드 하시고,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기 위해 주말에 실시간 강의를 1회 진행하셨다.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 상 설명만으로는 수업의 내용을 100%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기에 교수님께서는 주말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학생들에게 투자하셨던 점이 아직까지도 인상 깊게 느껴진다. 실시간 강의는 희망자만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채팅을 통해 질문을 남기면 교수님께서 칼투라를 통해 설명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학습활동 과제의 대부분이 강의에서 나온 예제 문제의 틀이기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고, 기본 실력에 의해 과제 점수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느낌을 받아 탄력을 받아 실시간 강의 및 녹화 강의에 있어 더욱 열심히 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명철 교수님의 아주희망 수업은 우리 학과 전체가 참여하는 수업이기에 수업 방식이 실시간 화상 강의로 결정 되었을 때 서버 문제로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칼투라를 통한 화상 강의가 아닌 줌을 통한 화상 강의를 실시함으로 90여명

의 많은 인원이 들어와도 서버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매 주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직접 강사님을 초청하여 비대면 수업이기에 만나 뵌 적 없는 선배의 현실적인 경험담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학교에 입학한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1학년 학생들이 가장 꿈 꿔온 새내기 라이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같은 과 2,3,4 학년 선배들을 통해 동아리, 소학회, 학교 시설,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의 입장에서 전해 들을 수 있었고, 편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기에 아직 어색하고 낯선 대학 생활의 첫 발자국을 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학습 활동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1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업이자 실질적인 도움을 가장 많이 준 수업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처음 비대면 수업 공고가 났을 때 가장 걱정되었던 점은 '나태함'이었다. 대학 입학 전부터 나 스스로 부지런한 생활을 하며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였지만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습을 누군가에 의해 감시받지 않고 나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는 한 학기를 보람차게 보내기 위한 나만의 계획을 세웠다. 가장 걱정되었던 기상 시간은 대면 수업처럼 8시 30분으로 결정하였고 A교시 수업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상 시간은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많은 나의 친구들의 경우 비대면 수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나태해지다 보니까 강의를 밀리게 되고 또 그 진도를 메꾸려다 보니까 시험기간에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이었다. 친구들의 경험을 듣고 나를 비교해보니 나는 강의를 밀리지 않기 위해 일주일간 스케줄 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다. 나의 스케줄은 내가 제일 잘 알기에 약속이 없는 날에는 실험 과목 보고서 작성과 같은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과제를 할 것을 계획하였고, 동영상 녹화 강의 역시 들어야 할 날을 전 후로 3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강의를 밀리지 않는다고 해서 진도를 100% 완벽하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다. 물리학 1의 경우 고등과정에서 미처 배우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며, 수업 자체도 난이도 있게 흘러갔기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라고 생각이 든다. 교수님의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며 거의 모든 부분을 나만의 필기법으로 새롭게 필기 하였으며, 문제 풀이 중 모르는 것은 물리학 튜터에게 질문을 하거나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실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친구들에게 여러 번 과외를 받으며 한 학기 동안 포기하지 않으며 결국 좋은 학점으로 그 성과를 보답 받았다고 생각이 든다.

수학 역시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여러 새로운 개념들로 인해 반복적인 복습이 필수였고, 전 범위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을 까먹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말고사 시험기간을 3주로 잡고 3주 전부터 처음부터 모든 강의를 다시 들으며 나만의 필기노트를 작성하였다. 필기 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핵심 개념, 예제 문제, 공식, 처음 알게 된 그래프 모형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방대한 범위이다 보니 아무리 필기 노트를 작성하고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머릿속에 깊게 박히지 않았기에 칼큘러스 책의 수많은 예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이해보며 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책의 문제들을 풀면서 알게 되는 또 다른 새로운 공식과 그래프 개형을 계속해서 필기 노트에 정리하면서 필기 노트는 단순히 교수님의 강의에 관한 것뿐만이 아닌 점점 나만의 맞춤형 필기 노트로 재탄생 하였다. 실제로 기말고사 1주 전에 많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할 때에 나는 차분히 내 필기노트를 읽어보며 개념들을 머릿속에 되새길 수 있었고, 내 필기 노

트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친구들의 학업에도 일말의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상태를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에 수학이라는 학문에 있어 한 학기 동안 보다 단단한 학습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

실험 과목 역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직접 실험하며 느끼지 못 하게 되어 아쉬움이 굉장히 컸다. 조교님의 실험을 실시간 강의로 보며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는데 실험을 관찰하며 발생한 여러 의문점에 대해 조교님께 메일로 질문하며 그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다. 궁금한 건 바로 해결해야 하는 성격이지만 메일이 빠르게 답장이 오지 못하여 의문점을 바로바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치지 않고 구글링을 통해 실험의 원리를 알아보기도 하며 비슷한 실험 과정을 찾아보며 항상 그런 식으로 답을 해결하곤 했다. 실험 과목이 가장 시간을 오래 들인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실험의 대부분의 과정을 이해하고자 다분히 노력하였다. 영상을 몇 번씩 반복해서 보기도 하였으며,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조교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다.

위의 글을 쓰며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를 채찍질하며 바쁘게 달려왔다고 자책도 하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학생으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대부분이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지면서 등록금 반환, 부정행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 비대면 강의 기간 동안 스스로를 어떻게 단련시키는 지에 따라 성과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이 든다. 사회에서는 비대면 강의를 통해 많은 논란과 억측들이 발생하지만 나는 학생 신분으로서 앞으로 2학기에 이뤄질 비대면 강의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학업에 정진 할 것이다.

입선

퀴즈의 늪

교과목명 : 화학
교 수 명 : 윤성화
학 과 :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이 름 : 강성훈

올해 2월쯤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안에서 돌다가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평소와 같이 열심히 놀았다. 그리고 2월 중순쯤 우한 폐렴, 즉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해져 곳곳에서 대비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정되어 있었던 미리 배움터, 새내기 배움터가 취소되었고, 고등학교 졸업식은 물론 대학교 입학식까지 취소되었다. 또한 개강도 연기되어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게 되었다. 나로서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힘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다. 노는 것도 이제 질려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후 모든 과목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교수님들이 영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셨는데,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이 화학 윤성화 교수님이었다. 화면에 얼굴이 꽉 차게 하고 수업 방식을 영상으로 설명하셨는데, 비대면 수업이 처음이라 미숙하시다는 것을 다 알 것 같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힘들게 들었던 수업이 화학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자동 수강 신청되어 듣게 된 화학 윤성화 교수님은 강의평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교수님이셨다. 강의평만 놓고 보면 머리가 좋으시고 강의력은 엄청 좋지만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이 처음에 수업을 소개하실 때도 화학은 지식이 축적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수업 방식은 100% 실시간 강의 수업이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매번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강의 노트를 PDF 파일로 올려 주셔서 나는 아이패드 Goodnotes에 저장해 필기하면서 공부했다. 그렇게 필기를 해두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복습할 때 유용했으며, 나중에 퀴즈를 풀 때 참고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교수님은 매 장이 끝날 때마다 손과제를 내주시고 그 다음 시간까지 A4용지에 풀어서 조교님께 메일로 제출하는 것을 과제로 내주셨다. 손과제는 20문제 정도 되었는데, 장마다 뒤쪽에 있는 연습문제 중 20문제를 뽑아서 풀어오라고 하셨다. 연습문제는 의외로 생각할 것도 많고 개념에 관한 문제도 많이 있어서 풀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귀찮기도 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대학 커뮤니티에 다른 교수님들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100% 실시간 강의 수업을 하는 화학 교수님은 흔치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교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손과제와 퀴즈도 내주셔서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힘들어서 이렇게 화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하고도 생

각하기도 했다. 손과제는 시간을 투자하면 끝낼 수 있다. 하지만 퀴즈는 시간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매 시간 끝날 때쯤 교수님께서 랜덤으로 퀴즈를 보자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시간, 수업 끝나기 10분 전쯤이 제일 긴장되고 떨렸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퀴즈를 보자고 하실지 아닐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배울 것을 예습하고 수업에 들어가야 불안감이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는 줌으로 질문할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 주시고 없어서 시간이 남으면 퀴즈를 보고, 있다면 질문에 답해주시고 퀴즈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었다. 나는 50명이 넘는 줌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아 항상 퀴즈가 다 끝나고 질문을 하곤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에서인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의 매 시간마다 그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퀴즈를 봤고, 그 시간은 정말 1학기 비대면 수업 중에서 가장 떨리는 시간이었다. 퀴즈 문제 수는 장마다 달랐다. 처음에는 OX문제 10개로 시작했는데, 채점 방식이 맞으면 1점, 안 쓰면 0점, 틀리면 -1점이어서 퀴즈 답을 쓸 때 아주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그리고 나중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이 있으면 주관식 문제도 추가되어 조교님께 메일을 쓸 때 자판을 쉴 새 없이 두들겨야 했다. 화학 실시간 강의는 화요일 금요일 12시에 있었는데, 금요일에는 화학 강의밖에 들을 것이 없어서 금요일에 화학 강의가 끝나서 퀴즈를 보고 나면 퀴즈를 잘 보냐 못 보냐에 따라 그 주말을 어떤 기분으로 보내는지가 결정되었다. 물론 퀴즈는 힘들고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퀴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손과제로 내주신 연습문제 말고도 많은 연습문제를 풀었고, 교수님이 질문을 잘 받아주셔서 메일로 종종 질문을 하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이번 1학기 화학 수업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공부 방식은 질문이었다. 수업 시간이 끝날 때마다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서 질문을 하게 해주셨는데, 나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수님께 질문을 하곤 했다. 한번은 이온화에너지 개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을 한 것을 받아주셔서 다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화학은 중간고사를 볼 때 서버가 터져서 중간고사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기말고사로 거의 모든 성적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의 매 시간마다 퀴즈를 봐 왔던 터라 시험에 대한 부담을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19, 2018, 2017년 기출문제를 구해서 풀어보고 친구와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시험기간은 엄청 빨리 지나가고, 거의 모든 날을 밤새면서 지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화학시험을 볼 때 만큼은 일찍 잠들었다. 결과적으로 시험을 그렇게 잘 본 편은 아니었지만 시험이 끝난 후 지금까지 공부했던 나를 되돌아보며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퀴즈는 모든 학생에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주는 수업 방식이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잘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데 긍정적인 면으로 바꾼다면 공부하는 학생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퀴즈를 본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퀴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1학기 화학을 가르쳐주셨던 윤성화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비록 대면 시험에 뵙지는 못하였지만 교수님 덕분에 앞으로 화학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겁먹지 않고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화학은 'Accumulative study'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공부할 것이다.

입선

전화위복(轉禍爲福), 나로부터의 변화

교과목명 : 일본입문 / 일본어1
교 수 명 : 박성빈 / 최경옥
학 과 : 국어국문학과
이 름 : 고재원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세계 각지에서 그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붕괴시켰다. 바이러스의 여파로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변화의 일환으로 전국의 대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 시스템을 채택하여 운영하였다. 이 새로운 변화가 좋든 싫든 이 시스템에 적응하여 2020년 새 학기를 보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다소 색다른 경험과 이로 인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2019년 2학기에 아르바이트와 각종 자격증, 외국어 공부를 위해 휴학을 신청한 나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안고 복학 신청 창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번 학기 성적으로 이를 만회해 보겠다는 각오를 다진 채 개강만을 기다리던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개강을 연기하고 사이버 강의 방식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연달아 접하여 학기 시작 전부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이번 학기는 복수전공으로 채택한 '일본지역연구전공' 과목을 본격적으로 수강하기 시작한 학기였기에 부담감은 더 가중되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시작한 사이버 강의는 의외로 상당히 수월했으며, 오히려 대면 강의보다도 효과적인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등 생각 이상으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2020년 1학기에 수강한 여섯 가지 과목 모두 포함되는 공통적인 사이버 강의의 최대 장점은 편의성에 있었다.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다는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수업'의 형태는 대면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기에 충분했다. 정말 급한 용무가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출석 문제와 관계없이 당일에 수업을 듣지 못한 부작용은 다음 수업 내용을 이해할 때 크게 드러났었다. 하루의 공백으로 인해 수업의 흐름이 끊겨 제대로 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강의는 몸이 아파 외출이 불편하거나 급박한 일이 생겨 먼 곳에 떠나 있어야 할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스트리밍 기기가 있다면 간편하게 들을 수 있어 수업 내용 이해에 있어 차질이 생기지 않았으며, 추가 학습에서도 불편함이 없었다. 실제로 5월 중 몸살에 걸려 심하게 앓던 중에도 노트북을 통해 실시간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고 이후 건강을 회복하여 복습을 통해 진도를 따라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었다. 그만큼 사이버 강의는 의외로 학생에 대한 배려가 수반된 편의성이 증대된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누군가가 "이번 학기 사이버 강의의 장점을 가장 극대화시켜 운영한 수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단연 "박성빈 교수님의 '일본입문' 수업"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만큼 박성빈 교수님의 수업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된 수업이었다. '일본입문'은 일본의 사회,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분야를 종합적으로 배우는 수업

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분야는 정치와 경제였다. 분야의 특성상 통계 자료나 설문조사 결과, 경제 변동 그래프 등 수업 자료가 다수 사용되었는데, 사이버 강의 화면에 자료를 띄워 주시고 판서 또한 정확히 보이게 해 주셔서 모니터의 큰 화면으로 한눈에 수업 자료를 파악하여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대면 강의는 강의실에서 다수의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 앉아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보니 앞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면 강의 화면이 잘 보이지 않고 판서 내용 또한 흐릿하게 보여 원활한 수업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상술한 수업 방식으로 인해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했던 건 확실히 새롭고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물론 사이버 강의에도 단점은 존재했다. 만일 동영상 강의 방식이라면 교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질문이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 상당히 불편했다. ‘일본입문’은 해당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2주에 한 번씩 피드백 및 질의응답을 위한 실시간 수업 시간을 편성했다. 때문에 당일 정리해둔 질문들을 통해 궁금한 점을 보완하여 학습할 수 있었고 수업 중 불편했던 점을 건의하여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는 보다 질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시험 때도 웹캠으로 학생증과 얼굴을 확인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시험을 치르고 좋은 점수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결국 동영상 강의를 통해 다수의 반복 수강을 통한 학습이 가능해 질 좋은 공부가 가능했다는 점과 피드백 및 질문을 통한 즉각적인 보완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일본입문’은 가장 만족스러운 수업이었다고 단언한다.

상술한 장점들을 포함하여 불편함 없는 수업 환경을 구축한 최경옥 교수님의 ‘일본어 1’은 ‘일본입문’ 못지않은 체계적인 수업이었다. 타 강의들과 다른 이 수업만의 특이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있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공지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실시간 질문들을 받아 일일이,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해주어 불편함이 없도록 한 최경옥 교수님의 수업 방식은 낯선 외국어를 배우는 데에 드는 거부감을 상당 부분 완화해주었다. 또한 기본적인 수업 형태로 동영상 강의를 채택하여 반복 학습의 여지를 마련해주어 자연스러운 일본어 체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해 주었다. 대면 수업은 특유의 일회성으로 인해 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발음’을 정확히 습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때문에 따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거나 번역기 시스템을 통해 발음을 정리하여 암기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 발음을 익혀야 하는데, 이번 학기엔 동영상 강의로 일본어 전문가인 교수님의 정확한 발음을 반복 학습하여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일본어 발음 체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만일 사이버 강의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교수님의 배려를 알 수 없었다는 것과, 학습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쩌면 비대면 강의는 위기에서 피어난 또 다른 기회였다는 생각이 든다.

휴학으로 인해 학교 공부를 상당 기간 손을 놓고 있던 내가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는 꽤나 긴 시간이 걸렸다. 주중에는 때맞춰 강의를 듣고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주말에는 복습을 통해 한 주를 정비하여 다음 주간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에 이러한 생활 패턴이 익어가고 공부 습관이 배기 시작하면서, 교수님들이 보다 체계적인 수업 방식을 고려하여 강의를 이끌어나가듯이 나 또한 사이버 강의에 맞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고안하여 학습에 열중하였다.

사이버 강의의 또 다른 장점은 웹캠에 있었다. 대면 강의에서는 보기 힘든 먼 위치의 교

수님이 친밀감이 느껴질 정도로 가깝게 보여 교수님이 강의 중간 중간마다 취하시는 표정이나 몸짓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대체 왜 장점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이번 학기 학습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장점이었다. 나만의 공부법인 '몸짓/표정 공부법'은 바로 여기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와 문화'를 강의하신 박은영 교수님은 상당히 표현이 풍부하신 편이다.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손을 크게 벌리시거나 특이한 손짓을 하시면서 이해에 도움을 주시려 한다. 덕분에 나는 시험 기간, 해당 과목을 공부할 때 까지도 교수님의 몸짓을 잊을 수 없었다. 여기서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 수업 내용마다 다르게 취했던 교수님의 몸짓이나 기억에 남는 말들, 혹은 표정들을 연상하여 해당 내용을 기억해보려 했고, 결국 '몸짓/표정 공부법'이 탄생했다. 아쉽게도 시험은 치르지 않고 보고서로 대체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여러 가지 지식들은 장기 기억으로 뇌리에 남아있다. 결국 대면 수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교수님의 표현 방식들이 학습에 가장 큰 기여를 해 준 것이다.

표현이 풍부하진 않으나 보다 상세히 내용을 말로 풀어서 전달하는 수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영상 100% 강의를 진행하는 수업이 많아 반복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했지만, 실시간 강의를 동반하는 수업이라면 반복 학습만으로는 완전한 내용 숙지가 거의 불가능했다. '일본근현대사' 수업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했다. 김종식 교수님이 진행하신 이 수업은 일주일 중 하루는 실시간 강의, 하루는 동영상 강의로 총 2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때문에 반복 학습만으로는 실시간 강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수 없이 이에 맞춘 새로우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구상하였고, 이 때 탄생한 것이 '2번 복습'이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동영상 강의 직후 필기한 것을 3회독하여 내용을 숙지한 후, 실시간 강의 당일 아침에 다시 한 번 3회독하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로써 역사 분야에 필수적인 암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여 수업 진도를 충실히 따라갈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변화한 수업 방식에 맞춰 변화한 공부법을 따라 학습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성적 공고일에 느꼈던 큰 성취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올해의 가장 큰 기쁨으로 남아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 위기가 바뀌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어쩌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지칭하는 가장 좋은 말이 아닌가 싶다.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가 선택한 사이버 강의 방식은, 오히려 다수의 학생들에게 기회로 다가왔다. 특히나 나에게는 그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학년 1학기 신입생 시절, 대학 공부의 감도 잡지 못하고 방탕히 지내다 뒤늦게 정신을 차려 2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했지만 성적은 쉽사리 오르지 않았다. 오르지 않는 성적과 암기밖에 모르는 공부 방법에 지쳐 학업에 대한 흥미는 나날이 식어갔다. 그러나 이번 2020년 1학기에서 비대면 강의라는 초유의 강의 방식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고안해내려 애쓰고 모든 수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려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내면에 '공부의 즐거움'이라는 싹을 틔울 수 있었다. 공자의 『논어』 1장 1절에 등장하는 말이 있다. "子曰學而時習之不亦說乎", 번역하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이다. 일전에는 이 말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내게 있어 배움과 기쁨은 상생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은 의미를 알 것 같다.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데 있어 성취감이 드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강의 시스템의 변화는 나 자신의 내면의 변화로 귀

결된 것이다.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며, 학교 또한 안전을 위해 2학기에도 비대면 원칙을 고수한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초에 느꼈던 불안감은 이미 성취감이라는 싹으로 변모했다. 이 싹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성장하길 바라며, 이만 끝을 맺으려 한다.

입선

비대면, 위기를 기회로

교과목명 : 기업가 정신과 경영
교 수 명 : 박철형
학　　과 : 경영학과
이　　름 : 김나연

코로나로 인해 2020-1학기 수업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교수님, 학생 모두 이런 상황을 처음 겪었기에 온라인 수업이라는 방식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효율적이고 매끄러운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제가 들었던 수업 중 박철형 교수님의 '기업가 정신과 경영' 수업은 이러한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더 나아가 대면 수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장점들이 돋보였던 최고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비대면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 이 수업이 저에게 왜 최고의 수업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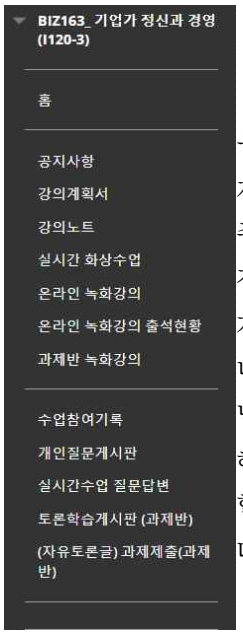
1. 교수님과 학생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교수님의 발 빠른 대처 방식

먼저, 교수님은 항상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묵살시키지 않고 적절히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첫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했을 때, 과목 특성상 소그룹 토론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지만, 비대면인지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후 몇몇 학생들이 교수님께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교수님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험반, 과제반 2가지 방식 중 1가지 방식을 선택하도록 익명투표를 시행하셨습니다. 투표 결과 시험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지만, 한 학생이 교수님께 수업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죠. 그러자 교수님께선 그 학생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학생들이 시험반/과제반을 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이 불평불만 없이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었죠. 따라서 교수님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존의 교실 소그룹 토론 활동을 비대면 형식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셨습니다.

2. 아주Bb의 다양한 기능들 활용

또한, 교수님은 아주Bb의 여러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존의 원활한 토론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셨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다시피, 강의노트(수업보충자료, 다양한 논문과 경영사례), 수업참여기록, 개인질문게시판, 토론학습게시판 등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였습니다. 교수님께선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작성한 수업참여기록을 일일이 피드백하며 자신의 의견과 함께 공지사항으로 모두에게 공유하셨습니다. 또한, 토론학습게시판의 토론 글과 댓글을 함께 읽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없다는 비대면의 단점을 아주Bb시스템의 장점으로 승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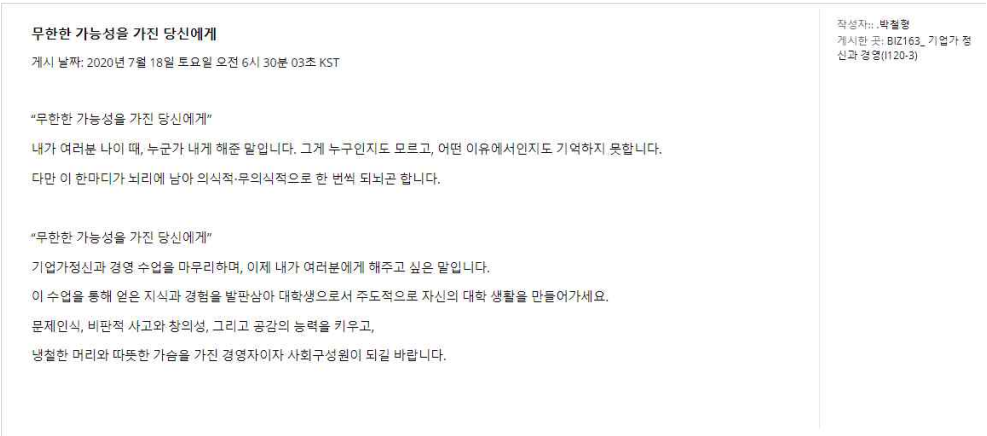
켰습니다. 설령 대면 수업에서 토론 활동을 한다고 해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주Bb처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없기 때문이죠.



3. 교수님의 명확한 학습 방향 제시 및 조언

다른 과목과는 달리, 교수님께선 첫 시간에 "우리가 대학에 온 이유"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 조언하셨습니다. 또한,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기주도학습', "혁신", "비판적인 사고"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교수님은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 학습방법을 상기시키며 학생들에게 학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은 수업내용을 배우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교수님은 수업내용 이전에 효율적인 학습방법 제시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학생들이 효과적인 학습과 앞으로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조언 덕분에 이 과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죠.

4.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당신에게

게시 날짜: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03초 KST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당신에게"
내가 여러분 나이 때, 누군가 내게 해준 말입니다.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한마디가 뇌리에 남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한 번씩 되뇌곤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당신에게"
기업가정신과 경영 수업을 마무리하며,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발판삼아 대학생으로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대학 생활을 만들어가세요.
문제인식,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그리고 공감의 능력을 키우고,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경영자이자 사회구성원이 되길 바랍니다.

작성자:: .박철형
게시한 곳: BIZ163_ 기업가 정신과 경영(I120-3)

이 모든 것이 학생들에 대한 교수님의 애정과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깨달음을 전달하려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교수님이 오직 자신의 편의를 위하셨더라면, 녹화 강의로 대체했거나 과제에 대한 세심한 피드백과 총 82개라는 막대한 양의 공지사항을 작성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한, 교수님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모든 교과서가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자신의 의견 또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비판을 환영한다는 open-mind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금기시하던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비판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던 교수님이셨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과 동기부여 되는 영상, 말씀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였던 훌륭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철형 교수님

의 ‘기업가 정신과 경영’ 수업은 저에게 길이 기억될만한 최고의 수업이었습니다.

1학기	기업가 정신과 경영	전필	3	A+

다음으로, 이 과목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과 A+맞는 노하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에선 앞서 말한 것처럼 과제반과 시험반으로 나뉩니다. 과제반은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로 평가되었으며, 시험반은 오직 상대평가로 평가되었습니다. 저는 시험반을 선택하였으며 40명 중 5등 이내인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A+를 받을 수 있었는지 4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수님이 제시하신 수업계획서와 학습 가이드라인 10번 이상 정독하기.

수많은 학생이 간과하는 것이 수업계획서와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습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은 모든 과목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학습하기에 앞서 교수님께서 전달하려는 내용과 수업방식, 평가방식 등 큰 틀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숙지되지 않았다면 학습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을 놓쳐 감점 받을 수 있겠죠?^^

2. 충실하게 예습하기

교수님께서 재차 강조하시는 것이 “예습”하기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선 반드시 예습이 필요하죠. 강의를 듣기 전 교과서를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체크하며, 호기심이나 의문점이 있다면 스스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은 미리 인터넷에서 자료나 논문들을 참고하면서 심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교과서에 적힌 내용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교과서의 관점이 아닌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3. 수업을 들으면서 모르는 내용 채우기&필기 전략

예습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이 드는 점을 수업을 들으면서 보완합니다. 만약 수업을 들은 후에도 의문이 가는 내용이 있다면, 질문 게시판에 작성하여 실시간 수업에서 교수님께 질문하세요. 또한,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모든 예시, 영상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필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예시들을 교과서 이론에 적용하면서 정리하려고 해보세요.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 중 아주 사소한 예시들이라도 시험에 이론응용문제로 나옵니다.

4. (중요) 모든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기

제가 A+를 맞을 수 있었던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실시간 수업 참여’였습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시험반은 ‘실시간 수업 참여’가 선택이었지만, 실시간 질문/답변을 한 학생에 한하여 1회당 0.5~1점을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즉, 모든 실시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총 가산점 5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점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시험문제 2~4문제는 맞히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속해있던 반에서는 시

험반 40명중 2-3명만이 실시간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꾸준히 실시간 수업을 모두 참여했던 학생은 저 포함 2명이었죠. 저희 둘은 이미 5점을 따놓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유리한 가산점을 얻는다는 측면에서도 실시간 수업 참여가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주 있을 실시간 수업을 참여하기 위해 강의를 밀리지 않고 제시간에 꼬박꼬박 들어야 했으며, 실시간 질문답변을 하려면 철저한 예습과 자료검색 및 논문 참고와 같은 자기주도학습을 해야 했으므로 겉핥기식 공부가 아닌, 심화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이지만, 이 기본적인 4가지를 충실히 한다면 A+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입선

학습과 응용

교과목명 : 성격심리학
교 수 명 : 정교영
학 과 : 행정학과
이 름 : 김민정

이번 학기는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초반의 우려와는 달리 성격심리학은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업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수업 참여 경험이 비대면임에도 원활한 학습이 가능함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성격심리학은 기존에 수요일 8.5교시부터 10.5교시까지 진행되는 수업이었다. 이 수업시간을 비대면 수업에서는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강의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는데 수업의 이론은 동영상 강의로, 동영상 강의에서 배웠던 이론의 응용을 기반으로 한 토의는 실시간 강의로 진행하였다. 이 수업방식은 학습한 내용을 습득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며 본 과목 강의계획서의 수업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성격심리학은 과목명에서 알 수 있듯 성격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를 배우는 과목이다. 처음에는 이 과목이 성격을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게 하여 추후 자신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역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수강신청을 하였다.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는 것까지가 본 수업에서 기대한 것이었고 이론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분석하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수업을 듣고 난 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물론 이 중 일부는 수업의 과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지만 막상 수업을 듣고 나니 생각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적용을 수업에서 할 수 있었고 본 과목을 수강하고자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비대면 수업임에도 앞서 언급한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강의의 적절한 조화와 매주 제시되었던 과제를 통해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론을 학습하는 것은 실시간 강의보다 동영상 강의가 학습에 더 용이했다. 녹화된 것이기에 교수님은 큰 변수 없이 학습할 내용을 원활히 전달할 수 있었고 학생은 동영상 강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충분한 필기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면강의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교수님의 강의 속도에 맞춰 필기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강의내용을 상세히 다 적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동영상 강의는 속도를 천천히 할 수 있어 필기시간이 넉넉하였다. 또 간혹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바로 다시 들을 수 있는 점이 좋았다. 실시간 강의 역시 해당 강의가 끝나고 나서 실시간 강의 녹화본이 올라와서 헷갈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올라오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헷갈렸던 부분을 바로 다시 듣기는 어려웠다. 반면에 녹화된 동영상 강의는 이해가 안 되는 즉시 다시 강의를 돌려볼 수 있었는데 그 점에서 학습에 더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비대면 강의는 생생하게 강의를 들을 수 없어서 현장감이 떨어지고 그것이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학습에 불리하게 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는 적절한 과제를 학생에

게 제시하여 보완해야할 문제인데 본 과목의 과제는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주면서도 강의 계획서에 제시된 수업목표인 '성격에 관한 심리학 지식과 이론을 활용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이 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과제는 대체로 그 주에 학습한 이론을 적용하여 스스로의 성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과제에서는 행동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왜 스스로가 외향 혹은 내향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분석하도록 하였고 프로이드 이론을 바탕으로 원초아, 자아, 초자아가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이런 과제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수업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찾아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었다. 굳이 머리로 외우려 하지 않더라도 과제 수행을 위해 강의 자료와 수업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한 주에 배운 내용을 머리에 학습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집중력 감소로 인해 오는 학습 저하를 충분히 보완해주었다. 배운 내용을 다시 보고 응용해야하는 과제가 강의 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다. 또 이런 과제는 학습한 내용을 통해 스스로의 성격을 분석하도록 해주었다. 이는 성격분석을 이론별로 할 수 있게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론 중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성격을 분석해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어, 기존에 스스로의 몫이라 생각되었던 학습한 내용의 응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었다. 수업에서는 이론을 통한 분석 과제 외에도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중에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과제도 있었고 공식 성격 검사를 직접 해보는 과제도 있었다. 성격강점검사는 학습한 내용을 통해 스스로 분석하는 방식 외에도 공식 성격검사를 활용하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처럼 다양한 과제들이 매주 제시되어 수업 내용의 이해를 도왔고 이것이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해주었다.

실시간 강의 역시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해주었는데 zoom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이에 활용되었다. 실시간 강의는 주로 조별 토의로 이루어졌다. 토의는 지난주에 제출했던 과제에 대해 자신이 답한 내용을 조원들끼리 서로 나누는 것과 교수님이 실시간 수업에서 제시한 다른 질문들에 대해 각자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실시간 수업에서 제시된 질문도 지난주 동영상 강의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으로 과제에서 제시된 질문과 유사한 형식이었다. 처음에는 비대면이라 조별 토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별로 회의 방을 만들 수 있어, 조원들끼리 토의하는 것이 가능했다. 토의는 실제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을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또 과제 내용에 대해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활동은 같은 내용을 배웠음에도 어떤 식으로 다르게 성격을 분석할 수 있는지, 다른 학우들은 학습한 내용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과제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는 '성격분석을 통한 타인 이해'라는 강의 목표를 충족시켜주기도 하였다.

조별 토의가 끝나면 조장은 토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 회의 방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교수님께서 각 조의 발표에 대해 의견을 덧붙여주셔서 요약 및 보충을 해주셨다. 이 과정을 통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수업 방식은 처음에 동영상 이론 강의를 들었을 때, 개인 과제를 했을 때, 조별 토의를 할 때, 이렇게 3번에 걸쳐 지난주에 학습한 것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전체적인 수업의 구성과 과제 내용이 학습 내용의 응용과 이해, 그리고 습득을 돕는 방식이었기에 비대면 수업의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한데다가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어

해당 강의의 수업 방법이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하였다고 생각했다.

이 수업에서의 평가는 출석, 중간 대체 과제, 기말 대체 과제, 각 주마다 나가는 과제로 이루어졌다. 그 중 중간 과제는 여태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성격탐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성격탐구의 목적, 수집한 자료에 대한 요약, 자료의 통합, 분석한 성격에서 더 발휘하고 싶은 강점과 개선점 찾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 세우기, 소감 및 다짐을 기술해야 했다. 해당 과제는 학기 중간까지 학습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어서 여태까지 학습했던 것을 종합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과제는 학습 내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성격을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격상 장점과 개선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였다. 자신의 성격을 개선해보는 것도 수업 목표에 있었는데 본 과제를 통하여 이 역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중간 과제 이후, 실시간 수업의 조별 토의에서 중간 과제 때 작성한 성격 장점 강화와 단점 개선을 위해 세웠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지, 달성 정도는 어떤지 점검을 두세 번 가량 진행해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처음의 계획을 잊지 않고 실행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은 강의가 단순히 무엇인가를 학습하는데서 그치게 하지 않고 배운 내용을 자신을 바꾸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기말과제로는 개인 성격 분석 보고서와 조별과제가 제시되었다. 개인 성격 분석 보고서는 중간과제와 다르게 심리학자들의 이론 중 하나 혹은 두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론을 바탕으로 성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다. 심리학자들의 이론은 중간 과제 이전에 학습한 내용에 비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었으나 과제를 위해 반복해서 각 이론들을 보다보니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중간과제처럼 학기동안 배운 내용을 전반적으로 활용한 것이어서 강의 내용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기말 조별 과제로는 영화, 소설, 만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실제 유명인물을 골라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조별과제에서는 조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조원들과 조별과제를 하는 것이 대면강의에서 조별과제를 하는 것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실시간 강의에서도 조원들과 조별과제에 대해 의논할 시간을 일부 배정해주었고 이 시간에 일정조율, 과제 진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어서 우려와는 달리 조원들과 소통이 잘 되었다. 각 조는 주요 이론을 통해 캐릭터의 성격을 분석한 것을 수업 마지막 날에 발표하였다. 발표를 통해 직접 분석하지 않은 인물들의 성격 분석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 이론의 다양한 응용을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이 조별과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성격 이론을 통해 분석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어떤 이론이 특정인물을 분석하는데 더 좋은지에 대하여 고민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과제와 활동들을 통해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수업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게 되어 생기는 불편함을 느끼기 어려웠다. 오히려 동영상 강의, 실시간 강의, 과제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그 단점을 메꾸고 비대면 수업에서의 장점은 얻을 수 있었다. 학습효과를 충분히 얻으면서도 수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비대면 수업도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강의에서 진행할 내용을 적절하게 나누고, 학습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하는 과제를 제시하면 비대면 수업에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입선

원격수업을 통해 나만의 공부법을 찾았던 2020년 1학기

교과목명 : 통일 한국의 이해
교 수 명 : 백인주
학 과 :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이 름 : 김민주

2019년,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아주대학교에 입학한 나는 1학년 과정을 마치고 동계방학을 보내며 마음이 무거웠다. 중2병도 아닌 대2병에 걸린 것이었다. 후배가 생긴다는 설렘, 전공을 배운다는 뿌듯함, 처음 선택해보는 교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보완해야 할 성적, 진로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그중 가장 날 힘들게 했던 것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이과인 나는 보통 문제를 많이 풀고,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익혀봐야 감이 잡히곤 하는데 교수님께서 따로 기출문제를 주시지 않는 이상은 문제를 접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대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문제집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암기 과목은 요점 노트를 직접 만들어 한 번씩 쓰면서 머릿속에 넣어지는 스타일인데 대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 범위가 훨씬 넓었다. 엄청난 범위 앞에서 이 방법은 쉽게 통하지 않았다. 쓰면서 외우는 것이 익숙해진 터라 여러 번 읽어보아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았다. 제일 열심히 공부한 과목도 B+ 밖에 나오지 않아 좌절했다. “대체 대학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지? 혹시 이 학과가 나하고 안 맞는 건가?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안 좋은 건가?”라고 스스로 비하하며 자존감이 낮은 1학년을 보냈다. 같은 과 친구와 함께 2학년 때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기로 약속하였지만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찾지 못한 채 막막하게 개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전 세계를 흔든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되며 개강이 미뤄졌다. 개강이 미뤄졌음에도 종식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날이 사태가 심각해지자 학교에서는 원격(비대면) 강의를 시행하였다. 난생처음으로 3월 중순이 지나도 학교에는 가지 못한 채 집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다. 처음엔 매일 집에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만든 코로나 19를 원망하였지만, 이 코로나 19 덕분에 시행한 원격수업으로 나는 다양한 수업 방식을 경험하였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만의 공부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2020년 1학기에 개설된 수업은 모두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모든 교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진 않으셨다. 수강했던 수업 중 가장 좋았던 수업 방식은 백인주 교수님의 “통일 한국의 이해” 수업이다. 이 수업은 수요일, 목요일 6시부터 7시 15분까지 실시간으로 “칼투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수강 신청할 때는 백인주 교수님이라고만 쓰여 있었는데 수요일에는 한승호 교수님께서, 목요일에는 백인주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셨다. 이 수업을 가장 좋았던 수업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선택한 이유는 두 교수님께서 수업하심으로써 여러 의견과 자료들을 통해 “통일”이라는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쌓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또, 실시간 수업이

기 때문에 학생들은 채팅창으로 교수님과 대화를 바로바로 주고받을 수 있어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장점이 있었다. 실시간으로 교수님의 얼굴을 뵙고, 교수님께서 반응해주시며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딱딱한 분위기의 비대면 수업 중 가장 친근한 수업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과 대답을 보며 지식을 쌓아갈 수 있었다. 교수님 외에는 잠잠하던 대면 수업과는 다르게 통일 한국의 이해 원격수업에서는 나를 비롯한 많은 학생이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인상 깊었다.

또, 인상 깊었던 수업은 도수일 교수님(류영일 조교님, 김지희 조교님, 김민재 조교님)께서 담당하셨던 “생명과학 전공 실험 1(계통분류학 실험, 생태학실험, 미생물학 실험)” 이다. 보통 대면 수업에서의 실험 수업 방식을 설명하자면, 각 실험에서 다루는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배운다. 그 후, 조교님께서 실험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 학생들은 이를 토대로 직접 실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지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험 과목은 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보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이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 직접 가지 못하게 되어 실험을 직접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괜히 수강 신청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반대로 조교님들께서 실험 준비물들을 하나하나 포장하셔서 자택으로 보내주시고, 직접 실험 방법 동영상까지 촬영하신 후 유튜브에 올려주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집에서도 수월하게 실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대면 수업에서는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한 보고서 용지에 자필로 달아주셨지만, 이번 비대면 실험 수업 조교님들께서는 Black board(아주 Bb) 성적 확인란에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셨다. 이를 통해 대면 수업과 동일하게 미흡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수업은 도수일 교수님의 “미생물학” 이다. 이 과목은 실시간 수업이 아니라 녹화 강의였다. 영상은 교수님과 ppt 두 화면이 나와 실제 대면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교수님께서 강의 영상을 올리신 수요일과 금요일의 다음 날인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에는 영상을 내리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영상을 기한 내에 시청하여야 하므로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중간고사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지만,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시행하며 논란이 컸던 부정행위의 위험도 줄이고, 성실하게 공부해왔던 학생들의 노력도 생각해주셨던 수업이라 기억에 남는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해주셨다. 과목 특성상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결하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어려웠거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넘겨짚고 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흥미롭게 들었던 수업인 최홍근 교수님의 “생물 다양성과 진화” 수업이다. 이 수업은 내가 생태 및 진화 부분에 흥미가 많아서 알고 있는 수준에서 더 깊게 배우고자 수업을 듣게 되었다. 이 수업도 미생물학 수업처럼 녹화 강의로 진행되었고 영상 화면도 교수님과 ppt가 함께 나오며 대면 수업을 듣는 듯하였다. 미생물학 수업과 차이점이 있다면 생물다양성과 진화 수업은 수요일에는 강의를 올려주셨고, 금요일에는 수요일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과제를 올려주시며 학생들의 꾸준한 복습을 도와주셨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빠르게 해주셨고, 좋은 질문이 들어오면 학생의 이름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해주시고 아주 Bb에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공유해주셨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학교에 한 번도 오지 못한 새내기 친구들을 위해 교내 풍경 사진들을 여러 번 아주 Bb에 올려주셨다.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학생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프린트로 출력하셔서 이름과 얼굴을 매치시켜 기억하려고 해주셨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생각해주셨기에 더욱 인상 깊었던 수업이었다.

내가 이번 학기에 터득한 수업 듣기 방법은 "적극적인 태도" 이다. 대면 수업일 때의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주목받는 것을 싫어해서 발표는 교수님께서 호명하시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내용도 교수님께 질문 드리지 않고 그냥 외워버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 정도로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남들의 시선을 어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이런 나의 모습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싶어 했고 비대면 수업은 나의 변화에 있어서 좋은 발판이 되어주었다. 이번 원격수업을 통해 나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였다. 의견을 내야 할 땐 눈치 보지 않고 나의 의견을 주장하였고, 교수님께 질문할 것이 생기면 메일로 여쭤보거나, 실시간 수업의 경우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수님에게 채팅으로 질문을 드리는 등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교수님께 질문 드렸던 내용은 머릿속에 더 오랫동안 저장되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다음으로 터득한 학습 방법은 "이어폰을 활용해 필기하며 강의 듣기" 이다. 도서관, 독서실과 같은 조용한 곳은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않았고, 카페는 매일 가기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아 항상 시끄럽고 산만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빈방에 들어가 이어폰을 사용해 강의를 들었다. 이어폰은 최대한 교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해주는 도구로 쓰였다. 필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을 보며 이해하여야 하는 미생물학, 세포 생물학 과목의 경우 강의 노트나 교과서에 필기하였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눈에 띄는 색(연두색)으로 밑줄을 쳤고, 강조하시거나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부분은 가장 좋아하는 색(분홍색)으로 별표를 그렸다. 그 외에 없는 내용은 검은 볼펜으로 보기 좋게 적어 두었다. 필기가 다소 많이 필요한 과목이거나, 책이 따로 없는 과목의 경우, 노트를 따로 만들어 검은 볼펜으로 교수님의 피피티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그리고 교수님의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하여 돌려보며 교수님께서 추가로 설명해주시는 것들도 옮겨 적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분홍색으로 밑줄 치고 별표를 치며 필기하였다.

시험 기간 나의 대비 전략은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을 공략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치듯 목소리 내어 공부하기" 이다. 보통 우리 가족은 오후 11시 정도가 되면 각자 방의 문을 닫고, 잘 준비를 시작한다. 이때 모두가 잠이 든 조용한 틈을 타 책상에 앉아 필기하였던 것을 복습하며 머릿속에 넣었다. 특히, 대면 시험을 진행하였던 "미생물학" 에서는 이름이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생물학적인 용어들이 있어서 암기할 때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나만의 공부법을 통해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먼저 내용의 흐름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 눈으로 여러 번 읽었다. 그 중 외워야 하는 용어들은 선생님이 된 것처럼 목소리를 내어서 하는 일과 이름을 나 자신에게 설명하였다. 이때 잘 외워간다면 나에게 칭찬도 해주고, 쉽게 못 외운다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해보자!" 하고 격려하고 다독여주며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잘 안 외워지는 개념들은 눈을 감고 공책에 여러 번 반복하며 쓰고, 목소리 내서 읽기를 반복하였다. 그리고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용어가 나오면 각 용어, 개념들은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 핵심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을 반복하였다. 또한, 공식을 알아야 하는 문제들은 직접 유도를 해보기도 하고 응용문제를 만들어보며 머릿속에 저장하였다. 모두가 잠이 든 조용한 밤과 새벽에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공부하니 뿌듯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2020년 1학기의 나는 적극적, 자발적으로 공부하며 지난날의 나를 돌이켜보게 되었다. 지난 학기의 나는 나에게 집중하여 공부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공부 방법도 찾지 않고 오로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조급하기만 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나만의 공부법을 터득한 나는 변화하였다. 나 자신의 선생님이 되어 이해를 돕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차근차근히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입선

처음 해본 원격수업

교과목명 : 서양연극사
자동제어
교 수 명 : 장영지 / 홍영대
학 과 : 전자공학과
이 름 : 김주원

2020년도 1학기에는 총 7과목을 원격수업(비대면 수업)으로 들었다.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실시간 강의와 녹화강의로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그 중 내가 들은 수업은 실시간강의 3과목(서양연극사-장영지교수님, 반도체공학-허준석교수님, 컴퓨터 네트워크-이채우교수님), 녹화강의 4과목(전자회로2-권익진교수님, 자동제어-홍영대교수님, 미래산업력명과 기술창업론-김영민교수님, 전자회로실험-권익진교수님)이다.

녹화강의는 수업 첫 주부터 문제없이 진행되었지만 교수님과의 쌍방향소통이 어려웠고 실시간강의는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지지 않거나 접속이 끊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수업 중에 화면을 녹화를 해서 학생들이 편한 시간에 또 볼 수 있도록 교수님이 blackboard에 올려주셔서 서버문제로 인해 듣지 못한 부분이 생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대면수업의 경우 글씨 쓰는 것이 느리기 때문에 교수님의 말을 받아 적다보면 교수님의 말을 놓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75분내내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녹화강의든 실시간강의든 원격수업으로 진행된 이번 학기 수업은 또다시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멈춰가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을 100%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사실 원격수업이든 대면수업이든 교수님의 수업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업의 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수업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내용은 교수님께 메일로 보내면 답장을 빨리 해주시기 때문에 대면수업에 비해서는 느리긴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가장 걱정한 것은 원격으로 진행되는 시험이었다. 원격으로 진행되는 시험에서는 부정행위를 막는다고 막아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고 시험을 보고 시간 내에 blackboard에 올려야 하는데 서버문제로 인해 제시간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원격수업으로 가장 좋았던 수업의 형태를 뽑으라고 했을 때 과제나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했다.

실시간강의와 녹화강의에서 가장 좋았던 수업을 하나씩 뽑아보자면 실시간강의에서는 장영지교수님의 서양연극사, 녹화강의에서는 홍영대교수님의 자동제어이다.

장영지교수님의 서양연극사는 화요일, 금요일 a교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되었고 수업이 끝난 후 녹화된 영상을 다음수업 전까지만 올려놓으시기 때문에 수업을 미루지 않고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연극의 이론을 배우는 주에는 서버에 문제가 생겨 학생들이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학생들을 배려해주셔 녹화강의로 진행되었다. 이 수업의 경우에는 읽기과제 1번, 제작과제 1번, 연극감상문 1번, 시험 4번으로 진행되었다. 과제와 시험 모두 상상해본 적도 없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시험 4번 부정행위가 어려운 방법으로 모두 다르게 진행되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시험은 질문에 답하기로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어 친구들과 공유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질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으로 나왔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질문은 시험보기 전에 '부부의 세계' 중 일부분을 보여주셨는데 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오이디푸스 왕'(수업에서 내운 연극)의 특징과 연극에서 그 특징이 나타난 구체적인 장면을 서술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은 O, X문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을 공유하기 어렵도록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답을 찍은 학생의 점수가 공부한 학생의 점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틀린 경우 더 많이 감점하였다. (정확한 점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맞은 경우 +0.5점, 답을 체크하지 않은 경우 -0점, 틀린 경우 -0.9점)

세 번째 시험은 시험문제 내기로 이 또한 교수님이 채점하시면서 하나씩 보시기 때문에 친구와 문제를 공유하기는 어려우며, 공부를 해야 문제를 내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발하고 재밌는 형식의 시험이었다.

네 번째 시험은 내 생각적기 시험이었다. 이처럼 시험마다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고 상상도 못한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연극의 이론과 특징을 외우기만 하는 재미없는 수업이 아니라 이런 이론들이 어떤 식으로 연극에 적용되었는지 그 시대의 연극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재밌는 수업이었고 공정한 시험이었다. 원격수업으로 진행되어도 너무 재밌고 부정행위 같은 걱정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수업을 준비한다는 것이 나한테도 느껴져서 여러 전공수업을 듣는 힘든 와중에 단비 같은 수업이었고 수강신청만 성공한다면 다음 학기에도 장영지교수님의 수업인 현대연극의 이해를 들을 생각이다.

홍영대교수님의 자동제어는 녹화강의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다. 이 수업의 경우에는 과제6번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진행되었다. 녹화강의로 이루어져 듣기 싫어서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과목의 경우에는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화면에 문제의 풀이를 띄우고 말로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화면에 풀이를 적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문제의 답을 MATLAB으로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MATLAB으로 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흥미가 생겨 밀리지 않고 바로바로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배운 내용을 응용하는 문제를 푸는 과제가 6번으로 약 2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과제를 하기 위해 배운 내용을 밀리지 않고 공부해서 그 다음 강의를 들을 때에도 어려움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중간고사의 경우 넉넉한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어 풀이는 blackboard에 올리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큰 변별력이 없었지만 기말고사가 하나의 system을 정하여 control하는 project로 대체되어 1학기 동안 배운 내용인 1단원부터 6단원까지를 다시 한번 보고 이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각각 따로 있었던 내용들 사이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설계한 system이 가정과 성립하는지를 MATLAB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원격수업의 경우 공부 방법은 대면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수업을 듣는 방법이 달랐다. 대면수업의 경우 정해진 수업시간에 들으면 끝이지만 비대면 수업의 경우 집중이 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필기를 하며 천천히 멈추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을 수 있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으며 필기하고 놓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시간과 페이지를 표시에 두었다가 녹화해서 올려주신 강의영상 중 그 부분만 다시 듣는 방법으로 수업을 들었다. 녹화강의의 경우에는 한번만 듣더라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집중이 잘 되는 저녁시간에 들었으며 천천히 멈추면서 들으면서 교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받아 적는 방법으로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필기한 내용을 수업이 끝나면 다시 한번 읽으면서 노란색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밑줄쳐놓았다가 시험기간이 되면 필기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또 읽으면서 샤프로 A4용지에 정리를 했다. 샤프로 하는 이유는 화이트를 쓰면 얼룩덜룩해 보이고 그 위에 볼펜이나 형광펜이 잘 안 써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화이트를 싫어하는데 볼펜을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화이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필기는 샤프로 한다. A4한장 정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온 공부 방법으로 책이나 강의노트로 공부를 하면 내용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공부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요약하여 A4 한 장으로 만드는 정리방법이다. 물론 양이 많은 경우에는 한 장 이상인 경우도 있다. 또한 앞에서 배운 내용이 뒤에도 나오고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와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 편한 방법으로 배운 내용을 다시 배열하고 표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한다. 그 후 중요한 내용에는 노란색 형광펜을,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시험 바로 전에 읽어야 될 내용은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한다. 기출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추가해야 되는 내용을 포스트잇을 통해 A4한장 정리에 붙여놓고 시험보기 전까지 계속 보면서 통째로 외운다. 그리고 시험보기 전에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시험보기 30분전에 A4한장 정리를 다시 한번보고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시험을 대비하였다.

입선

비대면 강의도 막을 수 없던 강의력과 노련함

교과목명 : 회계학원론
교 수 명 : 한봉희
학 과 : 국어국문학과
이 름 : 김진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비대면 강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됨이 확정되었을 때, 학생들과 교수진 모두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우려로 인하여 휴학을 선택한 학생도 더러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므로 '강의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학생들끼리 소통을 일절 하지 못하며 강의가 진행되는 것 아닐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도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실시간 혹은 녹화강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 출석에 지장이 생기면 어떡할까' 등의 많은 우려가 머릿속을 오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걱정을 안고서 2020년 1학기를 재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대부분의 수업이 강의 방식과 시험 일정 등의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봉희 교수님의 <회계학원론> 수업은 달랐습니다. <회계학원론>은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도 난이도가 높은 강의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교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한봉희 교수님께서는 학기 초부터 녹화강의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지해주셨고, 이후에도 변동 없이 녹화강의로 꾸준히 진행해주셔서 수업 방식에 대한 혼란과 걱정을 줄여주셨습니다. 이로써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나 출석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학생이 녹화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을 2주일로 정하여, 학생들의 출석 체크는 물론 한 번 수강하여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실시간 강의로 진행되었더라면 놓치는 부분이 많고, 필기조차 하지 못했을 상황을 면하며 실시간 강의를 녹화하여 아주 블랙 보드에 다시 게시한다고 하더라도 화질이 좋지 않아 뚜렷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실시간 강의로 진행하고 그 실시간 강의를 녹화하여 따로 아주 블랙 보드에 게시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그러한 강의를 게시하여 학생들의 정확한 출석 체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피하는 매우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타과생이지만, 복수전공을 하기 위해 홀로 <회계학원론> 강의를 수강한 저에게 가장 걱정이 되었었고, 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바로 '질의응답' 입니다. 수업 내용 중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질문, 그리고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면서,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질의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실시간 수업 시작 시에 프로그램의 오류 등의 이유로 수업이 지연되어 강의 시간이 연장되거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할 시 이를 바로잡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래 실시간 강의 시간보다 조금 일찍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상황 등으로 인해 강의 시간 내에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의 시간 외에는 이메일을 통해 학생이 질문을 드릴 수는 있었으나, 학생들의 쏟아지는 메일로 인해 일일이 제시간에 빠르게 답장을 보낼 수 없거나, 학생이 메일로 작성한 질문 내용을 학생의 의도와 걸맞게 교수님들이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어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교수님들도 계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확실하고도 정확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이메일 질문에 대해 한봉희 교수님께서는 빠르고 신속한 답변을 개인적인 학생 메일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질문 중에서 이메일로 질문한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도 궁금해 하고 헷갈릴만한 질문을 선정하여 아주 블랙 보드의 Q&A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질의응답을 적은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고, 매주 이 파일의 내용을 꾸준히 업로드하여 개별적으로 받으신 질문을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서로 동일한 질문을 드리며 교수님의 답장을 기다리는 일과 시간이 줄었고, 더욱 활발하고도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석, 지필시험 외의 평가항목으로는 과제가 있었는데, 이는 강의의 주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문제와 응용문제를 풀어 그 풀이를 A4용지나 이면지에 상세히 적어 스캔본 혹은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계학에는 조건과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어야 함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회계를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주 블랙 보드에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녹화강의에는 주차마다 3개의 강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인 세 번째 강의는 항상 응용문제 풀이 강의였습니다. 이는 과제로 제시된 문제를 풀기 전, 미리 문제를 접하여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의 과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봉희 교수님의 수업은 본래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는 이전 학기만큼의 강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 최선의 강의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진행된 강의는,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동기도 한 명 없는 타과생인 저에게도 부족함 없고 아쉬움 없는 강의였습니다. 강의를 2주라는 기한 안에서라면 몇 번이고 다시 수강할 수 있었고,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질문이 생기면 아주 블랙 보드 Q&A 게시판의 질의응답 파일을 찾아 타학생이 질문한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바로 볼 수 있었고, 파일에 없는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교수님께 질의 메일을 보내게 되어도 빠르고 정확하며 세세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어 궁금증을 제때 해결하고 충분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기반으로 강의 진행 방식이나 계획을 결정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공지해주셨고, 이에 대한 변동사항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만한 것이 전혀 없이 안정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게다가 갖은 우려와 걱정을 안은 채 학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탄탄하고도 안정적으로 진행된 강의를 수강하게 되어, 이는 되려 학생들의 우려와 걱정은 물론이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믿고 들을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다른 강의에서도 학생들의 혼란이 적고, 학습에 있어

수월하고도 만족스러운 수업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저는 한봉희 교수님의 〈회계학원론〉 강의에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수업의 방식을 다른 수업에도 반영하여 제가 느낀 만족감을 타 학우분들과 교수님들께서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선

교수님과 학생들의 아름다운 상호작용

교과목명 : 드로잉 연습
교 수 명 : 임장순
학 과 : 심리학과
이 름 : 김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대학교가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비대면 강의는 대면 강의보다 제약이 훨씬 많았고 과정 중에 작고 큰 어려움들이 뒤따랐다. 하지만 그만큼 이 상황을 역동적으로 헤쳐 나가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인내가 빛을 발한 때이기도 했다. 필자는 이번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법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학생들을 생각해주시는지 알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이번 학기에 3학점짜리 수업 6개와 1학점짜리 수업 1개로 해서 총 19학점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듣고 참여한 하나의 수업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한다. 물론 7개의 강의 모두 다 유익하고 기억에 남았지만, 필자가 이 강의를 뽑은 이유는 특히나 교수님의 배려와 열정, 학생들의 인내와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 최고의 경험을 남겨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인상 깊었던 수업은 '임장순 교수님'의 '드로잉 연습'이란 수업이다. 처음에 수강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지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소통을 중요시'하는 예체능 즉, 드로잉 수업을 수강신청 했었다. 그리고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었을 때 필자는 드로잉 수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며 좌절하고 그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드로잉은 특히나 교수님이 직접 강의실을 다니시며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져야 하는 과목인데, 이것들이 비대면 강의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며 슬퍼했었다. 그리고 이 강의는 필자가 그동안 꼭 수강해보고 싶었던 강의이기에 그 상심은 더욱 컸었다.

하지만 강의를 듣기 시작하고 나서 이 모든 걱정과 상심은 모두 필자의 기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화상 채팅 zoom으로 이뤄지는 수업에서, 교수님은 학생들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알아주시며 어떻게든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하셨다. 드로잉 수업인 만큼, '보여지는 것', 즉 '시각적인 것'의 중요성이 컸는데, 교수님은 그림이 화면에 왜곡되어 나타나지 않게 최대한 정면에서 그림을 보여주시려고 하셨고, 종이가 너무 밝아 보이지 않을 것을 염려하시며 화면의 밝기도 조정하시면서 학생들이 그림을 원활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필자는 화면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던 도중, 비대면 강의가 더 그림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교수님께 궁금한 것들을 더 간편하게 질문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강의를 대면으로 들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넓은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저 멀리 보이는 교수님의 그림기법을 잘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실습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실을 다니시면서 학생들의 질문에 1:1로 피드백 해주시게 된다면 시간이 무척이나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비대면 실시간 강의를 하면서 교수님은 학생들이 채팅으로 드리는 질문들을 바로바로 답변해주셨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 질문을 아끼지 말라고 격려까지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일까, 초반에는 작품에 대한 질문이나 실습에 대해서 저조했던 질문이, 후반에 갈수록 점점 활성화되었고, 학생들이 작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것에도 자신감을 얻어서 더 역동적인 수업이 되었다. 그리고 필자는 사실 그림 그리기에 관심은 있지만 소질도 없고, 전문적으로 미술을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드로잉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이 또한 필자의 기우였다. 교수님께서는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다져진 실력'을 보시는 것이 아닌, 드로잉 수업에서 배운 것을 '얼마나 열의 있게 사용해서 그림을 표현했는가.'를 보시며 그림을 평가해주셨다. 그림에 대한 노력과 고민이 보이면 좋은 점수를 주시려 하셨기에 필자를 포함한 학생들이 부담을 덜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강의의 마지막 주차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제출한 그림 중에서 교수님께서 몇 가지를 뽑아, 그 그림들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진 것이었다. 물론 자신의 그림이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싫은 학생들은 미리 교수님께 따로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그 그림을 제외하고 학생들에게 다른 그림을 보여주셨다. 필자는 필자의 그림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고 싶었기에 그림이 다른 학우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동의했고, 그렇게 필자의 그림에 대해서 교수님과 학우들이 의견을 내주는 시간들이 참으로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

처음에는 7개의 강의 중에서 가장 걱정이 앞섰던 수업이, 나중에는 제일 재밌고 기다려지는 수업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보자는 마음가짐은 필자의 인생에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1학기를 지내면서 더욱 깨닫게 되었다.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소통이 안 된다면,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해야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답답하고 좌절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1학기 비대면 강의를 해본 경험이 뒷받침되어서, 이번 돌아오는 2학기에도 교수님과 학생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이 모든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덧붙여, 비대면 강의에 대한 필자의 학습 노하우를 소개하는 것을 끝으로 글을 마치려고 한다. 이번에 필자는 전 과목 A+를 받아서 학점 평균이 4.5가 되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학점은, 비대면 강의라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룬 눈물겨운 결과물인 것 같다. 이렇게 1학기 성적을 좋게 받은 방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바로 '작은 일도 미루지 말자.'이다. 실시간이 아닌 온라인 즉, 동영상 강의는 기한도 최소 일주일로 충분하고, 교수님과 면대면으로 수업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당연히 몸과 마음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필자도 초반에는 아침 강의를 저녁에서야 듣거나 2~3일 미뤄서

듣거나 하는 등 게으른 모습을 보였었다. 그렇게 필자는 점점 쌓여가는 과제와 강의에 시달리다가, 결국 학습 환경을 본가에서 자취방으로 옮겼다. 본가에서는 몸도 마음도 편해져서 할 일을 미루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에 급히 자취방으로 옮겨와서 밀린 강의와 과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날의 강의와 과제는 그날 끝내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듣고 복습과 예습도 미리 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필자가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이다. 필자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을 여기에서 더욱 실감했다. 역시 철저한 예습과 복습만이 필자를 바른 길로 이끈 것이다.

그리고 비대면 학습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느낀 것은 바로 체력이다. 코로나 사태로 외출을 삼가게 되면서 필자의 체력은 점점 바닥을 보였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필자는 아침 일찍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공원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체력을 길렀다. 그리고 일석이조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보니 그 시간에 더 빨리 강의를 듣고 남은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의 좋은 점은 학교와 자취방을 오가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특히나 통학을 하는 친구들이 느낀 장점이었는데, 자취방과 학교의 거리가 꽤 되는 필자 또한 이것의 장점을 생생하게 느낀 것 같다. 필자는 이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 동안에 공부나 과제 등 할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더 알찬 1학기가 되었다. 그리고 애매한 공강 시간이 생기지 않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 것도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다.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들으면서 필자의 학습 노하우 몇 가지를 소개했다. 이번에 할 일을 미루지 않기 위해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다 잡고자 학습 환경부터 바꾼 필자 자신에 대해 작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동기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해서 몇몇 동기들도 자취방으로 올라와 함께 공부와 과제를 하기도 했었다. 비대면 수업이 어렵고 불편한 점은 많았지만 그만큼 나 자신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다음 학기에도 이보다 더 발전된 방법으로 필자 자신을 더욱 계발하고자 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자세를 스스로가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입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수업

교과목명 : 컴퓨터네트워크
교 수 명 : 강경란
학 과 : 소프트웨어학과
이 름 : 김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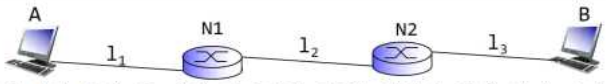
2020년 1학기는 혼란스러웠다. 본래였으면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3월에 학교 캠퍼스를 바쁘게 돌아다니며 자신의 듣는 수업들의 교실 위치를 익히고, 그 와중에 아는 동기나 선후배를 마주치면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방학 동안의 안부를 묻곤 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COVID-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면서 개강은 1개월가량 미루어지고, 4월까지도 상황이 정리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온라인 개강을 맞이했어야 했다. 교수님 또한 예상치 못하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며 당혹스러웠던 것은 마찬가지라, 초창기에는 일부 과목들이 비대면 강의 방식이 실시간 수업과 동영상 시청 수업을 여러 번 뒤바뀌며 다소 정리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대학교에서는 전례 없는 '위기' 의 한 학기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수업이 있었는데, 바로 강경란 교수님의 '컴퓨터네트워크' 였다. 이전부터 강경란 교수님의 컴퓨터네트워크 수업은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강컴네' 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전달력 높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꼼꼼히 챙기며 피드백을 중시하는 수업 스타일이 강점이었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강컴네' 만의 강점은 특히 빛을 발했다.

사이버 강의는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줄은 대신 강의에 집중해 수업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런 장점을 강경란 교수님은 십분 활용하셨는데, 평소 대면 강의라면 배우지 못할 내용을 이번 학기에서는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공학 과목에서 교재 뒷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학생들 세대에서도 익숙한 여러 최신 기술들을 교수님 입을 통해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실제 최근까지도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사용 중인 WiFi 통신 매커니즘, 휴대용 단말이 기지국을 통해 통신하는 원리, 무선 네트워크에서 IPv6 네트워크의 작동에 대한 개념, 그리고 다양한 통신 환경에서 미디어 콘텐츠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송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과의 교류를 할 수 없는 비대면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 수업마다 논술 형태의 온라인 퀴즈를 진행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각 수업 차시마다 퀴즈를 겸하는 방식은 비대면 강의 체계에서 특히 좋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날 배웠던 수업 중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퀴즈 답안에 대한 정답/오답 여부를 교수님이 하루 만에 직접 채점하고 피드백 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교수님과 대면해 직접 질문을 할 수 없다는 문제의

해결도 겸할 수 있었다.

문제 2 (3월 25일)	 위 그림과 같이 A와 B가 두 개의 라우터를 걸쳐 연결이 되어 있다. L bytes 크기의 packet을 A에서 전송하기 시작해서 B에 도착하기까지의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데에, 각 전송 단계에서 nodal delay 네 가지 요소들 중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적으시오. 즉, A→N1, N1→N2, N2→B 각 단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기존 제출 답안	1-1) A->N1: end에서 라우터로 패킷을 보내는 과정이므로 패킷을 받아들인 라우터가 처리하는 데 걸리는 처리지연(nodal processing delay)가 고려되어야 한다. 1-2) N1->N2: 라우터에서 라우터에서 가는 과정이므로 queue에 있는 패킷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큐잉지연(queueing delay), 라우터에서 출력하는데 걸리는 전송 지연(transmission delay), 라우터 간 회선의 길이에 따른 전파지연(propagation delay), 라우터 N2에서 받은 패킷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처리지연(nodal processing delay)가 고려되어야 한다. 1-3) N2->B: queue에 있는 패킷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큐잉지연(queueing delay), 라우터에서 출력하는데 걸리는 전송 지연(transmission delay)가 고려되어야 한다.
교수 feedback	1) 큰 틀에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에서 packet이 빠져나와 l1을 따라 흘러가 N1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N2에서 B로 신호가 흘러가는 시간이 빠져 있군요. 단계마다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퀴즈 문제와 교수님의 피드백 내용>

퀴즈 문제들로부터 교수님이 학생들이 어떤 맥락을 갖고 컴퓨터네트워크라는 과목을 이해하길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각 퀴즈들 내용을 전부 정리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스스로 여러 번 답지를 작성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을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교수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퀴즈로 출제할건지 예상한다던가, 특정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통해 시험공부를 진행했다.

44. 이더넷 프로토콜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Connectionless. 각 NIC간의 별도의 handshaking 과정 없이 바로 통신한다.

Unreliable: 각 NIC는 통신 과정에서 ACK이나 NACK을 보내지 않는다.

45. 이더넷 스위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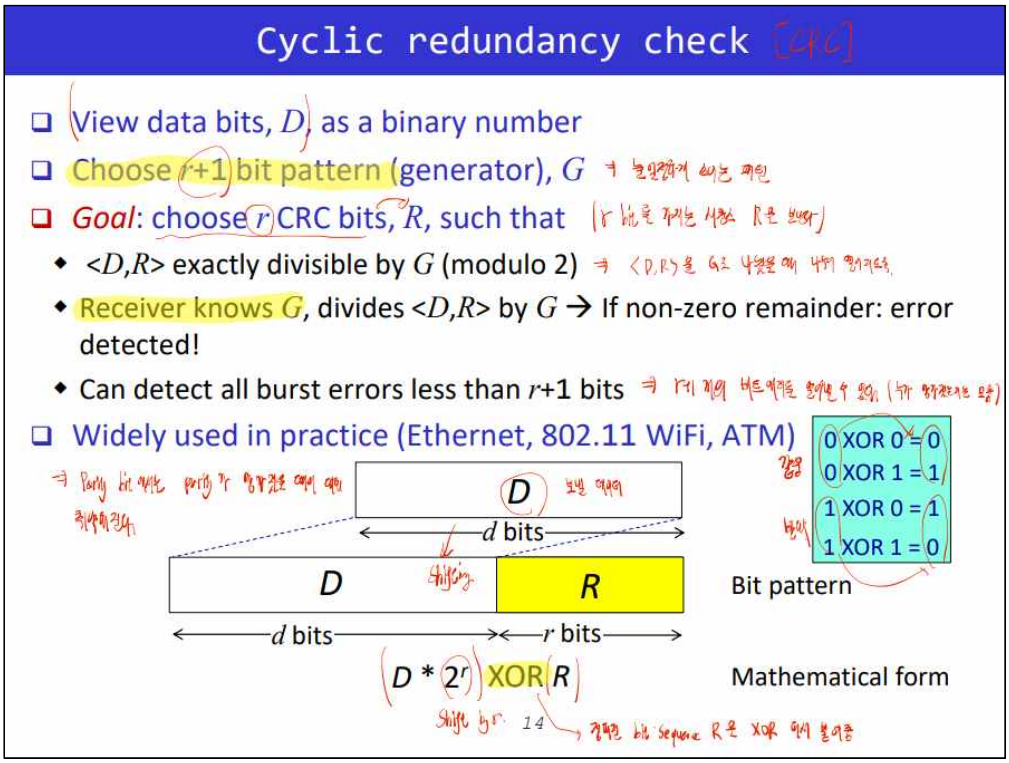
star topology에서 각 node에 연결되어, 자신에게 오는 Frame들의 MAC 주소를 Queueing 해주며 Frame을 관찰하고 이를 포워딩 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6. 이더넷 스위치에서 눈여겨볼 특징이 있을까요?

각 Host들은 통신과정 중간에 스위치가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각 패킷에는 스위치의 MAC 어드레스가 적혀있는게 아닌 다음 목적지의 MAC 어드레스가 적혀있으며, 스위치는 중간에서 이걸 보고 포워딩 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Transparent) 또한, 플러그 앤 플레이 장비이며, Self-learning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 대비하며 작성한 자문자답 노트의 일부>

위와 같이 QnA 형식으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답해봄을 반복하며 시험을 대비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시험 문제는 퀴즈에서 나온 문제들 그대로가 아닌 여태까지 배운 내용 전부를 종합해 전체 통신 과정을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지만, 평소에도 개념을 빈틈없이 다진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한 결과 평균보다 높은 기말 성적을 얻어, 컴퓨터네트워크 과목을 A+ 성적을 맞으며 학기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태블릿을 이용한 노트 필기로 방대한 수업 내용을 빠짐없이 필기할 수 있었다>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고, 비대면 수업에서 오는 단점을 극복하며, 이를 추가적인 학습 기회로 바꾼 강경란 교수님의 컴퓨터네트워크 수업은 2020년 1학기 수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수업이었다. 2020년 1학기의 컴퓨터네트워크 수업은 대면 수업을 실시했던 어느 학기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수업의 질이 좋았으며, 학생들 또한 수업에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었다.

입선

원격 수업에서 경험한 소통하는 수업

교과목명 : 전략기술경영
교 수 명 : 이성주
학 과 : 산업공학과
이 름 : 김혜린

2020년 1학기, 개강이 미뤄지고 미뤄지다 원격 수업이 시작됐다.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다 실시간 강의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교수님도 학생들도 당황의 연속이었다.

아예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접속은 되었으나 영상, 음성의 지연이 심한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학생들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수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나의 경우, 비대면 수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소통이 잘 되고, 매우 유익했던 강의가 있다. 산업공학과 전공과목 중 하나인 이성주 교수님의 '전략기술경영' 수업이다.

'전략기술경영' 수업은 처음으로 듣는 전선 과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가 컸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대학 수업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할 정도로 정말 좋았던 수업이다. 교수님께서는 zoom을 이용해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이 플랫폼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셨다.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 학생들과의 소통이다. 어떤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수업에 집중하도록 캠을 켜고 수업을 들으라고 하셨다.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굴과 주위가 보인다는 점이 신경이 쓰이고 오히려 수업에 집중이 안 될 수 있다. 이성주 교수님께서는 캠을 켜는 대신 질문과 참여를 많이 유도하시면서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셨다. 수업을 시작할 땐 항상 학생들에게 이전 수업 내용을 요약해 말해달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셨는데, 덕분에 수업 시작 전에 좀 더 빨리 준비를 마치고 이전 수업 내용을 복습하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한 후 강의에 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zoom의 주석 기능을 적극 활용하셨다. 예를 들어, A와 B 중 어느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질문을 하시면 학생들은 공유 화면에 스티커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했다. 또, A의 장단점을 생각해보자 질문하시면 학생들은 공유 화면에 자신의 생각을 짤막하게 적었다. 그 후 교수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다. 처음부터 한 명을 지목해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화면에 간단히 표시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모든 질문에 대해 스스로 열심히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필기할 때도 화면에 의견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훨씬 편했다. 그리고 갑작스레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서 대답을 수월하게 하지 못할 수 있는데, 화면에 내 의견을 작성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한 후 발표할 수 있어 더 알찬 대답들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원격 수업으로 대면 수업보다도 효과적으로 쌍방향 수업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팀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zoom을 잘 이용해 편하게 조 모임을 할 수 있었다. 수업 중간에 팀별로 zoom 회의를 따로 만들어 회의를 하고, 교수님께서 각 조의 회의에 들어오셔서 질문도 받아주시고, 피드백도 주셨다.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중간 점검을 하기 힘들어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기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각 조마다 따로 피드백도 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좀 더 수월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에 조별 발표를 할 때에도 zoom으로 발표자가 화면 공유를 하여 발표했는데, 각 조의 발표 자료를 자세히 볼 수 있어서 더 발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zoom 회의 주소를 올려주시는 등 여러 방법으로 학생들이 문제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또한 수업 내용의 특성에 맞게 수업 방식을 바꾸시면서 수업을 하셔서 공부할 때도 효과적이었다.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생각하며 공부해야 하는 이론 수업을 할 때, 그리고 실습 내용을 시범보이실 때에는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하셔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궁금한 점은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어서 학습 내용이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었다. 반면 공식과 방법 위주의 이론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반복해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수업을 올려주셨다. 그래서 내 페이스에 맞게 강의를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돌려보기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전략기술경영’ 수업은 비록 비대면 수업이었으나 지금까지 들었던 대면 수업보다 스스로 훨씬 더 수업에 많이 참여했다고 느끼는 수업이었고, 그 과정이 정말 즐겁고 유익해서 학점보다 정말 학습과 공부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참여의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적어보려 노력했다. 가만히 멍하니 수업을 들으면 수업을 놓치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중이 안 되는 날은 혼자 있는 밀폐된 방 안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거실이나 부엌 식탁처럼 트여있는 공간에서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장소를 바꾸면 편하다는 생각이 줄어, 조금이나마 더 실제 수업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어려웠던 점은 교수님께서 화면에 필기하시는 내용을 빠르게 지우신다는 점이었다. 칠판보다 화면이 좁기도 하고, 지우기도 쉽기 때문에 필기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었다. 이럴 때는 화면 캡처 기능으로 필기 내용을 캡처해 저장해놓고, 수업이 끝난 후 다시 필기를 받아 적으며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하고 필기를 정리했다.

반면 시험공부를 하면서 원격 수업이 좋았던 점도 있었다.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일부 과목의 경우 교수님께서 강의를 녹화해서 블랙보드에 업로드해 주셨다. 이런 수업은 실시간 수업을 들을 때 어려운 부분이나 교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 설명해 주실 당시 시간을 노트 필기에 같이 적어두어, 나중에 그 부분을 빠르게 찾아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니 동영상을 다 돌려보지 않아도 원하는 부분만 빠르게 찾아서 볼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한 학기였다. 갑자기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셔야 했던 교수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수업과 시험 방식, 원활하지 않은 수업, 그리고 모이는 것부터 쉽지 않은 팀 프로젝트에 적응해야 했던 학생들도 모두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원격 수업임에도 내가 들었던 '전략기술경영' 수업처럼 원격 수업의 장점을 살린다면 정말 손에 꼽는 좋았던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습 방법도 원격 수업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그 단점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학기에는 더 발전한 원격 수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입선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참여 사례

교과목명 : 실험계획 및 분석
교 수 명 : 정명철
학 과 : 산업공학과
이 름 : 남궁수미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는 교수님들께 큰 난제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환경에 맞게 강의를 진행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가장 좋았던 교수님의 수업과 원격수업에 대한 공부 노하우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가장 좋았던 교수님의 수업은 정명철 교수님의 실험계획 및 분석 과목이다.

이 수업이 좋았던 첫 번째 이유는 평가 항목이다. 이 수업은 중간고사 30% , 기말고사 20%, 과제 10%, 구술평가 10%, 팀프로젝트 30%였다. 우선 이러한 평가항목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어느 하나에 편중된 것이 아닌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어 한 평가 항목에 배점이 치중되어있는 것보다 부담을 덜 가지며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가장 좋은 평가 항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술평가였다. 매번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질문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였다. 처음에 이 평가항목을 보았을 때는 절망적이었다. 왜냐하면 모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나의 소심한 성격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질문에 대답을 하였는데 답이 틀리게 된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었다. 하지만 이 평가 항목은 나 자신을 키울 수 있게 해주었던 좋은 기회였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계속적으로 질문에 대답을 하려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쌓다보니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만약 이 평가 항목이 없었다면 이러한 난관에 대한 해결을 못했을 것이다. 이 평가 항목으로 인해서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매우 높아졌다.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수업을 더욱 집중해서 들었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복습을 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동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시험을 보는 방식이었다. 원격수업이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잘 조성됨에 따라서 불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음에 걱정이 많았다. 이 수업의 시험방식은 컴퓨터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컴퓨터 화면과 손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어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던 것 같다.

세 번째 이유는 수업시간 전에 올려주시는 강의링크였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링크를 공지사항에 올려주시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링크를 매번 올려주신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한 좋은 방식이었던 것 같다. 만약 매번 똑같은 링크로 들어갔었다면 수업시간을 맞추지 않고 미리

들어가 있거나 수업에 대한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수업에 대한 마음가짐을 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수업시간에 맞춰 링크를 타고 들어가며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네 번째 이유는 카메라를 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소해보일 수 있지만 카메라를 키지 않은 상태였다면 수업시간에 대한 집중도가 더 떨어졌을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수업하는 사람들과 교수님들께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더욱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섯 번째 이유는 실습이었다.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며 실습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습 수업을 하며 이 의문점은 사라지게 되었다. 비록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컴퓨터로 충분히 실습이 가능하였다. 교수님께서 화면공유를 통해 실습내용을 보여주시면 이를 직접 내 컴퓨터로 따라해보며 바로바로 실습이 가능하였다. 실습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심으로써 실습을 혼자 다시 복습할 수 있었고 더욱 실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수업 내용이었다. 화면 공유를 이용하여 예시를 들어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셨다. 내용마다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한 내용 한 내용 지나갈 때마다 질문이 있냐고 물어봐주셔서 학생들이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많은 신경을 써주셨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 교수님의 수업이 매우 인상 깊게 남았다. 자칫 원격수업으로 인해 열정적으로 공부하기 어려울 수 있었던 환경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다음으로, 나의 원격 수업의 학습 노하우를 말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녹화강의 다시듣기이다. 이는 원격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든다. 원격수업의 이 큰 장점은 대면강의일 때라면 놓쳤을지도 모르는 부분까지 상세히 놓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번 수업 때 실시간으로 들었던 강의를 다시 들으며 복습하였다. 실시간 수업 때, 새롭게 배운 수업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표시를 해두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녹화강의를 들었다. 필기할 것이 많은 녹화강의였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필기하는 것은 물론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없이 필기하여 공부할 수 있었다. 이를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복습을 열심히 하였다.

두 번째로 코넬노트식 필기법이다. 이 노트필기법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오고 사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노트 한 면을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필기하는 방법이다. 가장 먼저 제목 영역에는 과목명과 단원명,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다음 영역에는 수업내용들을 필기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 영역에는 핵심 개념과 키워드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궁금한 점을 적어보았다. 마지막 영역에는 그 날 배운 내용들을 요약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다. 이 또한, 대면 강의였다면 실행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 방법이다. 보통 한 번 수업을 들으면 다시 그 수업을 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적어야한다는 부담감이 매우 컸을 것 같다. 원격수업이었고 녹화강의가 있었기에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필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습을 할 수 있었고 그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등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 공부가 더욱 효율적이었다.

세 번째로 오픈북 시험에 대한 대비였다. 시험을 볼 때 오픈북일 경우에 챕터별로 중요 키워드별로 목록을 만들어 시험 때 바로바로 펼쳐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범위가 많은 경우에도 공부를 하며 핵심 키워드를 잡아내고 이를 페이지별로 정리하여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시 바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오픈북 시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만 한 것이 아니라 시험범위 내용을 공부하여 완벽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시험 당시 관련된 내용을 강의노트나 책에서 찾았을 때 그때서야 그 내용을 다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 미리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시험을 치렀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처럼 가르쳐보기였다. 대면강의였을 때에는 함께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어 서로 물어보고 가르쳐주면서 배운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했었다. 하지만 원격수업에서는 서로가 가까이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혼자 해결해보고자 배웠던 내용 중에 이해가 안됐던 내용 같은 경우 혼자 선생님처럼 가르쳐보며 내가 어느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가고 있었는지 어느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파악하며 공부가 되어 훨씬 효율이 좋았다.

이러한 네 가지 노하우가 원격수업에 참여했을 때 나의 학습 노하우였다. 원격수업이었지만 학업에 최선을 다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원격수업을 하게 되었지만 어떤 환경에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매우 많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입선

나만의 독특한 경험(이야기)

교과목명 : 다문화심리 및 상담
교 수 명 : 김은하
학 과 : 심리학과
이 름 : 서지현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COVID-19)가 점차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는 불안 속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많은 사람이 고통 속 하루하루를 버텨 나갔다. 많은 기업과 국가에서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2020년 8월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바이러스가 나타난 초창기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오랜 기간 위협에 노출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감염자가 한 자릿수에 들어서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호주에서 바이러스가 종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에 많은 대학은 조만간 상황이 완화될 것이라 생각했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하여 개강을 미루게 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고, 백신 또한 쉽게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더 개강을 미루기엔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처음 비대면 수업을 시행한다는 공지가 떴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매우 막막했다. 우리뿐 아니라 이러한 사태에 처음 접하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다. 기존에 시행하는 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이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했고, 처음 다루시는 동영상 강의 및 비대면 실시간 강의로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했다. 한꺼번에 진행되는 많은 수업으로 인해 학교 사이트가 오류가 떠서 당황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다시 계획하고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게 잘 이끌어주신 교수님이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 현재 심리학과 소속의 김은하 교수님이 맡으신 다문화심리 및 상담을 지난 대면 수업을 포함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하고 싶다. 다문화심리 및 상담 과목은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 집단의 다양한 상황을 알아볼 수 있고, 개인의 다문화 정체성, 편견과 선입견 및 특권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다. 물론 심리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다른 교양과목보다 더 관심이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본 강의가 타 강의보다 더 좋았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앞서 말했듯이 체계화된 커리큘럼이라고 말하고 싶다. 갑작스러운 온라인 강의로 인해 많은 교수님이 당황하기 마찬가지였고, 이에 혼란스러운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교육 방식의 변화에 있어 교수님의 빠른 대처가 유독 기억에 남는다. 강의는 각 월요일, 수요일에 진행되었는데, 녹화 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함께 진행되었다. 월요일에는 45분 전후의 녹화 강의만 진행되었고, 출석 확인 용도로 다음날 12시 전까지 강의 중간마다 등장하는 과제의 내용을 생각하고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수요일은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45분 정도의 녹화 강의가 올라오고, 약 30분의 실시간 수업이 진행되었다. 실시간 수업에서는 제출했던 과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거나 녹화 강의에서 부

족했던 내용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며,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또한 온라인 강의에 맞춰 기존 평가 방식으로 예정되었던 학생 간 토론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토론 평가 항목을 없애고, 중간/기말고사 방식을 각 5문항 정도의 과제로 대체하였고, 출석 및 과제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과제는 개별 과제와 조별 과제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조별 과제 및 발표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 먼저 진행되었던 개별 과제를 토대로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본 강의가 좋았던 두 번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나,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되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제는 각 개인이 각자의 성별, 나이, 지역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인의 문화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먼저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회적 편견이나 강요로 인해 잘못 형성된 나의 개인 정체성을 알 수 있었다. 더하여 잘못 형성된 개인의 사고가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부정적인 정체성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많은 생각을 하며 반성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조별 발표를 준비하면서,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타인의 개인 정체성을 통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다른 사회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한 번 더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무작정 힘들고 괴로운 과제가 아니라 과목의 특성과 주제에 맞춰 현대 사회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가 지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하는 현실적인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더욱 인상 깊었다. 더하여 여전히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한다. 여러 방면에서 바라보고 생각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힐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라도 전해드리고 싶다. 세 번째, 비대면 발표와 교수님의 논평 및 의사소통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며 조금 쑥스러운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이 본 수업에서는 조별 토론 및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우리 조에서는 발표를 크게 원하는 사람이 없어 사다리 타기를 통해 발표 인원을 정하게 되었다. 나는 평소 타인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떨려서 발표만은 피하자고 생각했으나, 결국 발표를 맡게 되었다. 그동안 발표를 해야 하는 수업이 있으면 최대한 피하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하는 날이면 너무 떨려 스스로 만족스러운 발표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팀을 대표해서 발표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꽤 생겼고, 팀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웃길 수 있겠지만, 친구와 함께 사전에 zoom을 통해 며칠 동안 계속 연습했고, 실제 발표처럼 연습하면서 시선이나 목소리 크기 등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진짜 대면 발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연습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발표에 맞게 프레젠테이션도 계속 수정하고, 발표 당일 아침까지도 발표를 함께 맡은 친구와 계속 떨린다며 연습했다. 그래도 나는 누군가가 보기엔 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비대면 발표 대비 연습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발표를 들은 주변 친구들이 발표가 재밌었다고 이야기해주었고, 교수님 반응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발표하는 도중 교수님도 웃으셨다고 들었고, 뒤에 말씀해주신 논평 내용도 좋았고, 점수도 높게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니, 무엇보다 나 스스로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거의 처음으로 만족스러웠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심리학에서는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안한 상황에 조금씩 노출하는 점진적 노출법을 사용하곤 한다. 어떻게 보면 발표에 두려움과 불안

을 가지고 있던 나를 비대면 발표라는 작은 자극 속에 노출하면서, 발표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이후 대면 발표에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를 할 수 있게 큰 도움이 되었던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익숙하지 않은 수업 방식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학기였지만, 오히려 대면 수업보다 얻은 게 많았다고 느끼기도 했다. 유독 이번 학기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학생 입장에서 이해해주시려는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서 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교수님들의 노력을 보면서 어쩌면 이번 상황을 기회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방식을 반복해 공부했다.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대면 수업보다 더 좋았던 점과 관련지어 가장 효과적이었던 나만의 학습법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부분 타이핑하는 방식이다. 수업이 녹화 강의로 진행되기도 하였고,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던 부분도 녹화해주셔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을 돌려보며 내용을 정리하고 필기하면서 정리하였다. 가끔 수업 내용을 벗어난 심화 내용이나 개인적인 사례도 소개해주셨는데, 그러한 이야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번 강의를 듣다 보니 대부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많은 내용을 필기하는 방식은 대면 수업을 할 때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가끔 집중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다음 수업 때 이어서 이야기하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필기하는 습관은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두 번째, 시험을 대비한 내용 정리를 단계별로 진행했다. 아무리 교수님의 말씀을 다 적었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봤을 때 모든 내용이 생각나는 것은 아니었다. 특별한 필기법은 아니었지만, 내용정리를 할 때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이해하기 쉽게 보충해주시는 내용을 따로 정리하고 이후에 합쳐서 한 번 더 정리하였다. 그래서인지 비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학습하는 것이 몹시 어렵지만은 않았다. 세 번째, 나의 경우는 모든 시험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그중 반 정도는 보고서로 대체되었고, 반 정도는 실시간 시험으로 진행되었다. 보고서의 경우는 크게 공부할 필요가 없었으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적용하는 문제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해를 토대로 많은 자료를 찾는 노력이 필요했다. 관련 논문과 책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보고서가 요구하는 정답을 찾고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다. 실시간 시험 같은 경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많은 문제를 적은 시간 풀어야 했기 때문에, 대면 시험보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중간시험 때 한 번 당황한 적이 있지만, 이를 토대로 기말시험 전에는 내용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해서 미리 답안을 써보기도 하였다. 실제로 미리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서 빠르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고, 점수도 올랐으며,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더하여, 앞서 비대면 수업 참여 경험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발표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었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누구나 노력하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들으면 비웃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친구와 매일 밤 함께 화상 채팅을 켜 놓고 연습하는 방법이 나에게는 발표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발표에 흥미를 느낀 재미있는 방식이었다. 서로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내가 가진 문제점도 알 수 있었고, 자신감도 얻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위기라고만 생각했던 발표를 극복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학기 가장 인상 깊었던 학습법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지난 학기 좋아했던 수업 방식과 나만의 학습법을 작성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봤다. 서두에 말했듯이 처음 원격 수업을 진행할 때, 체계화되지 않은 수업 방식 및 시스템 문제로 불만이 있었고 막막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교수님들 덕분에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고, 새로운 시도들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면서 좋은 학습법도 터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이 시간을 마냥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기에 나름 뿌듯했다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더 많은 환경에서 더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친다.

입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했던 나의 지난 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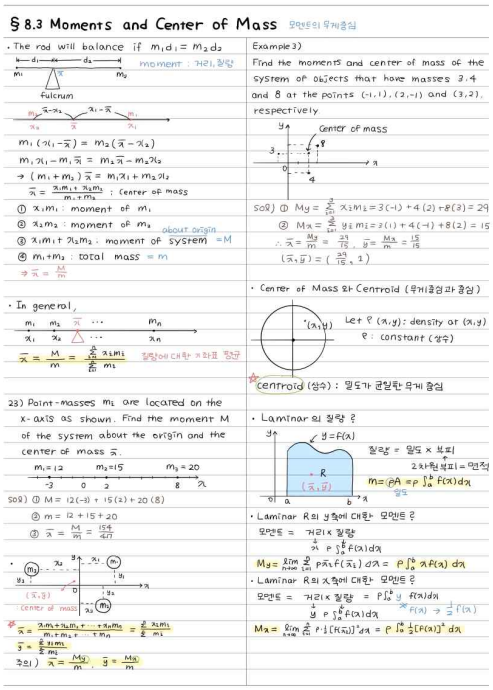
교과목명 : 수학1 / 생물학1
교 수 명 : 정명화 / 이재성
학 과 :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이 름 : 성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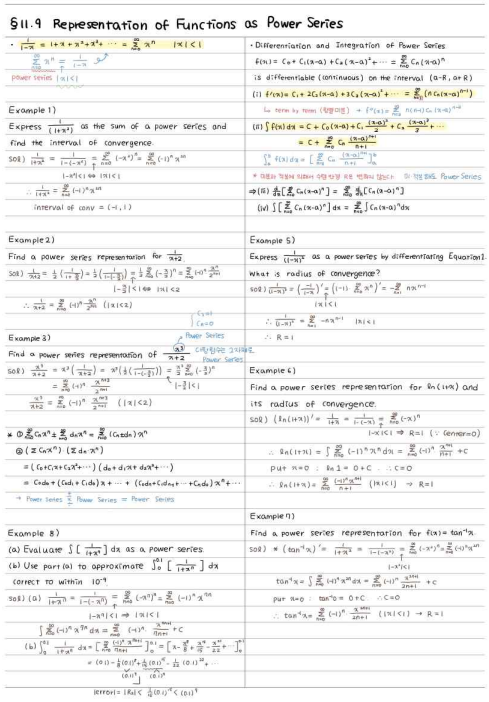
2020년이 다가오며, 저는 그토록 다니고 싶었던 아주대학교에 입학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공부할 생각에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직접 가보기도 전에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매우 심각해졌고, 이에 따라 조금은 특별한 형태의 수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온라인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는 원격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학교에서 직접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조금 속상하기도 했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1학년인 저는 여러 과목의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원격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았던 수업들도 많았고, 비대면 수업의 단점들을 극복하며 학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겪었던 비대면 수업들과 학습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좋았던 수업은 정명화 교수님의 '수학1'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의 수업방식은 제가 듣는 다른 수업들과는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녹화 수업과 실시간 수업 이 병행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면 교수님께서 해당 주에 배워야 할 내용을 녹화해서 올려주시고,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수업 시간 중 수요일에는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강의를 들으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녹화 강의는 교수님께서 말로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화면에 필기를 하며 가르쳐주셔서 이해하기도 쉬웠고, 녹화 강의의 특성상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돌려볼 수 있어서 학습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주 배운 내용을 학습활동지에 문제를 풀어보며 복습하는 동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수업에서는 제가 모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며 학습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수학이라는 과목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컸고, 이를 비대면 수업을 통해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명화 교수님의 수업방식은 저와 같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기라고 느꼈습니다. 수학1 강의의 교재는 매우 두껍고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분량보다 무척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도 필요한 개념이나 문제를 찾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고 필기를 하여 이 불편함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의 필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필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

용은 빨간색, 추가적인 내용은 파란색 펜으로 필기하여 구분하였고 따로 암기해야 하는 공식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시간 날 때마다 외우려 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실제로 제가 수업을 들으며 필기한 것입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필기해 주시는 풀이뿐만 아니라 문제까지 모조리 필기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재가 두꺼워 복습할 때 문제를 찾기 힘들기도 했지만,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개념과 문제가 모두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나 문제를 통째로 필기하며 영어로 쓰인 수학 문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고, 이는 실제로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노트에 문제까지 적혀있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는 문제의 유형을 익힐 수 있었고 제가 필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으로 수학1 강의를 듣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다고 생각한 수업방식은 이재성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생물학1 수업의 웹과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생물학1 수업은 주2회 모두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루에 약 한 단원씩 진도를 나간 후 다음 수업의 시작 시간에 맞추어 모든 학생들이 10분 동안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의 웹과제를 풀고 제출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매 수업 시간마다 배운 내용을 미루지 않고 부지런하게 복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스스로 게을러졌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 웹과제 시스템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다른 과목의 웹과제와는 달리 매시간 실시간으로 zoom의 회의에 참여하여 웹과제의 비밀번호를 보고 10분의 타이머에 맞추어 퀴즈를 쳐야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복습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이 끝나면 제가 어떤 문제를 틀렸고 무엇이 답인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실시간으로 강의하신 내용을 녹화해서 업로드해 주셨기 때문에 연결이

끊겨 못 들은 부분이나 빨리지나가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물학이라는 과목은 이해를 통한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형광펜 공부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과 함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이때 저는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고민하고 생각해봄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번 더 정독하면서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에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책에는 중요한 부분과 잘 모르는 부분 모두형광펜으로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공부할 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에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면 수업과는 다르게 옆에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도 없고 교수님께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놓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면 교수님께 메일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의실에서 직접 수업을 듣는 것보다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이겨내기 위해 실제로 강의를 듣는 것이라고 상상하며 수업을 들었고 너무 집중이 안 되는 날에는 공부하는 장소를 바꿔가며 학습했습니다. 모두가 처음이라 조금은 어색하고 힘들 수 있는 원격수업이 이루어진 지난 한 학기였지만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며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노력했고 만족스럽고 후회 없는 대학교 첫 생활을 지낸 것 같아 자랑스럽습니다.

입선

수소 상용화를 위한 도약

교과목명 : 아주도전 (에너지 변환재료)
교 수 명 : 서형탁
학 과 : 신소재공학과
이 름 : 손서연

2020년 1학기는 모든 학생에게 아주대학교에 입학해서 다니는 동안 ‘COVID-19’ 로 인한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학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 서형탁 교수님께서 지도해주셨던 파란학기에 참여하면서 수강한 ‘아주도전(에너지 변환재료)’ 과목이 나의 한 학기를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한 학기를 만들어 주었다. 파란학기제는 우리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하여 ‘자기 주도성’, ‘교육적 성과’,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차별성’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만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료의 기초적인 물성을 학습해야 하는 신소재공학과의 특성상 6학기 동안 주체적인 학습보다는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었다.

앞서 ‘캠퍼스 전략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수소자동차용 철강 소재에 대해서 기술 동향 및 소재의 특성을 특허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대회를 준비 시, 철강 소재에 한정되어 다양한 소재로 나아가는 다양한 활용 분야를 알아보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대회를 같이 준비했던 팀원들과 파란학기제를 통해 철강이라는 한정된 소재가 아닌, 다양한 수소 자동차의 소재 기술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2020년 이후의 수소 경제 시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들을 ‘신소재공학과’에 접목하여 학습하고자 이번 파란학기제에 참여하였다.

비대면 강의가 확정되었을 때, 우리가 계획한 활동은 대면 활동이 주를 이루었기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ZOOM’이라는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수님과 같이 참여한 팀원들과 함께 비대면 활동을 주로 한 학습을 설계하여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즉, 교수님께서는 학습 목표부터 강의의 계획, 세부 일정, 활동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교수님께서는 회의를 통해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의 학습 방법을 제시해주셨고, 이를 통해 한 학기의 강의를 함께 설계했다. 수소 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성, 가격 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강의의 큰 주제를 수소 에너지의 공급 · 수요 · 안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강의는 크게 대주제별로 특허 공부를 통한 최신 기술 동향 파악, 논문 공부를 통한 이론적 학습, 실험설계 및 실험 장비 학습, 그리고 최종 발표로 구성되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강의를 통해 배우는 전공 지식은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거나 최신 기술에 대해 학습할 기회는 적었다. 따라서 우리는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자 ‘특허’ 공부를 시행하였다.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

용한 프로그램은 아마 ‘ZOOM’이 아니었나 싶다.

공과대학 학생으로 ‘특허’에 대한 본질적인 학습과 검색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기에, 초반에는 특허에 대한 기본 지식 공부가 필요하였고, 팀원들과 특허 검색, 분류, 분석 방법, 검색식 작성,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 등을 나누어 조사하여 주 3회 정도 ‘ZOOM’을 이용하여 각자 조사한 것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특허에 대한 기초 학습이 완료된 후부터는 주제별로 검색식을 작성하여 최신 기술의 동향을 공부하였다. 검색식을 작성하여 특허를 검색하였을 때, 내가 원하는 유효-Data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양의 자료보다 훨씬 많은 양의 Raw-Data가 검색되어 이를 분류하는 작업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혼자 모든 자료를 검색하여 분류하였다면 엄두도 못 낼 양이었지만, 팀원들이 있었기에 같이 조언해주고 격려하며 진행하여 주제별로 특허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을 때, 나는 모든 강의시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비대면 강의를 실행하면서 내가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할 내용을 생각하며 학습을 진행하며, 팀원들과 더 좋은 방안에 대한 고찰을 함께 진행하였기에 효율적인 학습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주 1회는 교수님이 직접 주제에 관한 기술의 원리 · 이론들을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강의해주시고,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검토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다. 교수님께서 좋은 조언들과 전반적인 학습 검토를 통해 우리의 파란학기제가 한 학기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논문 · 리뷰페이퍼 등을 통해 주제에 대한 최신 기술에 관해 각자 공부하고, 맡은 논문에 대해 기술 리뷰 보고서를 개인별로 작성하였고, ‘zoom’을 이용하여 이해한 기술에 대한 설명과 어려웠던 점을 공유하여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학습을 진행한 점이 이번 파란학기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함께하는 학습활동’ 들은 많은 학습량과 학부생으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논문들을 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팀원들끼리 이론 공부가 완료되면, 우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한 학기 동안 총 3개의 실험을 설계하였으며, 아마 이 과정이 모든 팀원에게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험실에 있는 대학원생분들과 연구교수 Duy께서 전반적인 실험기기에 대한 설명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다. 직접 많은 친구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었으면, 놓치는 부분도 많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필기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면서 타이핑을 통해 빠르게 강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고, 팀원들과 정리한 내용을 쉽게 공유할 수 있었으며,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연구교수님께 직접 배우는 실험 과정과 실험기기에 대한 설명은 영어로 진행되어 초반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내가 직접 질문을 할 정도로 영어가 편하게 느껴지게 해주었다.

매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차별 보고서를 기록하여 아주 Bb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이를 작성하기 위해 나는 매일 손으로 간단하게 하루의 학습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였었다. 아주 Bb에 사실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지만, 대면 강의에서는 대부분 교수님이 강의 노트를 제공해주시는 데만 이용이 되었다. 비대면 강의를 통해 아주Bb의 ‘커뮤니티’라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었다. 주차별보고서 외에도 학습한 활동을 정량적으로 남기기 위해 ‘특허 보고서’, ‘최신 기술 리뷰 보고서’를 주제별로 작성하였다. 주로 문제 푸는 형식

의 과제를 진행한 것과 달리 내가 직접 이해한 바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비대면 강의였기에 가능하였다.

주제별로 적어도 한 번씩은 우리가 직접 학습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개인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전까지 강의에서는 한정적인 내용으로 발표가 진행되었고, 실제로 질의·응답 시간이 존재하였지만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에서 소규모로 화상채팅을 통해 발표하면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오갈 수 있었으며 이때 주고받은 의견들과 교수님의 질문들이 내 발표에 대한 중요한 피드백이 되었다. 비대면으로 발표함으로,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어 편하게 발표할 수 있는 연습이 되었으며, 이 경험은 나아가 대면 발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파란학기의 평가제도는 매우 입체적이고 주체적인 평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보통 출석과 시험으로만 성적을 매기는 다른 강의들과 다르게 이 강의는 평가 항목을 우리가 직접 계획서를 작성할 때 교수님과 회의를 통해 작성하였다. 또한, 파란학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참여도나 학습에 대한 성취도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출석이나 수업 활동 참여점수는 물론이고 주차별 보고서, 발표 내용, 리뷰 보고서들과 같은 이 과목만의 특별한 과제들이 모두 평가 대상이 되었다. 교수님의 독단에 의한 평가가 아닌 우리가 직접 세운 평가 기준이었기에 이 강의에 더욱 애착이 생겨 성실히 참여하였던 것 같다.

우리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SNS'에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카드 뉴스 형식으로 공유하여 많은 학생에게 알렸고, 중간교류회와 최종 발표도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어 발표 영상을 제작해야 했다. 팀원 모두 동영상 제작은 해본 경험이 없어 타과의 학생들보다 동영상에 화려한 효과들을 사용하진 못했지만, 우리가 선정한 주제에 관한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만들어 제공할 수 있음이 다른 강의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에는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최종발표회를 '유튜브 LIVE'를 통해 진행한 것은 색다른 체험 방법이 되었다.

이 강의에서 요구하는 학습의 양은 다른 전공과목에 비해 어려웠으며,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최신 기술도 포함되어 있어 학습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도 쉽게 우리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강의를 제공해주셨으며,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 방법과 강의 계획, 그리고 많은 피드백을 주시는 여러 노력이 합쳐져 더 큰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최종발표회 때는 교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깜짝 영상 편지도 준비해주셨는데, 팀원들 모두 '아주도전'이라는 강의를 위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시며 좋은 강의를 우리에게 제공해주시고 싶다는 교수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기존의 나는 강의에서 매우 수동적인 태도로 학습을 해왔었다. 이번 강의를 수강하면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모습의 나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학습의 태도가 더욱 큰 학습의 효과를 가져왔다. 교수님이 개인별로 지도해주시며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셨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더 노력했다. '아주도전'은 교수와 학생이 소통하며 진행하는 살아있는 강의였다. 학습의 양이 많아 힘들고, 이를 기록하고자 많은 과제를 수행하였기에 팀원들 모두 힘들었지만 어떠한 강의보다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많은 강의였다.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목표를 실현하고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수소 경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전공 커리큘럼 상 다루지 못하는 최신 이슈 중 수소에 대해 공부를 학습을 진행하였으

며,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된 기업체와 차후 유망 있는 기술들을 알아볼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한정된 학습이 아닌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학습을 진행하여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전공 성을 길렀으며, 실험 설계 과정에서 여러 실험 장비의 사용법과 분석법을 익혔는데, 이는 실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차세대 에너지원 '수소'의 상용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학습을 통해, 미래 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별 활동도 있지만, 팀 활동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보완할 점을 보완하였고 교수님의 조언을 들으며 다양한 시각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직접 모든 것을 계획하여 진행되는 강의는 처음이었는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분야인 특허, 실험 장비 사용, 실험 일지를 작성해 봄으로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아주도전'이라는 강의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더욱더 넓은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다양한 형태의 강의를 제공해주셨으며,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복합적인 자질을 갖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지도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입선

함께 만들어간 수업

교과목명 : 기초프랑스어회화
교 수 명 : Remi
학 과 : 불어불문학과
이 름 : 신지원

저번 학기는 여러모로 교수님과 학생 모두에게 많은 도전과 변화가 필요했던 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됐기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주시고,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함께 수업을 만들어갔기에 무사히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목을 '함께 만들어간 수업' 으로 정했습니다. 많은 수업을 들었으나 그중에서도 Remi 교수님의 '기초프랑스어회화'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먼저 비대면 수업 참여 경험을 나누고, 다음으로 비대면 수업에 맞게 어떤 학습법으로 공부했는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로 비대면 수업 참여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1학년을 마치고 일 년간 휴학했고, 프랑스어를 거의 까먹은 상태로 복학했습니다. 과연 일 년간 프랑스어를 공부한 상태로 2학년에 진급한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어 처음에는 프랑스어 수업(문법 수업 및 회화 수업) 자체에 대한 수강신청을 망설였습니다. 특히 회화 수업의 특성상 단어 암기(input)가 되어있어야 말(output)을 할 수 있기에 차라리 다른 교양과목을 듣는 것이 학점을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 늘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학점보다 정말 제게 필요한 공부를 해야겠다고 판단하여 도전의식을 갖고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수업은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었고, 프랑스어로 자기소개하기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비대면 수업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2주간은 교수님께서 동영상 강의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회화 수업이기에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이 교수님을 따라 말하기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올바른 발음을 구사하는지 등을 인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실시간 수업으로 강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발표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문법 공부만 하다가 모두가 처음 해보는 회화 수업이고, 참여형 수업에 익숙하지 않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회화 수업이기에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는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큰 나머지 학생들의 발표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고민 끝에 발표 참여도 점수를 평가의 큰 비중으로 삼으셨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교수님께서는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최적의 강의를 학생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최고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

셨습니다.

비대면 수업이었기에 학생들과 교수님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강의 시작 전에 항상 'Qu'est-ce que vous avez fait le week-end?(여러분 주말에 뭐 했어요?)', 'Comment ça va?(잘 지내요?)'라며 학생들의 안부를 물어보셨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트로트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께 이런 노래를 어떻게 아시냐고 여쭤봤었는데 '학생들과 소통하려면 한국 노래도 많이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던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시고, 실천하신다는 사실이 감동이었습니다. 수업의 내용은 더욱 좋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실제 프랑스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위주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쇼핑 상황, 인터뷰 상황, 여행 상황' 등 실제로 프랑스에 가서 꼭 써야 하는 표현들만 쏙쏙 알려주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ppt 효과를 많이 사용해 주셔서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 관한 내용을 배우면 실제 지하철 소리를 효과로 넣으시고, 교수님의 사진도 등장하고, 귀여운 이모티콘도 중간 중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발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고, 발음 수정도 받으며 프랑스어 회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저의 비대면 수업 노하우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자신감이 0%였으나 수업을 들으며 자신감을 90-100%까지 올릴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하나, 수업 전날 교수님께서 강의 교안을 올려주시면 '미리 단어 찾아보기(철저한 수업 준비하기)'입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어는 최대한 지양하고 프랑스어로 설명해 주시다 보니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단어를 미리 공부해간 것이 수업을 잘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울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가니 수업 내용에 대한 호기심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교안에 있는 질문의 답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가다 보니 누구보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평소 수업태도(발표의 적극성)를 평가의 큰 비중으로 삼으셨는데 평소에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큰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둘, 수업 시간에 '녹음 기능 사용하기'입니다. 수업은 zoom을 통해 진행됐는데 교수님께서 강의를 따로 녹화하지는 않으셔서 한 번 수업내용을 놓치거나 혹 받아쓰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되돌릴 길이 없게 됩니다. 정해진 수업 시간이 있기에 교수님께서 제 발표를 들으시고 수정해 주신 표현을 받아 적기 힘들 때도 있었는데 녹음 기능을 활용하니 필기를 정리할 때 다시 들어보며 수업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발음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는 녹음파일에서 교수님의 발음을 다시 들으며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셋, 강의가 끝난 이후 '노트 정리하기'입니다.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필기를 했지만 수업 내용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업 시간에는 글씨를 예쁘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받아 적는데 집중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서도 알 수 있듯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업 이후 배운 내용을 최대한 잊지 않기 위해서 필기한 내용을 다시 노트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때 좀 더 기억을 끄집어내기 수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 다시 노트 정리를 하

다 보니 다시 복습하는 빈도도 늘어났습니다. 글씨가 이상하면 다시 보기도 싫은데 필기를 다시 정리하다 보니 기억도 더 잘 남고, 복습하고 싶은 마음도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날 배운 것을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 시험 전에 급하게 정리하거나 벼락치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해봤을 때, 평소 수업 전에 열심히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질문에 대한 답도 고민하며,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실제로 꾸준히 불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학점과도 직결됐습니다. 1학년 때는 왕복 4시간 정도 매일 통학하며 수업 전에 지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통학하는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비록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변화에 맞게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학기도 많은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학생들과 교수님이 함께 소통하며 수업을 만들어간다면 분명 좋은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

입선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한 참여형 수업

교과목명 : 기업가 정신과 경영
교 수 명 : 박철형
학 과 : 경영학과
이 름 : 안효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당신에게”

기업가 정신과 경영 수업을 종강할 때 박철형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교수님께서는 이 수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주도적인 대학 생활을 만들어 가라고 하셨다.

나는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주도적인 대학 생활과는 거리가 있었다. 전공 특성 상 암기가 대부분인 과목을 주로 수강하였고 수업 시간에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밑줄 긋기에 바빴다. 시험을 준비할 때는 지식을 주입식으로 외우기에만 급급하였다. 그래서 발표와 토론 위주의 수업인 기업가 정신과 경영을 수강 신청할 때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겁이 났다. 학창시절부터 글 쓰기와 발표가 약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점차 사라졌다.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해주시면서 수업 참여를 강조하셨다. 원래 학기 초반에는 조를 짜서 토론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전례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주에 한 번 씩 교수님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셨다. 대면 수업이었으면 훨씬 활발한 토론과 발표를 해 볼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였지만 한편 발표가 낯설었던 입장이라 비대면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나에게는 나은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시면서 교수님은 칭찬과 존중을 아끼지 않으셨다. 우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셨다. 나는 질의응답 참여를 위해 교과서를 예습하였고, 수업 시간에 답변을 받은 뒤, 수업 시간 후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수업 참여 기록을 작성하면 교수님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셨다. 이렇게 어디 가서 못 받을 첨삭을 받을 수 있어서 뿌듯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 내용을 총 3번 보니 확실히 복습이 되었다.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다른 학생들은 어느 부분을 궁금해 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의문을 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복습을 하거나 스스로 찾아보는 등 능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과서 내용을 그저 수용하기 보다는 다른 과목과 연계를 하거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 등과 연결하여 질문을 하였더니 더 새롭게 수용이 가능할뿐더러 이해가 쉬워졌다.

그리고 이렇게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수님께서는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을 과제반과 시험반으로 나누시고, 설문 조사 하시는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신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다. 나는 과제반을 선택하여 토론 글과 토론 댓글을 작성하였다. 생전 처음 하는 과제였기 때문에 토론 글 쓰기도 처음에는 어렵고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글을 쓰기 위해 뉴스, 논문과 각종 서적들을 찾아보면서 녹화 강의에서 학습한 여러

이론들을 금방 적용할 수 있었고 예전처럼 주입식으로 암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기억이 많이 남았다. 리포트 작성을 어려워하여서 A4용지 2장 작성도 끙끙댔었지만 토론 글을 작성하다보니 훨씬 나아졌다. 또한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뉴스나 신문, 논문들을 찾을 수 있었다. 평소에는 각종 매체들을 크게 활용하지는 않았는데 이 수업을 수강하고 나서는 관심이 전보다는 많이 생겨 뉴스나 신문을 챙겨보려고 노력 중이다. 매체 활용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시야 확장에 필수적이며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공감 능력에도 도움이 됨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수업 참여 방법은 토론 글을 작성할 때에는 글을 단기간에 작성하기 보다는 며칠에 걸쳐 천천히 작성하는 것이다. 일단 녹화 강의를 수강하고 난 뒤에 관심이 있는 주제를 되뇌어보고, 그에 따른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 내가 찾은 자료와 경영학원론의 주제를 연결하여 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되었던 점은 다른 학생들의 글을 벤치마킹하여 내가 쓰는 글에 어느 정도 참고하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은 어떠한 이론에 중점을 두어 글을 작성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하였는지 등, 내가 놓쳤던 방법이나 토론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수업 방식은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한 참여형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느꼈다.

기업가 정신과 경영을 수강하고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발표나 글 쓰기와 같은 표현하는 방식의 수업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사라졌다는 점이다. 팀 프로젝트와 같이 표현이 중요한 과목을 기피했었는데 지금은 하면 된다 하는 사고가 생겼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뉴스, 신문 등을 스스로 찾아보는 중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학업 능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여러 방면에서 이득이 되리라 믿고 있다. 또 변화된 점은 과목 별로 의문점이 생기면 그저 수용하지 않고 내가 검색을 하여 따로 찾는 등 학습을 할 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다는 점이다. 경영학과는 진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뚜렷한 꿈을 정하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자기주도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면 진로 설정에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1학기 동안 이 수업을 수강하면서 오늘은 어떤 질의응답을 하며, 어떤 토론 글이 올라올까 기대하였는데 종강을 하여서 아쉬운 마음이 크게 들었다. 다른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듣고 훌륭한 글을 감상하는 것은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도 꽤나 흥미롭고 글 읽는 재미가 쏠쏠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글 쓰기 실력이나 발표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단언 할 수는 없지만 나도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 학기 때 대면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참여형 수업을 꼭 다시 한 번 제대로 수강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경영학과 수업을 처음 수강하여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해주신 박철형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입선

언택트(Untact) 시대의 공부법

교과목명 : 공업수학A
교 수 명 : 정명화
학 과 : 전자공학과
이 름 : 양연실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해 이번 학기의 대부분의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모든 강의들의 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 모두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이례적인 일에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해결방안을 찾고 적응해나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언택트(Untact) 시대를 적응해가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 나의 경험을 본문에 담아내었다.

내가 이번 학기에 경험했던 비대면 수업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업로드된 영상을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 출석용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고 두 번째로는 실시간 강의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위 두 방식을 혼합한 경우가 있었다. 업로드되는 영상을 시청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출석용 과제를 제출하고 실시간 강의에서 교수님과의 소통시간을 갖는 방식이 있었다. 이론이 중심인 강의는 대부분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험 과목은 학기 후반부에는 비대면 강의와 대면 강의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실험 과목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대면 강의를 병행하게 된 것이다.

내가 이번 학기에 경험한 가장 좋았던 수업은 ‘정명화 교수님’의 ‘공업수학A’강의였다. 이 강의는 앞서 소개한 수업 방식 중 마지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이번 학기에 수강했던 비대면 강의들이 출석을 인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학생의 강의 영상 시청 진도율을 기반으로 출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출석용 과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첫 번째 방식은 종종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영상강의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진도율에 변화가 없어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은 이번 학기에 내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으며 다른 학생들도 적지 않게 경험한 사례이기도 했다. 과제를 통해 출석을 확인하는 방식은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일이 매우 적었다. 그리고 강의 영상과 관련된 과제였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해야만 진행할 수 있었다. ‘정명화 교수님’의 ‘공업수학A’강의는 이 방식으로 출석 확인을 진행했다. 덕분에 강의를 수강하며 공정한 출석 확인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학습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가장 큰 난제였던 것은 시험방식이었다. 대면 시험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상당수의 강의들이 ‘온라인 시험’이라는 방안을 선택했다. 실제로 나는 이번 학기에 한 강의에서 온라인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시험지가 업로드되는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고 말았다. 특정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이다. 온라인

으로 치러진 시험은 감염 확산을 막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시험을 치루는 환경과 시험의 공정성에 있어서 허점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명화 교수님’의 ‘공업수학A’강의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의 평가 비율을 증가시키고 시험을 대면으로 진행 하였다. 그래서 모두 최대한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비대면 수업의 가장 큰 단점은 대면 강의에 비해 담당 교수님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명화 교수님’의 강의는 매주 영상을 업로드 해주심과 동시에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 실시간 강의에서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꼭 매시간 마다 강의에 접속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수업이론에 관련된 질문이나 수업 계획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학생들만 자유롭게 강의에 참석하면 됐었다. 이 시간은 학생들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교수님과 학생간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 실시간 강의는 학생 수가 소수이든 다수이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진행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포함한 학생들은 비대면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에 많은 강의를 수강했지만 특히 이 강의의 수업방식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강의의 질이 높았던 것도 있지만 학생들과 교수 간의 소통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것 또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번 학기의 수업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나의 학습 방법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 특히 학습계획을 더욱 자세하게 세우게 되었다. 대면강의로 진행 되었던 이전 학기들 보다 학습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대면 강의였던 지난 학기들에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학교에 직접 출석해 수업을 들으면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당 중요한 일정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학습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가 진행 되면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획을 구성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비대면 강의의 특성상 강의영상을 제때 보지 않으면 한꺼번에 영상을 몰아서봐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대면 강의 때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과제량과 공지 사항으로 인해 많은 일정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의영상이나 과제 제출 날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강의영상들이 업로드하다 날짜와 과제 제출일 등을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고 확인하며 학습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미리 세워 둔 계획들을 바탕으로 강의 영상을 시청했다. 비대면 강의의 가장 좋았던 점은 강의영상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면 강의의 경우 수업 중 필기를 열심히 하더라도 교수님의 강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 해 놓친 부분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면서 강의 영상의 속도를 조절해서 시청할 수 있었고 이해가 덜 된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도 볼 수 있었다. 이 덕분에 놓치는 부분 없이 공부할 수 있었으며 대면 강의의 경우 일 때 보다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또, 대면강의는 보통 75분 동안 진행되는데 강의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강의 후반부에 갈수록 집중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의 영상을 시청 할 때 영상 멈춤 기능을 이용해서 자체적인 쉬는 시간을 만들었다. 75분짜리 강의영상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다. 40분 동안 강의를 듣고 영상을 멈추어 약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남은 영상 강의를 듣는 것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니

강의 영상의 후반부까지 집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습계획과 강의를 듣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강의 내용을 필기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나는 이번 학기에 수학, 과학에 관련된 과목들을 주로 수강하게 되었다. 이런 과목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할 때 교재 혹은 교수님의 언어를 나만의 언어로 재해석하고자 했다.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본문을 그대로 노트에 적는 것은 받아쓰기와 다를 것이 없고 내용이 오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강의를 듣고 내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개념을 정리하곤 한다. 이렇게 이론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한 개념을 이용해 문제를 푸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필기노트에 개념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대표유형 예제들의 풀이를 적어 두는 편이다. 이 방법은 이론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응용문제를 풀 때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면 강의가 진행 되었을 시기에는 이렇게만 노트 필기를 했겠지만 이번 학기에는 조금 달랐다. 위와 같은 방법을 바탕으로 필기를 하되 강의를 들으며 어려웠던 부분이나 헷갈렸던 내용 옆에는 해당 강의영상의 제목과 시간을 적어두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서 내가 어려워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언제든지 해당 영상을 다시 보며 복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보아도 공부를 하다보면 모르는 개념과 문제들이 새로 생기기 마련이었다. 이럴 땐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와 모르는 문제와 개념을 고민해보기도 했는데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메신저를 주로 이용했다. 하지만 텍스트만으로는 정확한 의사전달에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화상통화를 하며 같이 공부하게 되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카메라를 통해 책을 보여주며 설명도 동시에 할 수 있으니 메신저를 사용했을 때 보다 더욱 정확하고 수월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 방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들이나 풀이들의 답을 친구와 고민하며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종종 나와 친구 모두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과목의 실시간 강의, 온라인 카페, 질문 게시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부를 하다 보니 학기의 후반 부에 가까워 졌고 시험기간이 시작되었다. 시험기간에는 학기 중에 주로 필기한 노트를 이용해 공부했다. 이때 노트에 표기해 두었던 어려웠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것 같은 개념과 문제를 추려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 친구와 답을 맞추어보기도 했다. 이때도 역시 화상통화를 이용했다. 시험 기간에는 이러한 방법들로 한 학기 동안 배운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며 공부했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과 학교, 모두에게 낯설고 난제들이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이전 학기들과 다르게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아서 이번 학기 초반에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꽤 걸렸었다. 수업 운영 방식과 평가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기는 데에도 난항을 겪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 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학기를 겪어보며 나의 비대면 학습 방법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다음 학기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번 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학습 방법을 보완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짐하게 되었다.

입선

위기의 대처와 새로운 변화

교과목명 : 열전달
교 수 명 : 조병남
학 과 : 기계공학과
이 름 : 엄태욱

2019년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휴학을 하고 복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전공 공부를 하려고 하니 다른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게다가 COVID-19 사태로 인해 개강일이 미뤄지면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확정되면서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대면 수업에 비해 강의 내용을 전달받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계공학과 조병남 교수님의 열전달 강의를 수강하면서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전공지식을 막힘없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수업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강의에 필요한 강의 노트를 미리 올려주시면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덕분에 미리 인쇄를 하여 수업 준비를 한다면 대면 수업과 같았습니다. 아주 Bb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의를 올릴 경우 PDF 한 페이지에 필기를 많이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강의를 수강할 때 일정 시간 강의가 멈춰버렸습니다. 이후 강의를 분산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멈춤 현상을 없애고 출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한주의 정규 강의시간을 준수하시면서 부족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추가로 강의를 촬영하셨으며 각 단원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풀이를 올려주셨습니다. 과제나 개념 이해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내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섯 번의 과제가 있었으며 과제의 양 난이도 모두 부담 없었습니다. 풀이 또한 올려주셨으며 열전달에 대한 이해도를 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금요일마다 원어반과 한글반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때 채팅이나 마이크를 이용하여 교수님에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주 강의 내용의 문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는 아직 해당 주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을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실시간 강의가 끝나면 참석한 학생 모두의 이름을 호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는 기분과 기계공학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느낀 것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온라인으로 카메라를 켜고 시험을 봤습니다. 준비물과 시험시간, 출석 방법, 주의사항 등 경우의 수를 모두 만들어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두 차례의 온라인 시험이었지만 실시간으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으며 감독관분들이 계셨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제출 시간을 알맞게 설정하여 부정행위를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녹화된 강의를 미리 듣고 실시간 강의를 통해 질문과 토의를 한다면 대면 강의보다 더 효

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면 강의는 수업 진도 때문에 한 시간 이상 토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강의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공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온라인 강의가 대면 강의보다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한다면 열전달 강의를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열전달 지식이 대면 강의를 수강한 학생 또는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계공학과 조병남 교수님의 열전달 강의가 COVID-19사태 온라인 강의 중 최고였습니다.

이번 학기 학습 노하우는 수험생처럼 생활하기입니다. 온라인 강의와 제한된 외출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아침 9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으며 이 습관이 성공적인 학기를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10분 동안 명상을 하면서 오늘 해야 하는 일과 이번 학기 목표 성적을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이 이해 가지 않을 때 처음부터 다시 들으면서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필기를 할 때는 강의를 멈춰놓고 필기를 다한 후 강의를 다시 수강하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감이 찾아왔지만 따로 운동을 하거나 영화관 등을 갈 수 없어서 밤 11시 이후 사람이 다니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산책을 자주 하였습니다. 강의실 이동 시간이나 공강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루 7~8시간 규칙적으로 잠을 잤습니다. 자기 전에는 다음날 들어야 할 강의와 과제를 공책에 상세하게 적어두어 아침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 부족한 부분의 강의를 1.5배속 정도로 다시 들었습니다. 이때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과 책을 같이 봐가면서 A4용지에 다시 필기했었습니다. 저만의 강의 노트를 다시 만드는 느낌으로 상세하게 필기하였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과목은 빈 공책에 수업내용을 필기 후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채점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면 쉽게 무기력해지고 강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 무기력함이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점과 정지, 반복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통학시간 쉬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개인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기(COVID-19)의 대처는 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수업방식)에 잘 적응한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실력 있는 멋진 아주인이 될 것입니다.

입선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비대면 수업 방식

교과목명 : 컴퓨터네트워크
수학2
교 수 명 : 강경란 / 박승설
학 과 : 국방디지털융합
이 름 : 이광희

2020년 1학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학 측도 학생 측도 모두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 때문에 대학은 '비대면 수업'이라는 생소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고, 이를 처음 시도해보는 교수님들 그리고 처음 접하는 학생들 모두가 외적으로든 심적으로든 힘든 학기였을 것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추측할 수 있다. 본인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 학기에 처음 수강한 아주대학교 비대면 수업 중에서 개인적으로 훌륭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한 수업들을 골라 소개해보고 "앞으로의 비대면 수업들의 진행(언제까지 비대면 방식이 진행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이러한 수업들을 표본 모델로 잡아서 진행한다면 비대면 방식임에도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학기에 본인이 수강한 수업 중 전공, 교양 수업 각각 1가지씩 총 2가지의 수업의 방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 글은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수업은 바로 '강경란' 교수님의 컴퓨터네트워크(컴퓨터네트워크 F100-3) 수업이다. 이 수업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기말고사 역시 비대면 대면 동시에 진행, 본인은 대면 상황에서 진행했음) 전부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수업이다. 본인의 이런 만족감은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력에도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으나 비대면 상황임에도 '교수와 학생 간 원활한 소통'에 놀라움을 자제할 수 없었다. 수업 진행은 대부분 수업 당일 아침 녹화된 강의가 아주Bb에 업로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업로드되는 강의 특성상 그날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부족한 부분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이해도 확인이나 성실성(틀어놓고 다른 활동 하는 등) 측면에서 부족한 방식이 아니냐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다. 이 수업은 그런 녹화 업로드 강의의 양면성을 인지하고 매 수업 당일 온라인 출석 확인퀴즈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출석을 확인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출석 확인 퀴즈는 당일 수업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되었다. 기한은 1일~2일 이내였기에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푼 문제 하나하나에 달려있는 교수님의 코멘트가 핵심적이었다. 문제의 정답 여부는 물론 틀린 문제가 있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여 풀이를 가이드 해주시는 형태로 코멘트가 달려있었다. 이 방식이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컴퓨터네트워크 분반까지 생각하면 교수님이 매번 수업마다 100명이(추정) 넘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신경 써주셨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 시험, 계획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낸

메일에도 항상 친절하게 답장해주셔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했고 과제(Wireshark 이용 및 과제 제출 관련)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실시간 강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학생들과 질의응답하며 설명해주셨다. 비대면 수업은 학생들의 시간 관리의 유동성이 생긴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교수님과 학생의 소통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강경란' 교수님의 컴퓨터네트워크 수업은 비대면 수업의 장점은 그대로 유치하면서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관리 방법을 사용하여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방학 기간인 지금도 본인은 컴퓨터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잊거나 다시 공부하고 싶은 내용은 녹화되어있는 강의를 이용하여 수업을 다시 듣는 상황이다. 그만큼 비대면 상황임에도 훌륭하게 진행된 수업이었고 다른 학교에 자랑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최고의 수업이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수업은 '박승설' 교수님의 수학2(수학2 X390-5) 수업이다. 이 수업 역시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모두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수업 역시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에도 교수님과 학생 간의 훌륭한 소통, 지속적인 관리 체계적인 수업 방식 측면에서 최고였다. 수업은 녹화 수업, 실시간 수업 두 가지 방법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며 진행되었다. 매주에 1주일 치 수업 내용에 대한 녹화 강의가 아주Bb에 강의 노트와 같이 올라온다. 또한, 매주 특정 요일(본인의 경우에는 '목') 실시간 강의가 잡혀있다. 학생들이 주마다 해당되는 수업 강의를 듣고 실시간 강의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즉, 녹화된 수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수업 내용을 공부하고 여기서 모르는 부분이나 실질적인 공지, 상호 간의 소통은 그 주의 실시간 강의시간을 이용하는 수업 방식이다. 출석 확인 방법의 경우에는 단순히 녹화된 강의를 틀어놓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올라오는 출석 확인 과제를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출석 확인 과제에서 모르는 문제나 중요한 부분은 실시간 강의시간에 교수님과 소통하며 같이 해결하게 된다. 실시간 강의에서 본의 아니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경우에는 교수님께 메일을 통해 질문하면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주셨다.

이론 강의는 녹화 강의 업로드를 통해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시청할 수 있었고, 여기서 모르는 점은 매주 실시간 강의시간에 해결 혹은 메일을 이용하여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강의는 녹화와 실시간 강의를 융합적으로 이용하여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수업이라고 생각된다. 이 수업 덕분에 비대면 수업임에도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흐름으로 수학2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다. 단순히 공식을 단기간에 암기하여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스토리와 연관성을 이해하며 학습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2020년도 1학기를 수강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2가지 강의를 소개했다. 선정한 2가지 수업 이외에도 마음에 들었던 수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비대면 상황임에도 교수님과 학생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했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수업 진행 방식(형태)으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진 수업(수업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나)의 경우에는 학생과 교수님 간의 소통이 제한되었고, 단순히 일방적인 강의 업로드, 제공, 시험으로 한 학기가 끝난 것들이다. 물론 이는 대면 상황에서 질의응답을 중심적으로 교수님과 소통하기를 좋아했던 본인의 가치관이 반영된 분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객관화되는 평가는 아닐 것이다. 또한, 처음 시행해보는 비대면 수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강의 플랫폼 사용, 매 수업 강의 녹화, 새로운 수업 계획 작성 측면에서 교수님들께서 수고하신 점들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위에

서 제시한 두 가지 수업이 예외적이었고, 특별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 방식이 계속될 경우 본인은 비대면 강의들의 수업 방식이 위에서 제시된 2가지 수업처럼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교는 지식의 시장으로 교수와 학생 간의 활발한 소통, 질문, 의견 나눔이 중요시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상호 간의 소통이 아닌 단 방향적으로 소통이 진행된다면 이는 대학의 본래 목적과는 상당히 멀어져가는 방향이다. 처음 시도한 비대면 수업 상황 내 외부적인 혼란스러움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대학의 과제이다. ‘아주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문구가 있다. 바로 Connecting minds(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문구이다)이다. 아주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슬로건인 이 문구에 알맞게 어려운 비대면 상황임에도 서로가 힘을 합치고 보완하여 더 좋은 환경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Connecting minds가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입선

가장 완벽한 강의

교과목명 : 확률 및 랜덤 변수
교 수 명 : 나상신
학 과 : 전자공학과
이 름 : 이병권

전자공학과에는 실력 있고 강의능력까지 출중하신 훌륭한 교수님들이 정말 여럿 계십니다. 그러나 나상신 교수님께서는 이런 전자공학과 내에서도 강의력으로는 감히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시며 이는 전자공학과 내에서도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공업수학 G라는 과목을 나상신 교수님께 배우면서 교수님의 출중한 강의력을 체감할 수 있었고 다음 학기에 확률 및 랜덤변수 라는 과목을 나상신 교수님께서 개설하신 것을 확인하고 조금의 주저도 없이 수강신청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개강 날짜가 미뤄졌고, 이후에는 비대면 강의가 확정되면서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수업의 장점은 대면강의 일 때 훨씬 두드러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한 학기에 최소 8번의 퀴즈, 퀴즈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형태의 중간, 기말 시험 그리고 이 쉽지 않은 일정을 가능하게 하는 교수님의 학생을 위하는 배려심.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대면 강의의 경우 교수님이 학생의 수업내용 이해도를 판단할 수 없고 무엇보다 퀴즈, 시험 시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어 정당한 점수 부여가 불가능하므로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우려를 전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셨고 이는 지식 전달, 학점 정당성 확보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성공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확률과 랜덤변수 라는 과목을 사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업은 절대평가가 원칙이었습니다. 9번의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의 점수를 환산하여 총점 100점으로 계산한 뒤 총점 95점 이상은 A+, 90점 이상은 A0 이런 식으로 5점 단위로 학점을 나누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학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단 부정행위에 의해 점수를 높게 받는 학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학기 말에 교수님께서 절대평가 2로 평가방식을 전환하시면서 A학점 비율이 50%로 증가함에 따라 학점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게 되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는 100%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시간 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수님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수업 이해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했지만, 저의 괜한 우려였다는 것을 첫 강의 때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교수님이 수업에 사용하시는 강의노트 자체가 매우 자세하기 때문에 강의노트 만으로도 공부가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는데 강의노트가 매우 자세하여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고 진도를 따라가기에 충분

했고 애초에 교수님께서 매우 쉬운 영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강의 들으면서 영어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수업 진행도 교수님께서 학생이 이해를 했는지 못 했는지를 알 수 없으니 개념에 대한 설명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오랫동안 진행하셨고 이를 이용한 문제까지 직접 자세하게 풀어주시면서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풀어주시는 예제들은 단순히 문제풀이용 예제가 아닌 실제 이 개념들이 전자공학의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들만 선정됩니다. 때문에 레이더, 신호의 송수신 등 실제 적용 사례의 매커니즘 또한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의 강의가 끝나는 금요일마다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과제의 난이도 또한 교수님의 수업을 집중해서 들었다면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수준이었고 이 또한 실제 적용 사례에 관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었기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이 과목을 수강하는지 알 수 있었던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문에 교수님의 수업 콘텐츠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전자공학도로서 필요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추가로 한 주에 이틀씩, 질문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을 개설하셨고 덕분에 대면 강의의 경우처럼 쌍방향 소통이 충분히 가능했던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퀴즈가 진행되었습니다. 퀴즈 난이도 또한 수업을 잘 따라가고 과제도 무난히 풀 수 있는 수준이면 한 주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부정행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님이 고안하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시간을 50분, 답안 제출시간을 3분으로 매우 짧게 설정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탁월하다고 느낀 것은 퀴즈 점수 평균을 보았을 때입니다. 퀴즈의 난이도는 평이했지만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방식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단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한 문제 정도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시간이 남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제출시간이 2분으로 매우 짧았기 때문에 답안 공유를 하더라도 답안을 베끼고 제출하기까지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을 것입니다. 실제 퀴즈 점수 평균은 매번 만점보다 10~15점 낮은 점수였고 점수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도 많지 않았기에 부정행위 방지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말시험 때는 더욱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칼투라를 이용하여 수강생 전원 캠을 키고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문제 파일을 미리 배포하고 20분씩 간격을 두고 비밀번호를 하나씩 공개하였습니다. 때문에 수강생들은 캠이 나오는 칼투라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문제를 한번에 전부 공개하지 않아 미리 전부 풀고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답안 제출도 퀴즈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했어야 하기에 답안 공유는 사실상 불가능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평균 점수 또한 높지 않았고 점수 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형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상신 교수님의 수업은 비대면 강의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면 강의 때와 같은 출중한 강의능력, 학생=교수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 공정하고 정당한 점수, 학점 부여가 전부 가능했던 이상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성적도 받을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더 알고 싶은 학생을 위한 상위 개념들도 강의해 주셨기 때문에 통신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다면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해 더 많은 지식들

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강의로 인해 수업방식이 변화되면서 대다수의 학생 그리고 교원분들과 교수님들까지 정말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대면강의와 똑같은 수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시고 또한 그 방법들이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나상신 교수님의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확률 및 랜덤변수 수업은 대면 비대면을 통틀어 가장 완벽한 강의였고 나상신 교수님은 가장 완벽한 교수님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비대면 수업이 나상신 교수님의 수업처럼 세세하면서 철저한, 학생을 진심으로 위해줄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입선

Your pain is my happiness

교과목명 : 조직행위론
교 수 명 : 김도영
학 과 : 영어영문학과
이 름 : 이서희

“Your pain is my happiness.” 김도영 교수님께서 수업시간마다 하시던 말씀입니다. 너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라며 실시간 퀴즈와 토론과제를 내주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사실 이번학기 코로나로 인해, 전혀 겪어보지 못한 학교의 수업방식에 학생들은 많은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께서도 상당한 혼란을 겪으시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방식을 찾기 위해 도전하셨던 한 학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셨던 교수님들과 학교 측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공모전을 통해 오프라인 수업 못지않게 소통적이며 공부의 효율이 좋았다고 생각한 수업인, 김도영 교수님의 조직행위론(원어)수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들은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연속적인 학습을 가능하도록 한 온라인 수업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가능하게 했던 수업방식은 바로 화상수업 플랫폼인 ZOOM을 통한 실시간 강의였습니다. 매 수업시간 실시간강의를 통해 교수님께선 중간고사 대체방안, 기말고사 방식 등과 같은 수업방식에 대해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셨을 뿐 만 아니라 수업방식 또는 수업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주시고 모든 수강생들이 수업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이러한 교수님의 열정과 배려가 이번 학기 에브리타임(학교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의 강의평가에서 약 4.6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결정 내려진 2020년 1학기 조직행위론 수업의 커리큘럼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조직행위 이론의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한 의견을 과제로 내고 수업시간에 공유해보는 What is Your Thoughts session(WYTs), 중간고사 대체방안으로서 이전에 배웠던 조직행위 개념들에 대해 물어보는 pop quiz세션, 그 이론과 개념을 활용하여 자신의 흥미 분야(주제)에 적용시켜보는 기말 레포트, 그리고 한 학기동안 배웠던 조직행위 이론과 개념에 대한 지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WYTs에서 다뤘던 토론주제들과 관련한 개념과 이론에 대한 설명은 실시간 강의 외에 따로 녹화하신 녹화강의를 통해 들었습니다. WYTs에서 다루는 토론 주제는 실시간 강의를 통해 배우는 개념들과도 상통하는 내용이기에, 이 녹화강의는 실시간 강의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재이자 실시간 강의의 이해를 돕는 보조재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녹화강의를 통해 익힌 개념들과 관련한 토론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써

서 내는 것이 이 수업의 주된 과제였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최대한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고 배운 개념을 활용하여 제 스스로 저만의 답안을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업 내용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의 의견을 구성하기 위해 사고하고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 봄으로써 더 깊은 차원의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수업에서 이 토론주제를 다루기 전에 WYTs과제를 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본 뒤에, 실시간 강의를 통해 토론주제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견 공유의 과정에서, 같은 토론주제에 대해 저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견해를 내놓기도 하는 학우들을 보았고 그 의견들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토론 주제에 대해 더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수업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었던 요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로 한참 어지러웠던 상황 탓에 중간고사를 대면으로 치루는 것이 어려워지자 그 대책으로 교수님께선 실시간 강의 중 팝퀴즈 7회로 중간고사를 대체하고자 하셨습니다. 퀴즈 1회당 5문제로 구성되어있는 퀴즈를 아무 예고 없이 치르고,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고자 문제당 제한시간을 두어 진행했습니다. ZOOM화면으로 퀴즈문제를 띄우시면 제한시간 안에 문제에 대한 답을 교수님께 비공개메세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문제내용은 이전에 수업시간에 배웠던 전 범위의 수업내용들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정기적인 퀴즈가 교수님이 매번 말씀하셨던 your pain is my happiness의 pain이 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퀴즈가 수업시간에 긴장감을 가지고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업내용을 틈틈이 복습할 수 있도록 독려했던 매개였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퀴즈를 볼지 교수님께서 언급조차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퀴즈를 항시 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퀴즈에 대비한 복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업이 끝나면 키워드 중심으로 그날 배웠던 수업내용을 A4용지에 따로 정리해두었고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둔 내용을 다시 훑어보며 복습한 뒤 수업에 임했습니다. 퀴즈문제가 이전의 수업내용 뿐 만 아니라 그 이전의 내용까지 모두 아울렀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둔 복습시트가 이전의 모든 수업내용을 빠르게 복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배웠던 내용을 계속해서 복습하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내용을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퀴즈를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복습하면서 내용을 완전히 익히고 기억할 수 있었고 더불어 퀴즈까지 수월히 풀며 기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기말에 제출하는 final report가 있었습니다. final report를 통해 수업시간 중 배운 조직행위의 이론과 개념들을 직접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적용하고 활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고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기업의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어있는 지에 대해 궁금해왔던 터라 이 주제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외국의 한 취업사이트에서 선호 직장 1위를 기록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의 문화에 대해 조사하고 수업시간 중 배웠던 내용들을 최대한 적용해 그 문화를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문화는 조직행위와 상당한 관련이 있기에 배웠던 조직행위 이론과 개념들의 상당부분을 적용하여 왜 이러한 기업문화가 생겨났으며 사람들이 왜 이 문화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배웠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어두기만 했을 뿐 아니라 실제 사례에 이론을 대입하고 이론을 활용해 사례를 해석해봄으로써 내

용에 더 깊은 이해를 꾀하고 실제 사례를 더욱 논리적인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말 레포트까지 모두 제출하면 수업의 마지막 관문인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치를지 비대면으로 치를지에 대해 교수님께선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하려 하셨고 결국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기말고사가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말고사의 범위는 중간고사의 부재로 인해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의 전 범위를 다루고 있었기에 기말고사를 위해 공부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퀴즈를 준비하면서 전 범위의 내용을 정리해 두었던 복습시트가 있었고 기말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전범위의 내용들을 이미 숙지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월히 기말고사를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노트와 복습시트를 번갈아 보면서 부족한 내용들을 채우고 교수님이 제공해주신 기말고사 공부 가이드라인을 보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더욱 상세히 공부하며 기말고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끝에 저는 수월히 기말고사에 응할 수 있었고 기말고사를 통해 내가 얼마나 내용들을 잘 익혔는지 확인하며 뿌듯하게 한 학기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직행위론 온라인 강의를 통해 부족함 없이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교수님께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했던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배려하여 수업을 해 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에 상응하여 저 또한 상황에 하루 빨리 이 수업방식에 적응하고 온라인 수업을 최대한 잘 활용해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에게 온라인 수업의 단점은 저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업시간 중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수업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여 수업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수업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 때처럼 강의 노트를 뽑아 제본을 한 뒤 수업을 들으면서 강의노트에 필기하며 공부하였고 공부를 하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실시간 강의에서의 질문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궁금증을 풀곤 했습니다. 또한 퀴즈에 대비해 실시간 강의 20분 전부터 책상에 앉아 그간 배웠던 내용들을 모두 복습하고 실시간 강의 후에도 그 날 배운 내용들을 복습시트에 정리하며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온라인강의를 통해 공부하면서 저는 온라인 강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충족시킬 수 없는 오프라인 강의의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선 양방향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2학기에도 부분대면 수업 혹은 전면 온라인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온라인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통의 부재를 방지하면서 수업의 질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그 온라인 강의를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한 양방향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오프라인 수업에선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만족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너의 고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처럼, 달라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양방향으로 수반되는 다양한 고통(pain)들을 감내하고 그 상황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너와 나,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happiness)할 수 있는 원격수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선

나만의 원격수업 참여 방법

교과목명 : 현대사회의 윤리
교 수 명 : 신호재
학 과 : 산업공학과
이 름 : 이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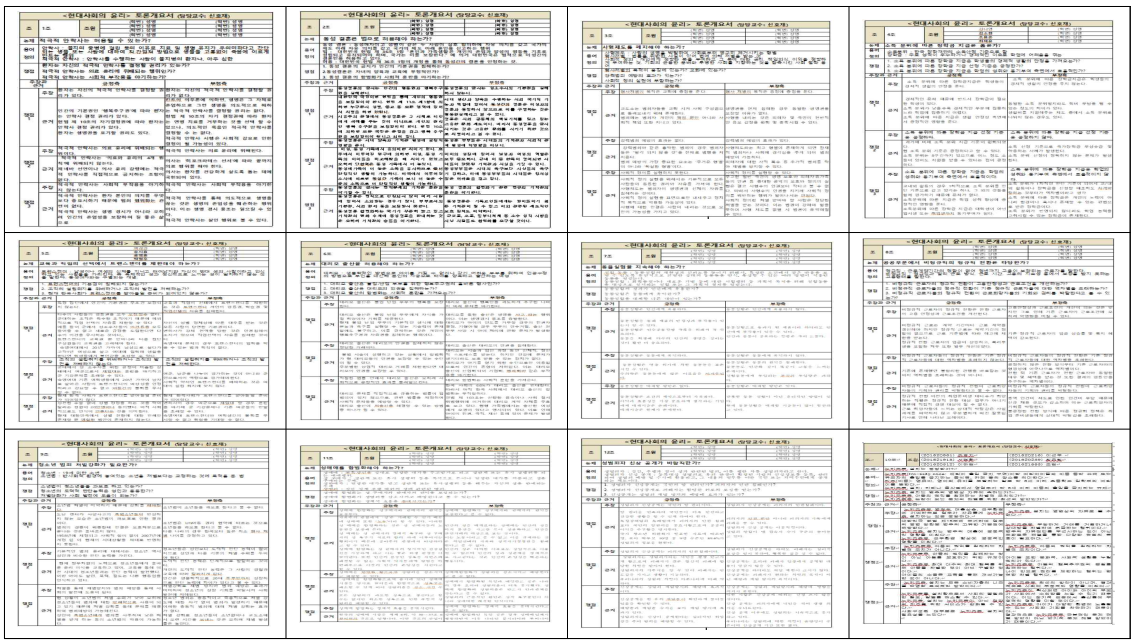
이번 2020 여름 계절학기로 현대사회의 윤리를 수강하였다. 이는 신호재 교수님의 강의와 토론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코로나로 인해 줌(ZOOM)을 이용한 사이버 강의로 진행되었다. 학습에 대한 평가는 출석(10), 발표(20), 토론(40), 과제(30)로 이루어졌다.

먼저 초반 5회차 강의까지는 교수님의 강의를 중심으로 주요 윤리이론에 관해 학습하였다. 그 뒤 토론의 진행에 필요한 쟁점 발굴, 논거 구성, 교차조사, 반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생들 간의 토론을 실제로 수행해보기 위해 모둠을 편성하여 토론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쟁점 발굴. 주장과 근거의 구성, 자료조사를 기초로 토론을 설계하였다. 토론 설계 후 작성한 <토론개요서>를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 보완한 뒤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조마다 돌아가며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진행 외의 수강생들은 청중으로서 질의응답을 통해 토론에 참여했다.

코로나로 인해 강의의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수님이 모든 수강생들이 포함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강의에 대한 공지 및 줌 회의 링크를 올리셨다. 윤리이론들에 관한 강의는 교수님의 설명으로 진행되어 대면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토론의 경우 여러 부분에서 피치 못할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토론이 어떻게 원격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행 과정 및 방법들을 소개하려 한다. 먼저 모든 수강생들 모둠 편성은 먼저 희망하는 학생들끼리 조를 이룬 후 남은 학생들은 교수님이 학번, 성별 등을 고려하여 골고루 편성해 주셨다.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모임 또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했는데 교수님이 조마다 오픈 카카오톡을 개설해주셔서 조 구성원끼리 토론을 설계 할 수 있었다. 일단 6명으로 이루어진 구성원 중 조장을 정하여 그때그때 조원들의 의견들을 모아 정리하였다. 교수님이 강의 중 정해진 시간마다 해당 조의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셔서 정리된 의견들을 검토 후 피드백을 해주셨다. 모든 조의 토론 순서, 날짜를 정한 후 해당 토론 날까지 토론 개요서와 토론에 대한 간단한 피피티를 작성한 후 토론하는 조는 피피티를 화면 공유하며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진행 조 외의 나머지 수강생들은 청중으로서 토론에 참여하여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각 토론마다의 토론개요서들을 작성하여 과제로 제출하였다.

현대사회의 윤리 강의는 다른 일반적인 강의들과는 다르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토론이 포함되어 있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불편했던 점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좋았던 점 몇 가지를 소개해보려 한다. 먼저 오픈 채팅방 활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인은 아는 사람 없이 개인적으로 강의를 신청하여 조원에 대한 정보

가 없었는데 교수님이 직접 조마다의 오픈 채팅 방을 개설해 주셔서 부담 없이 조 모임에 참여 할 수 있었다. 또한 토론 준비 과정 중에 조원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는 미리 모든 조 구성원이 참여 가능한 시간을 정해 해당 시간동안에는 오픈 채팅 방을 나가지 않고 바로바로 의견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준비를 진행하였는데 이 점 덕분에 토론 설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어 좋았다.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이다. 본인의 토론 외에도 다른 조들의 토론을 들으며 토론개요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제로 나왔다. 강의의 중반부터는 하루에 2조씩만 토론이 진행되어 토론 진행 조 외의 수강생들은 강의 참여가 떨어질 수 있었지만 토론 중에 질문 시간에 질문하는 것 뿐 만아니라 모든 토론에 대한 토론개요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제였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라도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은 본인이 매 토론 작성한 토론 개요서들이다. 총 12조 중 본인 조 제외한 11개의 조의 토론을 날마다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쟁점, 근거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론개요서를 작성했다. 많은 토론개요서들을 작성하면서 논제에 대한 쟁점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조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토론이 어떻게 흘러가야 루즈해지지 않고 단단히 흘러가는지, 교차조사 및 반론을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교수님의 피드백과 함께 진행되어 토론에 대해 많이 알아갔고 이 점들을 우리 조의 토론에 활용하였다.

방학동안 현대사회의 윤리 계절학기를 들으면서 얻은 학습 성과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먼저 공리주의, 의무론, 자유주의, 덕의 윤리 등 윤리학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과 관점을 이해하였다. 또한 윤리이론을 현대사회에서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여러 구체적인 이슈에 적용하고 이들에 대해 정석적으로 토론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 또 타인의 의견을 듣고 반박할 수 있는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어 알찬 강의라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이번 한 학기동안 비대면으로 강의들을 들으면서 어떤 점들이 강의의 참여도나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지 적어보려고 한다. 교수님들의 강의 진행 방식은 교수님들마다, 강의들마다 달랐는데 단지 강의를 블랙보드에 올려주시거나 실시간으로 강의 진행 혹은 실시간으로 진행된 강의의 녹화본까지 올려주시는 등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제일 집중도와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던 강의는 실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녹화본은 올려주시기 않는 것이었다. 다시 강의를 볼 수 없다는 긴장감에 그 강의는 빠지는 학생 수가 적었고 놓치지 않고 듣기위해 노력했다. 또한 정명철 교수님의 실험계획 및 분석 강의에서는 질문, 대답의 횟수가 퀴즈 점수로 들어갔는데 이 점 때문에 강의에 집중도가 높았다. 점수를 얻기 위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질문들에 대답을 하려고 교수님 말씀에 집중하였다. 비록 골고루 발표 기회를 가지지 못해 다소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와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그래도 점수로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반강제적으로라도 학생들의 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강의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학습하였고 좋은 학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몇 가지 노하우를 제시해보려고 한다. 먼저 실시간으로 강의들이 진행되면서 필기를 하느라 이해하면서 듣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기를 하긴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경우는 노트북 캡쳐를 이용했다. 이후 강의가 끝난 뒤 캡처된 화면들을 보고 필기를 채워나갈 수 있었다. 이 점은 대면 때보다 오히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또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과제량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이를 놓치지 않고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기 위해 블랙보드의 마감일 부분을 항시 체크하였다. 블랙보드의 마감일 항목에는 모든 과목의 과제 제출의 기한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 확인하기 쉬웠다.

감염위험 때문에 이례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물론 비대면으로 진행함으로서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 마구잡이로 강의를 올려주시거나 버거운 과제량, 매끄럽지 않은 수업 진행 등 이번 학기를 다니는 게 맞았나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로 힘든 학기였지만 몇 대면만큼 만족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들이 모여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다음 학기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입선

비대면이어도 괜찮아

교과목명 : 조직행위론
교 수 명 : 정대용
학 과 : 국어국문학과
이 름 : 이아림

때는 2020년 2월… 저는 해외단기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일본 삿포로에 있었습니다. 그 때 받은 문자 한 통. ‘언니! 우리도 개강 2주 밀렸데!’ 라는 동기의 연락을 듣고 난 직후에는 한국에 가서 자유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듯해 마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3월, 그리고 4월, ‘설마 한 학기 전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겠어?’ 하는 마음에 기약 없이 대면 수업을 기다리다가 결국 한 학기 전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공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첫 학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비대면 수업과 잘 맞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국가근로에 합격하여 교외근로를 하게 되어서 본가에서 수원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정작 학교는 가지 않으니 근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물리적으로는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명 ‘밖순이’였기 때문에 일본에 있느라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시험은 하나 밖에 없었기에, 오후까지 놀고 들어와서야 노트북을 켜고 강의를 듣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을 적용할 수 없는 수업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정대용 교수님의 ‘조직행위론’입니다.

학교를 가지 않으니,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때 느껴지는 현장감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 인터넷 강의를 듣듯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조직행위론 수업은 최선의 수업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면서 ‘현장감’을 채워주었습니다.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고, 코로나 19로 인해 결정해야 하는 여러 안건들은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원활한 소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는 녹화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수업시간인 월요일, 목요일 10시 반부터 11시 45분까지 꼭 맞춰 들어야 했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Bb에 접속하는 시간과 수업이 끝나기 전에 이메일로 강의에 언급된 문제나 토론에 대한 답변을 보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전까지 꼭 pre-question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보내야 했습니다. 교수님 수업의 큰 틀은 ‘수업 전 학생 스스로 수업 내용에 대해 예습 - 강의를 통해 스스로 이해하고자 한 부분이 옳은 지 점검,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심층 설명 - 수업 내용 중 함께 이야기 나눠 보면 좋을 주제로 토론’ 이었기 때문에 예습은 필수였던 셈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 수업만큼은 꾸준히, 성실하게 수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간고사 기간 전후로 비대면 수업이 학기 끝까지 진행된다는 것이 확정되자,

교수님께서는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셨고, 그 도구로는 ZOOM을 사용했습니다. 오로지 교수님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거의 없었고, 항상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먼저 ZOOM의 '소그룹' 기능을 통해 3-4명이 포함되어 있는 소그룹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입이 트이면 다시 모두가 있는 방으로 이동해 다 같이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발언을 하는 학우가 정해져 있을 정도로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영어 수업이다 보니 오로지 영어로만 말을 해야 하고, 화면 너머로만 마주 보며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해서 그랬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처음으로 ZOOM으로 수업한 날에 수업 이후 모든 수강 학생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수업 방식에 대해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말을 많이 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당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 수업 시간에는 참여도가 미비할 지라도 굳이 한 학생을 지목하지 않으셨고, 학생이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답변에 대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학생 스스로가 말을 하는 데 있어 뿌듯함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학우들 사이에서도 '수업 시간에 하나라도 더 말해 보아야지' 하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생겼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함께 수업을 한 것이 아닌데 말이죠! 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가상공간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ZOOM은 비단 수업할 때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수업 중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저희 팀이 발표를 하기 전에 다 함께 ZOOM을 통해 면담을 진행하고, 수정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기꺼이 ZOOM으로 한 번 더 면대면 면담을 진행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만약 대면 수업이었다면 이 면담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상상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온라인 회의 툴을 이용한 면담은 효율적이었습니다. 또한, 5월 중순 즈음 ZOOM을 통해 한 차례 더 일대일 면담이 이루어 졌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복수전공으로 경영학을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 많았는데, 이러한 고민을 이때 털어 놓았고, 교수님께서 진심 어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때 해 주셨던 말씀들이 제 고민의 실타래를 푸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부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동시에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심화 전공을 하는 친구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조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조직행위론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태도를 배워 가야 하는 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이메일을 통해, 활자로 고민을 말씀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면 느끼지 못할 생각들을 ZOOM을 통해 교수님과 화면 너머 얼굴을 마주 보며 목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수업의 경우 ZOOM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모두 켜고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말고사를 치룰 때 교수님을 처음 뵙는 경우도 있었던 걸 생각하면 조직행위론에서 경험한 수업 진행 방식은 자연스레 교수님과 친밀도를 높이고 신뢰감을 쌓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직행위론 수업을 통해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영어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교수님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실 뿐 영어를 실제로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특히 수능을 공부한 한국 학생이라면 부족할 영어 작문과 말하기를 꾸준히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

을 따라가기 위해서 영어 듣기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영어 문제를 푸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영어로 저의 의사 표현을 하는 데 서툴렀던 제가 수업에서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오직 영어로만 서술형 문제를 써 나갈 수 있었던 것, 방학 기간 동안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고 꽤 괜찮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꾸준히 영어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학기 초에 쓴 reading assignment와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쓴 과제를 비교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실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수업을 통해 ‘머뭇거리다 보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기회가 왔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반에 이르러서까지도 실시간 수업 중에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공부를 했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손을 들고 답변을 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계속 ‘언제 손을 들고 대답을 해야 하나’ 타이밍을 노리다 보면 다른 학우가 먼저 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결국 대답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반에 대답을 잘 하지 않았던 학우가 어느 순간 제일 대답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교수님께서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라는 말씀을 면담을 통해 해 주시면서 손을 들고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강 이후에도 무언가 도전할 일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정대용 교수님 OB(Organization Behavior) 수업 들은 사람이다! 이것도 해낼 수 있다!’ 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무엇이든 임하다 보니, 그 전에는 조장을 맡으면 따라오는 책임감이 부담스러워서 피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대외활동 조장을 해 보겠다고 해서 조장을 맡게 되었으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보자’ 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맞는 한 학기 전체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조직행위론 수업에서는 제가 면대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던 동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에 사용할 수 있었던 수업 방식이 도입되어 수업의 효율을 최대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조직행위론 수업을 통해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입선

동영상 강의 따라잡기

교과목명 : 자동제어
교 수 명 : 좌동경
학 과 : 전자공학과
이 름 : 이태연

이번 2020-1학기, 비대면 수업이 시행되며 여러 가지 방법의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을 듣고, 학습을 하며 한 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총 7과목을 수강하였는데,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또한 수강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며 과목마다 수업 방식은 모두 달랐습니다. 크게는 실시간 강의, 녹화 동영상 강의 두 가지로 나뉘었지만, 그 안에서도 각기 다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녹화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는 수업일지라도 출석 인정 방식이나 진행 방법, 강의 시간, 수업 자료, 과제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업로드된 강의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 수업도 있었고, 시청각자료를 보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출석을 인정하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학기 공부를 해보며 제가 가장 좋았던 수업 방식은 언제든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바로 전자공학과 좌동경 교수님의 자동제어 수업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좋았던 점은, 교수님께서 단지 교과목의 진도를 나가기 위한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수업 중간 중간 교수님께서 자주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강의를 천천히 다시 돌려보고, 언제든 질문을 해달라고 먼저 말씀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챕터별로, 내용별로 짧게 여러 개로 녹화 강의를 나누어 올려주신 덕분에 수업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도 수월했고, 나중에 복습할 때에도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공부하기에도 매우 용이했습니다. 또한 과제에서도 교수님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대부분의 과목들은 과제 제출을 통해 출석을 확인하였습니다. 강의 하나마다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거나 보고서 작성, 자료 조사와 같은 수업 외적으로 시간을 많이 써야하는 수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자동제어 수업의 과제들은 교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출제하신 각 영상의 핵심내용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수업만 제대로 듣는다면 무리 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고, 또한 과제가 바로 수업 내용 자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효율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좋았던 점은 학생들과의 소통도 잘 이루어졌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주Bb 내의 QnA 게시판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주시며 그 중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추가로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주시고, 필요한 내용은 공지사항으로 전달해주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학습에 신경써주시는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제작된 동영상 속 설명 중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을 담은 영상을 편집하여 넣어주시기도 하고, 진도에 여유가 있으면 문제풀이 영상을 만들어 올려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한 동영상 강의인 만큼 교수님께서 판서하시는 내용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필요할 때에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필기를 하거나 타임바를 움직이며 원하는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점도 이 수업의 큰 장점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들었던 수업들 중에서 가장 콘텐츠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업에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습에도 열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업로드된 강의노트를 미리 출력하여 교수님께서 강의노트 화면을 보고 설명하시는 것에 맞추어 따라가며 수업 내용을 필기를 하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추가로 올려주신 문제풀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강의노트에 없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강의노트 뒷면에 필기하였습니다. 나중에 치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은 개념보다는 문제풀이 위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문제와 풀이까지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이 짧게 여러 개로 나누어져있었기 때문에 강의 하나가 끝날 때 마다 해당 부분의 과제를 하며 수업 내용을 되새겨보며 바로 복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제 문제 중 잘 모르겠는 것들이나 수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설명을 차근차근 곱씹어보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보고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지는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QnA 게시판을 들어가 보며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한 번씩 훑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Bb 내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처음 보아 신기한 마음에 들어가 보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들과 친절히 답변해주시는 교수님의 글들을 보며 공부에 대한 자극도 받고, 수업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동영상 강의와 과제 위주로 밀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한 덕에 시험기간에는 한결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지 감이 잡히지 않아 수업의 주요 개념을 담고 있는 과제 문제와 풀이해주신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것들 중 학기 초반에 학습했던 부분은 공부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 잊어버렸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해당 내용의 강의 동영상을 찾아 다시 들었습니다. 이미 학습했던 내용이고, 복습 겸 상기시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배속기능을 활용하여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떠올리고, 필기해놨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며 시험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학기를 겪으며 느낀 점은, 밀리지 않고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비대면 수업의 경우 특히나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특성상 수업 내용 이외의 부분에 쓰는 시간이 비교적 적고, 따라서 대면 수업 보다는 한 강의에 담고 있는 수업 내용이 조금 더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강의 내용을 한꺼번에 공부하는데 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대면 시험에 어려움이 있어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고 기말고사에 학기 동안 배운 내용 전 범위를 시험 보는 과목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공부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동반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과목마다 다른 수업 방식에 유연하게 맞춰 따라가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다음 2학기의 비대면 수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선

보이지 않는 태풍

교과목명 : 구조역학
수문학
지반안정해석 및 설계
교 수 명 : 신영석/이재웅/유민구
학 과 : 건설시스템공학과
이 름 : 이해진

2020년, 봄바람이 불기 전 눈에 보이지 않는 태풍이 전 세계에 불어 닥쳤다. 중국에 머물던 태풍의 눈은 2월 18일을 기점으로 한국과 신천지로 옮겨졌다. 사람들의 온 신경은 뉴스와 확진자 숫자에 쏠리고 세상은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다. 캠퍼스 문이 활짝 열리고 신입생들의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 찰 전국의 대학교들은 개강을 미루기 시작했다. 미뤄진 개강에 기뻐하는 대학생들도 많았다. 아마 대부분의 대학생이 개강이 돌아오지 않길 바랄 테니까. 그러나 2주가 지나도 강의실에 앉아 교수님을 마주 볼 수는 없었다.

3학년 1학기였던 2020년 1학기 시간표는 전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기에 전공 실험과목은 3개나 되었다. (공대생에게 실험이란 보고서 지옥이자 밤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만사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3월의 첫째 주와 둘째 주를 보냈다. 그 2주 동안 대학과 교수님들은 전례 없는 이번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강의를 차곡차곡 채워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 주가 되었다. 학교가 아닌 집에서 맞이한, 교수님의 얼굴이 아닌 모니터를 바라보며 시작된 학기였다.

상상 속의 온라인 강의는 교수님께서 강의실 칠판 앞에서 계시고 칠판과 모니터를 활용하며 강의하시는 모습이었다. 마치 고등학생 때 보던 '인강'처럼 말이다. 하지만 아주Bb에 들어가 처음으로 열어본 강의는 PPT 화면이었다.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한 과목 중 이론 수업은 6개이다. 6개 중 5개 수업이 PPT 혹은 e-Book 교과서를 띄워놓고 교수님의 목소리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이었다. 단 한 개의 수업만 '인강'과 같은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 수업은 **신영석 교수님의 '구조역학'**이다.

신영석 교수님은 전공강의실 중앙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탁과 칠판 사이에서 서서 강의를 진행하셨다. 그리고 모니터에 띄워진 e-Book 교과서와 칠판을 번갈아 활용하시며 이론을 설명해 주셨다. 교수님이 칠판에서 모니터로 이동하실 때 카메라는 자동으로 교수님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교수님을 비췄다. 가끔 교수님을 따라가지 못해 혼자 엉뚱한 곳을 비추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은 좌우로 움직이며 카메라가 교수님을 따라오도록 유도하셨다. 대면 강의였다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었을 것이다.

비록 동영상 강의였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볼 수 없었지만,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다. 혼자 외로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번 학기였다. 그러나 모니터를 통해 교수님을 마주 보는 '구조역학' 수업만큼은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피피티와 교수님의 목소리로만 진행되는 수업이 꼭 나빴다는 건 아니다. **'수문학'을 강의하신 이재웅 교수님**은 준비하신 PPT 위에 직접 판서를 하면서 수업하셨다. 내용에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PPT의 펜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가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주셨다. 또한 준비된 활자로만 수업하시지 않고 간간이 슬라이드에 없는 내용을 직접 손으로 적으시며 학생들이 필기하도록 하셨다.

'수문학' 수업은 몇 주 동안은 녹화된 동영상 강의였지만 4주차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Zoom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로 진행되었다. 실시간이라는 것 이외에 교수님의 수업방식은 이전의 동영상 강의와 똑같았지만, 수업 중간과 마지막에 학생들이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받으니 대면 수업과 같이 교수님과 소통하는 기분이 들었고 궁금한 사항이 바로 해결되면서 수업 이해에도 도움이 되었다.

좋았던 또 다른 동영상 강의는 **유민구 교수님의 '지반안정해석 및 설계'**이다. 이 과목은 본래 실습수업이기 때문에 전공 CAD 실에서 수업이 진행되어야 했다.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가도 이해가 어려운 프로그램을 동영상 강의로만 습득하고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교수님도 학생들도 여간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교수님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PPT 화면 녹화로 기초 이론을 충분히 반복해 설명해 주신 다음 교수님께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예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제 문제와 비슷한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반복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보다 수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흙막이 가시설에서 사용되는 강재의 모형을 직접 3D 프린트로 제작해 캠 화면을 통해 설명해 주신 것이다. 3D 프린트된 작은 모형은 두 가지 종류의 강재의 실제 형상과 같았고 그들을 이용해서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 과정을 보여주셨다. 모호했던 이론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새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비대면 수업이었고 교수님들의 기존 수업방식 스타일에 따라 온라인 강의의 스타일도 모두 달랐으며 이론 수업, 실습수업, 실험 등의 수업 형태에 따라서도 강의 방식은 모두 천차만별이었다. 각각의 장단점은 모두 다르지만 통틀어 온라인 강의의 최대 장점을 꼽자면 단연 반복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의실에서 듣는 수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났다. 그러나 동영상 강의에서는 내용을 놓치면 다시 들으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면 된다. 2020-1학기에 신청한 강의 중 한 개의 과목(수문학)을 빼고 모두 녹화된 동영상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수문학 강의 역시 실시간 수업이 끝나면 수업 녹화영상을 올려주셨다. 따라서 시험공부를 할 때나 과제를 수행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찾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학기에는 졸음과 싸우며 적었던 외계어 같은 필기를 해석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비대면 강의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컴퓨터 앞에 앉아야 했고 대면 강의보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강의를 듣는 모습을 누군가 볼 수 없음으로 자세는 점점 흐트러지고 흥미로운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졸리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다시 들으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제작된 강의 시간보다 더 오래 강의를 듣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났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강의를 미루지 않고 듣는 것이었다. 평균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일이 주 정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설정 해두셨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표에 강의를 꼭 듣지 않아도 되었다. 융통성 있게 스스로 스케줄을 짜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는 것은 좋았지만 한번 강의가 밀리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강의를 시청하는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써야 했다. 따라서 이번 학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신과 싸움' 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강의를 제때 듣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케줄 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한 달 달력을 직접 그려서 만들고 일주일 치 일정을 주말마다 미리 세워놓았다. 가능하면 원래 시간표대로 강의를 수강하도록 일정을 세웠고 온라인 강의가 시간과 공간에 자유롭다는 점을 활용해서 시간표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주말은 강의를 듣지 않도록 평일에 스케줄을 집중시켰다. 비대면 강의에서 과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공지를 꾸준히 확인하고 마감일을 잊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스케줄 표에 과제 마감일을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하였고 결국에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집중이 잘 안 되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곧 단점이 되기도 한다. 기회가 있다는 생각은 마음에 여유를 가져다주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다잡으며 '강의는 한 번만 듣는다.' 라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하였다.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을 가능한 모두 타이핑하였다. 귀로만 수업을 들을 때는 많은 정보가 머릿속에 입력되지 않고 당장은 기억할지 몰라도 하루만 지나도 수업내용의 절반 이상을 까먹게 된다. 따라서 멍하게 수업을 듣지 않고 중요한 내용, 부가적인 내용, 농담하시는 내용까지 적어가며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필기하는 것 보다 내용의 흐름이 훨씬 머릿속에 잘 남았다. 이런 방법은 주로 e-Book 교과서를 시각 자료로 활용하는 수업에서 사용하였다.

온라인 강의답게 이번 학기 필기는 이전보다 더욱 디지털적이었다. 수업자료로 PDF 파일이 제공될 경우 태블릿을 통해 자료 위에 바로 필기를 하였다.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때는 교수님의 수업화면을 캡처하여 노트에 붙이고 그 위에 필기하였다. 이때 노트로 주로 사용한 프로그램은 microsoft의 'OneNote for Window 10' 이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트는 타이핑으로도 내용 작성이 가능하고 손글씨 필기도 가능하다. 캡처한 사진을 붙여 넣고 [그리기] 기능을 이용하면 사진 위에 필기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나만의 필기 노트를 만들었고 시험 기간에 복습이 쉽도록 과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해 놓았다.

계속되는 개강의 연기로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과목들이 많았다. 중간고사 대신 중간 대체 과제가 주어지거나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로만 평가하는 과목들도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과목이 오픈북으로 시험이 진행되었다. 시험 범위는 넓고 내용은 어려웠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다. 중요한 연습문제, 예제문제, 기출문제를 비슷한 문제들끼리 모아서 'OneNote' 에 정리한 후 문제 밑에 풀이 과정을 꼼꼼히 적어 놓았고 시험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주로 '신영석 교수님의 구조역학', '이재웅 교수님의 수문학', '주현승 교수님의 통계 및 확률' 의 시험 공부에서 활용하였다.

처음 겪어보는 수업 진행 방식과 수업 평가 방식이었지만 그로 인해 이제는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학기도 2020-1학기와 비슷하게 또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비대면 강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략을 세워 대면 강의 못지않은, 그보다 더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다음 학기를 만들 것이다. 보이지 않는 태풍이 완전히 소멸하는 그때까지 태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과 생활을 더 꽉 붙들어 놓아야 할 시기이다.

입선

원격수업이어서 더욱 빛났던 수업

교과목명 : 창의적 사고
교 수 명 : 신종호
학 과 : 기계공학과
이 름 : 임채현

신종호 교수님의 창의적 사고 수업은 실시간 강의와 동영상 강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실시간 강의에서 배울 내용을 예습하고, 실시간 강의에서는 동영상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창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창의 활동은 대부분 팀 단위로 진행되었다. 교수님이 실시간 강의 플랫폼인 Kaltura의 기능을 이용하여 팀 단위로 화상 회의를 진행하게 하셨고, 우리는 교수님이 요청하신 창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팀 활동지를 제출해야 했다. 팀별로 창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면 교수님이 각각의 화상 회의에 번갈아 참여하며 학생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다시 모든 학생을 한 화상 회의에 불러들이며 각 팀별로 활동 내용을 발표하게 하셨다. 창의적 사고를 위한 기본 능력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본인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보게 하셨는데, 내가 우리 팀의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되었다. 교수님이 운을 띄워 주셨다.

임 : 임자 있어요.
채 : 채 갈 생각 하지 마세요.
현 : 현존하는 가장 비싼 남자에요.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본인이 발표할 때가 아니면 마이크를 끄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발표를 마친 후에는 정적이 흘렀다. 용기 내어 발표한 삼행시에 아무런 반응을 듣지 못하니 괜히 부끄러웠다. 대면 수업이었으면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특이한 상황이다. 교수님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끔씩 던지는 농담에 음소거 된 학생들의 화면만 보이고 정적이 흐를 때면 머쓱한 웃음을 짓곤 하셨다.

창의적 사고 수업은 기말고사 대신에 팀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원래였으면 팀원들과 함께 모여 준비했겠지만 그럴 수 없었기에 ZOOM과 카카오톡, 구글 공유문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낯선 팀원들과 화면에 비친 얼굴로 안면을 트고, 6명이나 되는 팀원들이 과제를 분배하여 작업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였다. 하지만 우리 팀은 팀원들이 모두 팀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과제에 적응하고 수행해 나갔다. 각자 맡은 부분을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6명의 의견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려 노력했다. 팀 프로젝트는 창의적 사고 수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

이었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 팀은 매일 화상 회의를 진행하며 하루 두 끼를 팀원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쉴 수 없었기에 정해진 시간에 같이 식사를 했다. 화상 회의를 멈추지 않고 서로의 먹는 모습까지 공유했다. 때로는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같이 농담을 하며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한 팀원들과 친해졌다. 서울, 대전, 광주 등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수업에 참여했지만 직접 만난 것 못지않게 팀원들과 친하게 지내며 어울렸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발표자는 자신의 화면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해야했다. 창의적 사고는 실시간 수업에서 팀원들과 다양한 창의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Kaltura의 자체 댓글 기능이나 카카오톡으로 팀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했다. 그날도 우리 팀은 발표자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놓치는 부분 없이 잘 발표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팀 발표자가 완벽하게 발표를 마쳤을 때 우리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환호를 외쳤다. 바로 그 때 발표자가 자신의 화면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발표를 마친 뒤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 채팅을 읽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업을 듣던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에게 우리 팀원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발표자를 응원하고 환호하는 채팅들이 보이게 되었다. 우리 팀원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웃음이 터졌고, 아직까지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발표자의 화면이 계속해서 공유되자 우리는 더욱 더 환호했다. 창의적 사고 수업을 들으며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이었다.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공부하며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나는 것이 이 수업의 최종적인 목표였는데, 수업 중에 진행된 여러 팀 활동들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 고민했던 과정들 또한 우리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함께 고생한 팀원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지만, 비대면 수업임에도 대면 수업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가르침을 주는 수업이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과제로 제출했던 성찰 활동 중 일부를 적어본다. 아무런 반응 없는 삼행시를 발표한 뒤 부끄러움에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 의지를 다졌던 글이다.

“개성 있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고작 입 밖으로 내세울 자신감 하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버리고 만다. 내 아이디어가 남들에게 비웃음 당한다 해도 나는 내 아이디어를 세상 밖에 던져보겠다는 자신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여기에 유연하고 편견 없는 사고를 더했을 때 우리는 이 사회가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수업이 나에게 편견 없이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나는 그 자유로운 사고에 내 자신감을 더해 밖으로 내던져보겠다고 다짐한다.”

입선

과학사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교과목명 : 과학사
교 수 명 : 안성혁
학 과 : 기계공학과
이 름 : 임채형

지난 1학기에 나는 7과목의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였다. 그 중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안성혁 교수님의 '과학사'이다. 과학사 과목의 첫 과제는 다름 아닌 '왜 이 과목을 수강신청 하였는지,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지 기대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써내는 것이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학인증 이수를 위해, 꿀과목이라고 들어서 등등의 수강 이유를 꼽을 것이고, 나도 여기서 크게 벗어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교수님께서는 80여명의 학생들에게 80여 가지의 답변을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어떤 답을 내놓든 그것을 평가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학생들이 얻어가길 바라시는 내용을 말씀하셨다.

과학사 강의의 서론은 과학사란 무엇이며, 왜 과학사의 교육이 필요한지의 내용이었다. 과학사 교육의 목적은 융합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과학사는 단순히 과학적 사실만을 나열한 역사의 부분집합뿐이 아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과학은 홀로 외롭게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철학과 종교 등 다른 학문과 밀접한 관계를 주고받으며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 관계가 협조적인 때도 있었고, 반대로 첨예한 대립일 때도 있었지만 말이다. 학문간 교류는 즉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과 이론을 도출해낸다는 것이다. 아주대의 슬로건인 '커넥팅 마인드'와 일맥상통한다. 이것이 내가 원격수업 참여 사례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과학사 과목을 소재로 선택한 이유다. 다른 학생들도 이 강의를 듣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길 바라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사 과목을 수강한다고 해서 곧바로 융복합 인재로 환골탈태하는 것은 아니다. 융합적 사고의 중요함을 과학사 수업에서 일깨워주면 그 다음은 학생의 몫이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대학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니 말이다.

이 수업이 대면 강의로 진행됐더라면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실시간으로 질답이 오갔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학기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교수님께서는 이전까진 없었던 매주 수업마다 반 페이지 가량의 감상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다. 학기 초에는 감상문을 그저 귀찮은 것으로 치부했지만,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신문기사나 서적, 논문 등 수업 외에서 문헌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학기말에는 오히려 과학사 감상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전공 공부에 지친 나에겐 즐거운 휴식이 되었다. 추가로 바빌론과 공중정원, 영화 Agora, 그리고 코스모스 5부를 보고 느낀 점을 1300자 이상 작성하는 과제가 있었다. 각각 고대 오리엔트, 고대 그리스, 근대 유럽과 중세 이슬람의 과학에 대해 다루는 1~2시간 분량의 영상이었다. 이 과제 역시 수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

다.

비록 실시간 소통은 수업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교수님께선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자 영상과 사진, 지도 등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 사람의 기억은 텍스트와 음성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지만 시각 자료가 더해지면 장기 기억으로 남기 쉽다. Bb에 올라오는 참고자료를 양이 많다고 해서 넘길 것이 아니라 필기 내용과 같이 읽는 것이 이번 과학사 과목에서 A+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다들 한번쯤은 수업 방식에 질려 독학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과학사 수업에서는 그럴 걱정이 없다. 학생들이 영상을 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흥미로운 수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사를 공부하는데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강의노트에 교수님의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다. 학기 초에는 일일이 수업 내용을 받아쓰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했는데, 태블릿을 구입해 PDF 파일에 직접 손필기를 덧쓰니 더 내용이 알찬 필기노트 파일이 저절로 완성되었다. 여기에 참고자료 PDF 파일을 병합시키면 파일 하나로 텍스트와 그림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 강의노트와 참고자료를 학습하고 나면 교수님이 무엇을 출제하고 싶을지 대략적으로 보일 것이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아보니 절반가량은 예상했던 문제가 출제되었다. 다만 이는 나올법한 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되 지엽적인 내용도 숙지해두어야 한다. 예상이 되는 문제가 절반이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당황스러운 문제도 절반이었다는 것이다. 강의노트에 쓰여 있어 꼼꼼히 읽으면 놓치지 않을 문제, 수업을 듣지 않으면 절대 맞을 수 없는 문제, 얼핏 읽으면 그럴싸하지만 단어 하나가 바뀌어 있는 함정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과목이라고 편하게, 대충 들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과학사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과학사도 역사다.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이정표라 할 수 있다. 과학사도 마찬가지다. 아집에 잡혀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과학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기술에 사로잡혀 인간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편협한 시선과 아집을 벗어던져야 한다.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천 년 전 과학자들이 남긴 유산은 인간끼리 쥐어짜고 배를 불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의 시작은 철학이었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미지의 세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곧 과학이다. 과학사를 배워 과학과 세계를 보는 더 넓은 시각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입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참여 경험 에세이

교과목명 : 공업수학C
교 수 명 : 심호진
학 과 : 환경안전공학과
이 름 : 정성은

2020년 2월을 시작으로, 아직까지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다. 아주대학교와 재학생 모두 대면 강의를 위해 개강을 최대한 미뤘지만, 학사일정과 취업계 학생들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개강을 실시했다. 최대한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내가 수강한 대부분의 강의는 실시간 수업과 동영상 강의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그중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심호진 교수님의 공업수학C (수강번호 : E106, 2020-1학기 기준) 강의였다. 모든 교수님과 학생들이 비대면 강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였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개강이었다. 모두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심호진 교수님은 가장 먼저 첫 수업 동영상을 올려주셨다. 그 동영상을 통해 나는 심호진 교수님의 공업수학C 수업 방식의 틀을 잡을 수 있었다. 대면강의를 할 때도 주로 피피티로 수업을 진행하는 일반교양과목은 비대면 수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일반교양과목과 달리 교수님이 직접 풀이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의의가 있는 수학 과목과 전공과목은 비대면 방식이 수업 전달력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 수학 과목의 일종인 공업수학C 역시, 직접 문제의 풀이과정을 보여주실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수업내용이 잘 전달될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심호진 교수님은 문제의 모든 풀이 과정을 일일이 피피티에 적어 주셨다. 수학은 단 하나의 숫자와 단 하나의 기호가 뒤풀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 입장에서는 피피티 속 수학 방정식이 익숙하지 않아 혼동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수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피티 속 문자의 색깔까지 구분해 피피티를 업로드해주셨고, 덕분에 강의를 수강하는 데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또한 풀이를 하나의 슬라이드에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한 줄 한 줄 풀이과정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인과관계를 뚜렷이 설명해주셨다. 비록 교수님의 얼굴은 뵙지 못한 채 피피티와 교수님의 목소리 밖에 들을 수 없었지만, 교수님이 직접 칠판에 풀어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동영상 방식의 강의가 익숙해질 때쯤 교수님은 실시간 강의를 시작하셨다. 실시간 강의로 전환하면서 동영상 강의에서는 하지 못했던 질문을 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음향 체크와 수업의 속도가 괜찮은지를 자주 물어봐 주셨고 수업 중간에 채팅을 통해 드리는 질문에도 즉각 대답해 주셨다. 또한 교수님 앞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닌, 모니터를 통해 수업을 듣기 때문에 긴장감이 풀려 수업태도가 흐트러지기가 쉬웠다. 교수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업 도중에 출석체크를 하셨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출석 과제를 내주셨다. 출석과제 문제를 풀면서 당일 수업내용을 복습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시험공부도 착실히 할

수 있었다. 대면수업이라면 없었을 출석 과제를 하면서, 시험공부를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장점은 출석 과제를 통해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복습하게 되었고 이는 기억에도 오래 남아 효율적으로 다음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강의들은 zoom 프로그램(실시간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퀴즈와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했지만,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교수님과 학생 모두 공정성을 두고 고민이 많았다. 나 역시 최대한 공정하게 나의 실력을 평가받고 싶은 욕심이 컸다. 결국 공업수학C는 공정하게 대면 시험을 실시하되, 철저히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미리 시험 당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자세한 안내사항을 미리 공지해 주셨고, 나 역시도 미리 시간, 장소, 시험 방식안내를 받아 당일 시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미리 자세한 공지를 내려주신 덕분에, 공업수학C 시험의 앞 시간과 뒤 시간으로 실시하는 다른 과목의 시험도 무사히 실시 할 수 있었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의 학습 습관도 많이 바뀌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인 것이다. 이번 학기는 강의마다 평가 방식, 수업방식, 시험 방식, 과제 방식, 성적 기준 등 모든 것이 달랐기 때문에 즉각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 공지사항을 놓치거나 과제 마감일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게 위해 교수님의 말씀이나 공지사항을 강의별로 정리해 메모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과목별로 학습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었다. 이러한 습관은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강의마다 강의 방식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나의 학습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강의마다 방식이 다르겠지만, 나는 동영상 수업 위주의 강의에서는 예습보다 복습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수업을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혼자 책을 보며 복습을 하는 것보다, 교수님의 설명을 다시 들으며 복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가만히 교수님의 설명을 다시 듣는 것이 아니라 왜 교수님께서 이 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셨는지, 왜 이 예시를 통해 설명해 주셨을지 등 교수님의 입장에서 수업의 전개 과정을 추측하며 복습을 하는 방식이 매우 효율적이었다. 이 방법은 개념 정리가 더 쉽게 되면서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수업의 전개 과정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실시간 수업이 주된 강의라면, 나는 교수님이 미리 올려주신 강의노트를 미리 다운로드하고 한 번 훑어본 후 강의를 수강하였다. 대면 수업이 아닌 오프라인 실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거나, 끊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강의노트를 한 번 읽고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의 말씀이 끊겨도 수업의 흐름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대면 수업에서는 없었을 출석 과제와 얼굴을 뵈며 여쭤봤을 궁금증과 질문, 문제를 이메일로 질문하는 것도 새롭게 느껴졌다. 출석 과제는 교수님들마다 방식과 마감일이 달라 매일매일 내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기말고사 기간에 몰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미리미리 정기 고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질문을 말로 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메일이나 수업 중 채팅을 통해 문장을 통해서만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점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교수님의 답장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한 번 질문을 해서 당장 그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궁금증이 떠오르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그럴 때 교수님의 이메일 답장을 다시 읽어보고, 나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친구에게 보여주고 토론하면서 나의 궁금증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었다.

더불어 사실상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수님이나 조교님이 직접 앞에 서서 지켜보는 것이 아닌,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카메라가 없어서 실시간 강의 때 얼굴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고, 카메라의 화질이 좋지 않아서 책상에 전자기기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책상을 다 비출 수 있는 각도의 카메라와 환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험 중간에 발생할 돌발 상황에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 만약 대면 시험이라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손을 들고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교님이나 교수님의 연락처, 시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시험을 보다가 인터넷이 불안정해 ZOOM 프로그램에서 튕기거나, 화면이 꺼지는 등 많은 친구들이 돌발 상황을 겪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2학기에도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놓는다면 좋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친구들과 교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학업을 진행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 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비대면 강의가 대면 강의와 비교했을 때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 상황이며,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학업에 정진하면서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기를 바란다. 대면 강의를 모두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면서 생활 습관, 학습 습관 등 많은 것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 에세이를 비롯한 1학기 재학생들의 경험이 2학기 재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주대학교 학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주대 학우들끼리 힘을 모아 최대한 효율적이고 열정적인 학업을 이루어 냈으면 좋겠다.

입선

원격수업의 다양한 수업 방식에 대한 나의 경험과 팁

교과목명 : 경영통계와 자료 분석
교 수 명 : 임재익
학 과 : e-비즈니스학과
이 름 : 정예림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대학 소속 E-business학과 1학년 정예림입니다. 저는 이번 2020년도 1학기 수업을 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도 학생 측도 처음 겪는 전면 원격 수업에 대하여 제 경험을 토대로 좋았던 수업 방식과 노하우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들어보았습니다. 전면 인터넷 녹화 강의로 대체되는 강의, 칼투라를 이용한 실시간 강의, 줌을 이용한 화상강의, 녹화강의와 칼투라 실시간 강의를 주차별로 나누어 함께 진행하는 강의 등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각 수업의 특징과 제 수업참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효과적인 수업 방법과 수업 참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면 인터넷 녹화 강의로 대체되는 강의는 기간 내에 영상을 시청하면 되는 형태로 매우 편리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 중 임재익 교수님의 <경영통계와 자료 분석>강의는 전면 인터넷 녹화 강의 수업 중 정말 모범 강의라고 생각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수업 방식은 주차별로 녹화 강의가 블랙보드에 올라오면 기간 내로 시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 확인을 위해 한 주마다 간단한 퀴즈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퀴즈에 대한 해설까지 강의 노트에서 볼 수 있어 시험 준비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녹화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부지런히 수업을 시청하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체계적인 업데이트였습니다. 녹화강의와 강의노트, 과제까지 매주 블랙보드 파일로 나누어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주차별 강의노트에는 수업 ppt자료,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 통계 프로그램, 주차별 퀴즈과제, 동영상 강의까지 실제로 학교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이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강의다 보니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차별로 잘 정리하여 올려주셔서 제 컴퓨터는 다양하고 많은 자료들로 부족함 없이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칼투라를 이용한 실시간 강의와 줌을 이용한 화상강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업시간에 맞추어서 칼투라나 줌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던 강의 중 문진아 교수님의 <영어2> 수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수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팀플 등 프로젝트 수업을 시도하셨는데, 카톡을 이용해서 팀원과 소통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그 각각의 팀 카톡에 상주하셔서 팀플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교류 없이 한 학기가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을 잠시라도 동기들과 함께 대화하고 맞춰보며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 대해서는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

고 수업 종료 후에 시간 제한을 두며 카톡으로 필기내용을 사진 찍어 보내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수업참여도 뿐만 아니라 교수님 측에서도 수업의 난이도나 수업 전달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시간 화상수업과 녹화강의를 함께 이용하는 강의에 대해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재원 교수님의 <글쓰기> 수업에서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주차별로 강의를 듣는 주, 개인적인 글쓰기를 하기 위한 시간을 주는 주, 실시간 수업을 듣는 주를 나눠 알려주셨습니다. 영상강의와 실시간 수업을 번갈아서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루고 제대로 듣지 못할 수 있는 영상강의 특징에 대하여 실시간 수업으로 영상강의의 내용에 대한 과제와 확인을 번갈아 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글쓰기 첨삭 부분은 학교에 가지 않았음에도 파일 전송과 실시간 강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첨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실시간 수업에서는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한 수업을 듣고 학생 각자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진 후에 수업 종료 후 블랙보드의 토론 게시판을 이용하여 각자의 글과 과제들을 올리는 방식을 통하여 집중력 있는 화상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영상 강의는 학생 측과 교수진측 모두 편리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학생의 참여도와 강의 전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퀴즈나 과제를 이용한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나 오프라인 시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시간 강의에 대해서는 수업 참여도와 수업 전달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인터넷 불안정 및 잡음, 블랙보드 관련 인터넷 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아 수업이 지체되거나, 대기시간을 가지다 결국 영상강의로 전환되는 주도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접속이 되지 않으시거나, 학생들이 계속 재접속을 하는 등의 문제들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상강의 수업, 실시간 강의 수업, 영상과 실시간의 병행 수업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수업인 만큼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자료들과 수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나눠서 주차별로 업로드를 해주시고, 과제를 주고, 공지사항을 고지를 체계적으로 하는 수업이 개인적으로 집중력, 참여력이 높았고 보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 학습 노하우에 대하여 공유해 드리자면, 먼저 같은 곳 같은 시간에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시간 수업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칫하면 지각을 하거나 네트워크 문제로 인하여 접속이 안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미리 준비시간을 가져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며 캠을 키는 것도 수업에 대하여 집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는 수업 전에 무조건 알람을 맞춰놓았습니다. 녹화 강의는 기간 내에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밀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녹화강의도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듣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블랙보드 내에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는 란이 있으므로 강의를 들었음에도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꼭 출석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쳐 2시간 영상에 20분이 덜 기록돼 한 영상이 F(미출석)로 뜬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듣는 수업별로 파일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과제를 하기 위한 자료나 강의노트의 자료, 수업ppt등에 대하여 각 수업 파일에 다운받아 놓았고 이러한 부분은 과제 자료나 시험 자료 확인 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출기한이나 공지사항 속 특징적인 유의할 점에 대하여 먼슬리나 다이어리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인터넷 수업의 경우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강의도 듣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출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에는 그냥 가서 교수님의 공지를 들으면 되었고 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지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 자칫하면 기한을 넘겨버리는 불상사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1학기 중 이사를 했는데 이사 온 집에 인터넷 설치까지 며칠이 걸렸고 그 사이에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후 저는 먼슬리 다이어리와 핸드폰에 과제 제출 기한을 꼭 써놓았습니다. 블랙보드 마감일에 뜨지 않는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블랙보드 과제제출란 외에도 강의 클릭 후 부수적인 과제가 있는지 과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외에도 공지사항 확인 및 공지가 카톡이나 다른 매체로 올 수 있으니 소통창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노트 필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영상이나 실시간 그 어떤 방식도 학생의 집중과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듣는 강의보다 그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 학생이 집중하여 참여한다면 실강보다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판서에 대한 물리적 거리 제약, 타 학생의 잡음, 방해 등에서 자유롭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의노트에 올라가는 ppt 자료를 인쇄하여 그 자료에 필기를 하며 수업을 들으면 시험 대비에도 효과적이고 수업 집중도도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오프라인 시험을 보는 과목에 대해서는 ppt 수업자료와 과제, 과제 해설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 인쇄하여 필기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전공수업의 경우 과제를 참고하여 예상문제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얻은 자료들 꼭 효과적으로 모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실시간 강의, 영상 녹화 강의 그 무엇의 형태로든 체계적인 수업과 수업 자료의 업로드를 바탕으로, 수업 영상이나 자료의 기간 엄수와 출결, 지각, 집중의 문제에서 위의 저의 팁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가 모두 인터넷으로 고지되므로, 그 정보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한 확인과 참여는 원격 수업의 형태라 할지라도 유익한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찌 보면 처음 겪는 혼란스러운 수업 방식 속에서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